

이장: 아, 11사단이라고요?

김희철: 그 부대가 이동하면서?

양정렬: 영남에서 여기 오는 거기에도 그런 말이 나오고. 여러군데 다니다보니까 자꾸 그런 말이 나오면 이게 좀 신빙성이 있는 얘기 아니냐...

남1: 도포뱀이 거기다 싹 모아놓고 입산자 가족, 반란군들 가족 찾아 내라고 누가 기냐고 찾아내라고. 총 탁 놓고, 높은 데 총 탁 차려 놓고 달달달달달 썩버렸어.

양: 제사가 한날이니까..

남1: 도포뱀이 논바닥에 다 죽여놔어.

이장: 2월 초 아흐레 날이...

이장: 제사는 2월 초 아홉 날로.. 돌아가신 날짜는 십일날 돌아가셨다고 알죠. 그러니까 지금 여 물어보신 것은 그때 도장리 양민학살에 대해서는 2월 10일날이 맞아요.

김희철: 이장님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연세가 되셨죠?

13살인가, 14살.

(기억이 생생하시겠네요?)

그럼요. 알죠.

(그때 당시에 부대가 어떻게 들어왔고 그런 모습을 기억하세요?)

그 부대, 무슨 부대다 하는 것은 우리는 어리기도 했지만, 나이를 자셨다 할지라도 무슨 부대가 들어왔다는 건 모르고. 그 안날, 도포뱀이 논 앞에 가서 큰 집이 하나 있거든요. 그날 저녁에 회의를 했는데, 저 좌익에 활동한 사람들이 했지, 뭐. 반란군들이 회의를 하고 그 사람들은 그러곤 가버렸는디.

남2: 이미 알고 싹 빠져 버렸어.

이장: 가빠져버리고 저녁에 정보가 들어오기를 뭐 군을 어디다 풀었다고... 먼동 트 자말자 총소리가 나고 난리더니, 막 군인들이 집집마다 '나오라고, 살려면 나오라고. 모이라고.'

그러면서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신 게 우리 작은 아버지하고 기흥이 어머니하고.. 다리 앞에 여기서. 그 양반들은 다 나오라고 하니까 무심코, 옛날 반란군들은 도로를 자르고 그랬거든요, 그 양반들은 아침에 나오라해썩게 기흥이 어머니는 소쿠리하고 호맹이를 들었고 작은 아버지는 쇠스랑을 들었어. 뭐 파러 나오라고 하는 줄 알고. 그렇게 나오니까 경찰들이 바로 가서 총살시켜버렸어. 궁게 군인들이. 그랬는디 우리는 그 시체를 보고도, 돌아가신거 보고도 누구라도 어쩔 수 없이, 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바로 모이라 그러니까. 그 자리가 지금 말하는 도포뱀이거든요. 옛날 그 논 지명이.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당시에 모였을 때는, 내가 군대를 갔다와서 생각하니까 아마 소대장라고 생각이 들어, 그 사람은 칼빈을 짚어줬는데 그

위에 산이 있는디 그쪽으로 가서 빼아르 부대를 부릉게 그 사람들이 내려왔어. 그 논이 언덕이 2m이상 높지. 그 위로 올라가서 거총 자세를 취하라 그러더만. 그리고 아까 한 말씀과 같이 '입산한 사람들 가족있으면 나오라' 그러고. 또 대한민국의 군인가족, 경찰가족.. 대한민국에서 공히...

도포뱀이 있다면 그 길이 또 있어요. 그리고 다 올라오라 했거든. 나는 그때 당시에 경찰 가족이라 거기 올라가서 보고 있고. 그러구 있는데. 그래놓고는 빼아루, 거총 자세 한 사람한테 지시를, 처음에는 그 사람이 소대장이란 사람이 한 방 쏘을 기야. 썩고는 고쪽에서 막 그냥 돌려봉게 사람 다 죽은 거라.

남2: 그런 것이 아니며, 내가 거기서 가깝게 살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갔어. 그때 누구아버지하고 누구누구하고 서인가 너인가 제일 앞에 나갔는디. 손을 들고 이렇게 나가.

그렇게 군인이 막 때려버리더만. 그 군인들이 나오라고 하니께 어쩔수 없이 손을 들고 나왔는디. 그 도포뱀이에 전부 집결이 되었어, 사람이. 거기서 제일 처음에 경찰가족, 군인가족들은 밀으로 빼고, 그 다음에 노약자는 노약자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부너는 부너대로 딱 뿔었어. 그래놓고는 빼아루가 뿔인가 거기다 (총을)차려 놓고는 (썩)돌른 것이여.

남1: '너는 짜식아! 좀 더 젊은디 반란군에도 안 땡겼다고 어찌구...'하고 지목을 해서 그랬지. 그러니까 '저는 아파서 그런데 안 땡겼다고...'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총으로 그놈들이 젊은 층에다 대고 썩부렸어.

그렇게 부인들 치마속으로 똥구녕밑으로 안죽을라고 들어가버렸어. 그쪽으로 들어간 사람은 거의 살았어.

남2: 그 울타리로 다 빠져버렸어. 그리고 한창 거 쏘고 사람을 죽인께, 그 아줌마가 젊었어. 지금도 생존해 계시지만 그 양반이 얘기 업고 그 언덕을 올라가서 '죄없는 사람들 다 죽인다고. 죄없는 사람 다 죽는다고. 그래 갖고 그만치라도 죽고 살았지. 그렇지 않으면 다 죽였어도 몰라요.

남1: 다 나가라 해서 인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뒤를 돌아봉게 피투성이가 돼 갖고 죽은 사람 셋이서 조금 까닥거리는 사람은 다 다시 썩서 죽었어.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광우 아버지.. 죽을까봐 달달달 떨고 업어져갖고 있는데 다시 썩 버렸어. 내가 직접 봤어.

남2: 그래놓고는 거기서 죽여놓고는 다시 또 피난을 시켰어, 전부. 거 죽은 사람들 가족은. 산 사람은 가족들이 저그 집에다 옮겨 놔두고 어쩔 수 없이 짐을 지고 나간 것이여. 이불하고 식량 조금하고.

(남1: 안나가면 죽이께)

썩대기 짚고. 거기서 있다가 석양에 다시 들어가라해서 들어와서 봉게 모두 죽어 버렸어, 인자. 그 산 사람들 옮겨논 사람들.

남2; 그래서 인제 이집에 와서 파묻고, 또 요 집에 와서 파묻고.

● 전남 화순 도장리 마을회관, 현장 인터뷰

@촬영장소: 전남 화순 도장리 마을 회관, 학살현장(도포뱀이 논)

@나오는 분들 인적 사항

도장리 이장 김범순

남1: 김명기(64세) - 반란군 노래 약간 기억하심.

할머니: 나순례(79세) - 학살 현장에서 총 못쏘게 말리심.

남1: 집에가 있으면 반란군들이 반동으로 몰아버리지. 그렇게 되었어요

남2: 여기가 38선 마냥으로 경계가 되어 가지고. 낮에는 저 사람들이 밀고 들어 오고 밤에는 또 저 사람들이 밀고 들어오고.

이장: 우리 도암지역이 가장 늦게 되었지, 진주가? 우리 아군이 진주하기를 가장 늦게 했어. 여가 큰 화학산이라는 그런 거대한 산을. 해남, 강진 저쪽 부대들이 전부 요쪽으로 다 모여 갖고 여기를. 아마 지금 생각함께 군이 작전 포위망을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것이 저녁에 발견이 돼 갖고 아마 우리 마을에서 큰 피해를 많이 입은 것 같애. 사실 죽은 사람들은 아무런 죄 없는, 이름 없는 사람들만 죽었거든요. 전혀. 그런데 유일하게 여자는 안죽인 것 같아.

남1: 여자는 빼놓고 안 쏘당께.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 밑으로 다 들어갔지.

남2: 또 얘기들은 어찌다 맞아 버렸재.

남1: 젊은 사람은 다 강제로 입산시키는 통에 전부 그리 가갖고 산으로 숨어버리고. 또 부락일 본 사람들은 땅속에다 비트 파갖고 막 숨고 그랬어. 내가 아요.

아무도 죄없는 사람만 거기 가 갖고 회생을 당했어요.

이장: 우리가 생각할 땐 그래 지금. 현 문민정부 들어서 지금 현재. 그 무고한 양민학살이었거든, 그때 당시. 그러면 그것이 좌익에 의해서 학살당했다 그러면 또 이해가 되지만 우리 순순한 군에 의해서 학살당했다는 거, 이거는 참, 문민정부 들어서 이런 것은 어떤 회복이 명예회복이 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국가에서 어떤 법이 제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유족들이라든가 동민들이 생각할 때.

남1: 죽을 고삐를 어떻게 많이 당했던지. 피난갈 때, 우리가 상당히 빨랐을 텐데, 나이로 봐서. 여 뒤에가 실탄이 쿵쿵 떨어지는 것 보고... 이런 게 여러번이었어. 그라고 매일 피난을 나가고.

남3: ... 조까 미숙한게 거 대대장인가 카빈 들고 한 사람이 저쪽으로 끌고 갔거든. 갔는데, '너는 그날 저녁 사건을 얘기를 해라' 그러니 아무 말도 안해버렸거든. 그렇게 '너도 빨갱이다' 그러면서 썩버렸어.

남1; 피난도 안나갈라 하는디 나가기 싫어도 나갔는데. 안나가면 저놈들하고 통

한다고

김희철: 이쪽이 유족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이장: 근데 그 유족회가요, 지금 현재 그때 당시 사망된 유족들이 다 여가 있다면 유족회가 만들어지는데, 서울로 부산으로 광주로 저렇게 핑계 박산이 되버리니까, 자손들이. 지금 현재 여기 유족들이 몇분 계세요. 계시지만은 나가서 모두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유족회 구성도 하면 되겠지만은, 지금현재 문민정부 들어서 이런 것이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양민학살 당한 것이 신문이나 라디오, 뉴스를 통해서 듣고 하니까, 우리마을에서도 몇 년전에 그것을, 마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회의 때도 김의원이 일 볼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것이 앞으로 명예회복이라도 왜야한다 이런 말이 ...우리가 군에서 하기 전에.

마을에서 김의원이 그런 것을 주장한 분이여, 그분이. 그랬는데, 그것이 그때 문민정부가 아니었고 현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그때 할 때는 그런 말 생각도 못했고. 이제 와서사 그런 명예회복이라도 시켜줘야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인데. 유족회가 구성이 못됐다는 것은 객지에 나가 모두 계시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객지에 나간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당장 요분들이 주선을 해야 하는디. 여기 계신분들은 일이나 해먹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서는 마음이 더 열리지 못 해오니까 못 허죠. 벌써 도시로 나간 분들은 모든 면에서 배운 분들이고, 그 자손들이. 그분들이 서둘고 해야하는데.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이장: 못 할거란 말이요. 치매끼가 있어 갖고. 지난번엔 했어요. 우리가 화순 가서는 그때.

남1: 그분이 총부리를 잡고. '여기 있는 사람은 전부 죄가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만 여가 나왔습니다.' 사람 살리느라고. 그 분이 우리 동네 사람 다 살렸다고 그런 말도 있고 그랬어. 이장: 목비라도 세워줘야 한다는 그런 말이 부락에서 나오고 그랬어.

남1: 그렇게 6.25는 우리가 내가 14살에 만났고 요일은 열 다섯 살에 만났어. 내가 분명히 알아.

이장: 기축, 경이, 신묘? 아 신묘년에. 아 그러면 세 살이 겠소.

(남4: 공산당이 밀려와 갖고..)

남3: 원 다섯. 그 사람은 지금 을축생이고

남1: 그때 얘기는 가닥이 없어. 날마다 총부리 밑에서...

남3: 아, 요 광산 양반은 거기서도 살아 나오고..

또 저녁엔 반란군들이 와서 태워가고 그러고 낮에는 경찰 군인 작전 들어가고 하면서도.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이 지역은.

이장: 그러지라.

남2: 4월달에 주둔을 했다고 하면, 2월달이고 그렇게. 음력으로 양력을 따진다하

면 얼마 안 있다가...

남1: 진주 반란군들이 밤에는 구들구들했어. 낮에는 경찰들이 성가시게 하고 밤에는 반란군들이 지글지글. 목을 것이 없으니까 목을 것 가져갈라고 구들구들했지.

남1: 소도 잡아가고 닭도 잡아가고, 닥치는 대로 막 가져갔어.

도암 논길, 이장 안내

이장:(산 가리키며) 저기가 망산이고 요거이 고당산이고 요리가 군인들이 딱 점령해버렸어.

이장: (문열리고 할머니 보임) 계시는 구만. 다른 게 아니고 그때 도포뎀이, 양민학살 그때 할머니 때문에 우리 마을 사람들이 많이 살았잖아. 그것 좀 탐방 나오셨어. 그때 말씀 좀 해주시라고.

(남1: 말씀을 해 주시라고)

이장: 정신이 좀 흐리쇼. 그때 생각을 좀 되살려서 말씀을 해 주시라고 좀.

할머니: 시방 2년을 이려고 있소. 다 잊어버렸다.

(남1: 그렇게 거기서 사람이 총 쏘서 다 죽어간게 총부리를 잡고 '죄 없는 사람이라고 살려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요.)

할머니: 대번에 가서 콧 틀어잡았어. '죄 없는 인간들이요, 죄 없는 인간들이요.' 그렇게 '너희 서방은 어디 갔어?' 그러더만, 대번에. 그래서 갔다고 가져 왔어.

(남1: 그때 아재가 반란군에 갔다고 했소, 군인에 갔다 했소?)

할머니: 군대 갔다고 했지.

(남1: 지금 몇이쇼?)

할머니: 지금 일흔 둘인가, 셋인가.

남1: 아재하고 동갑이쇼? 그러면 일흔 아홉이재. 거기서 50을 빼봐, 거기서.

이장: 스물 아홉 정도(그 당시에).

(김희철: 얘기를 그때 업고 계셨어요?)

(남1: 그 얘기 지금 살아서 청년 되었어. 하하하)

(이장: 지금 쉰 몇살 먹었는디.)

할머니: 얘기를 업었어라. 내가.

(김희철: 그때 몇 명 정도 군인들이 와서?)

남1: 겁나게 많이 왔제.

할: 사람이 모이기를 술밭에 술보다 더 많아라. 그래 갖고 살리긴 참 많이 살렸소.

(이장: 그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잘 하시더니..)

남1: 총을 쏘게 총을 쏘서 사람들이 죽은 것을 보고... 총부리를 잡고 못 쏘게 하지 않았소? 그런 이야기를.)

할: 이제 다 잊어버렸는데, 뭐.

(남1: 총부리 잡은 이야기도 하시고 그만 쏘라고 '죄없는 사람....' 그 얘기 했어.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게.

할: 죄 없는 인간들만 여가 있다고. 죄 있는 사람은 다 산으로 다 가버렸다고 했어요. 산으로 갔다고 했더니 그 산으로 다 올라가 버리더만. 내가 시방 못허졌소.

(남1: 어떻게 가서 총부리를 잡으셨소? 어쩔까봐서.)

할: 요리고 불을 총에서, 총에서 불이 퍼뜩퍼뜩 합디다. 그거 꺼지라고 쥐었어라. 내손은 디기나 말기나 막 쥐었어.

(남1: 총 그만 쏘라고 하시로)

할: 무정한 농민들만 여가 있소. 그러니깐 '너희 서방은 어디가 있냐?' 그러더만, '우리 남편도 그 사람 따라가 버렸다' 이러니까 '잘 알았다'고 합디다.

(김희철: 몇 명 정도 사람이 죽었을 때 할머니가 (말리셨어요?)

남1: 그나저나 할머니가 그러신 뒤로는 총을 안 쏘어. 그 전에 죽을 사람은 거의 죽었어.

(김희철: 한 20명 죽고 나서)

남1: 예, 그 뒤로는 안 쏘었어요. 지금 내가 생생한다.

(김희철: 그러면 다 모였을 때는 마을 분들이 몇 분정도 계셨어요?)

(남1: 그때는...

백오십도 더 되요. 거의 모였어요. 안 나가면 죽인다 그러니까.

할: 여기 여 갱변에 다 드러 누웠어요, 사람이.

(남1: 숨이 맥힐 정도로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그랬어요.)

할: 내가 시방 몸이 좋지 못해 갖고.

(남1: 아침에 자고 나니까 나오라 그럼디까?)

할: 아침에 자고는 콩밥을 했어라. 시방도 안 잊어먹었어. 콩밥을 했는디.. '너희 술 열어봐라.' 그래. 그래서 '씨아리 국 끓여냈다.' 그랬어. 검은니까. 얼른 줄까봐 뚜껑을 덮어버렸어.

(남1: 그래서 손들고 오라고 해서 갔습니까?)

할: 손들고 오라 하는디 내가 그말 안 할 적엔 안 합디다. ... 내가 말을 하니깐 나오디다.

얼른들 나오시라고. 이 양반들은 우리들 살릴라고 그런 것이지, 근심 줄라고 나오신분들 아니라고. 박수를 막 쳐줘.

(남1: 그랬어. '죄없는 사람 안죽이게 다 나오라고' 막 그랬어. 그 사람들이 나오라해쌍게

할: 살고자 하면 나오라 합디다. 그래도 만나가고 숨어서 안 나온 사람이 많애. 이런 말이 나서 강원도 그 사람을 내가 살렸어라. 근데 모른 채하고 막 달라 듬디다.

(남1: 반란군 가족이라고 죽일라 그러는디)

할: 반란군 가족이라고...

내가 말이 안 통하지라.

(남1: 잡은 뒤로 총은 안 쏘어. 썩도 조금 쏘고 그 전에 많이 죽이고)

할: 그 사람들은 저 산을 넘어 서고.

내가 악을 썼어라. '무정한 농민들만 여가 다 있다고'

(찾는 사람들은) 다 청태산으로 갔다고 했어. 아, 그 말을 듣고 봉개, 내 남편이 거가 들어있어. 이름만 들었어. 그래 '우메, 내가 불 끝에 붙들렸구나.' 내 마음이. 그러고는 뭘 밥을 해놨나해서 씨가리 밥했다 그랬어. 좋은 밥 먹었다 그러면 밥 푸라고 할까 겁나서. 근데, 그때 이 이야기가 쪽 잘했는데 인자... 그 소리를 해 놓고는 자기 집으로 모두 와 버렸지. 소도 있고 개도 있고. 막 그냥 다 있다고 그런 소리도 했어.

(남1: 아제가 반란군에 다녀댜셨소?)

할: 반란군에 가 갖고 대밭 속에다가 세워 놓고...

남1: 그땐 하기사 연령이 그 정도 되면 가기 싫으나 안 싫으나 다 끌어 갔을께.

할: 죽어도 가고 살아도 가고 다 갔지. 내가 옳은 말을 못허요. 말을 참말로 오신 양반들이 다 한말씩 다하고 내 등거리 안 때리고 간 사람이 없었소. 살았다고. 내 등거리 다 손질 안하고 간 사람이 없었소.

(남1: 어쩐다고라고? 총 잡았다고?)

할: ...

(남1: 말씀을 잘 하시는 양반인데, 못하시는구만. 내가 억부러 말이 나오게끔 할라고 하는데도)

남1: 그때 현장을 사람이 다 죽겠어서 쫓아가서, 다 죽이겠어서 요렇게 잡고. 그렇게 했어.

할: '무정한 농민들만 여가 있소'하면서 빌었당께.

(남1: 막 야단이었어. 원래 말씀도 잘하시는 분이여. 다 죽어 가는데.. 거기서도 살아 나오고 그런 사람도 있고)

할: 내가 말을 시방 못하니까 그러재. 그때 게는 다 했어라.

남2: ... 그 양반이 그런 말씀하셨어. 지금 살아 계신다면 90세나 됐을텐데. 그 아제가. 한번이라도 꾸물거린 사람은 아프다고 하면 다시 재차 썩 갖고 죽였지.

(남1: 꿈지락하는 사람 있으면 찰라고 총을 겨누고 돌아 댜겼어.)

할: 지그놈도 무서운디.

(남1: 거기서 모아놓고 '반란군 가족이 누구기냐?' 막 물어썩잖아? 쏘기 전에는. 그래 갖고 하나도 안나올께는.

할: 무시라 하나 그러면 ...죽지도 못하고 살아도 못허고...

유가족이 거시가지라. (할아버지들 말씀소리) 경찰 가족 나오라 합디다. 그 다음에 군인가족 나오라고

(남1: 썩 첨에는 반란군에 아들 간 사람들 가족 나오라고 뷔았어.)

할: 썩 첨에는 그렇게 하고..

(남1: 딱 모아 놓고는 썩버렸어.)

할: 누구를 처음에 하나함께 저 남도 가족, 군인 가족. 그 사람들 다.

여기는 길이고 여기는 물 내려가는 길이면. 유가족 나오랍다. 유가족 나오라고 함께 군인가족이 썩 나가재. 오메 좋아서 환장하것어라.

(남1: 눈치빠른 사람은 아닌 사람도 그리 올라갔어. '아, 요기가면 살겼구나'하고 그리 올라갔지.)

할: 유가족 나오라 하니께, 빛이나 거, 남도 가족. 또 한번은 불러 보더니 인자 거시기 경찰 가족. 경찰가족 나오라 합디다. 인제 또 ...

남1: 그때 아팠어. 그 중에서는 제일 젊어갖고 반란군 가족이 아니랑께 '너는 이 자식아, 너는 빛이나' 그러니까 '저는 안 갔습디다. 저는 몸이 아파갖고 안 갔습디다.' 처음에는 입산자 가족이 누가 기냐고 가져주라고 뷔았어요. 우리들. 갈쳐 주면 죽을까봐...

할: 또 동네를 놔두고 요리 가. 무엇을 썰어지었어. 장을 싸라 그랬어. 된장, 장하고 소금하고. 오래 먹을 거. 고런 거 싸고. 그래 갖고 여기를 내놓께 갱변에 가서 서인가 죽어버렸어.

(남1: 나오라 해서 나오는데 썩버렸어. 그 사람들은)

할: 그래서 그렇게 말을 똑바르게 못함께 짐작해서 말씀올 하게.

할머니 : 요래 댜기는 것도 고맙수. 내가 아프지만 안 하면 요렇게 말 안 해라.

(남1: 말씀도 잘 하는 양반인데.)

그래도 우리 머슴애 둘 키우고 딸을 넷 키우고.

(이장: 현장으로 가봅시다.)

회의했던 집 마당으로 들어감.

이장: 요 마당이지, 바로

남1: 여기서요. 동네사람 다 모아 갖고 여기서. 그 노래. 지금 부르면 못쓸 거요. 그 뒤로는 통 안 불러 봤는디.

마당 안. 남1 서있음

(김희철: 그 인민군이 회의를 주관하던, 반란군이요, 반란군이..)

남1: 예. 반란군이 여기 와서 연설하고 우리 부락민들이 요리 다 서서 노래 부르 라면 노래 부르고 연설소리 듣고 그랬어요. 예, 여기서 들어보고 그랬다 그랬어 그때.

남1(웃음) 서 계심

(김희철: 가사 같은 거 기억이 나세요?)

기억은 나지라.

(가사 내용이 어떤?)

태백산맥에 눈 나린다. / 총을 매어라 줄지니다

그렇게 가요. 그렇게 반란군들 노래는 그 뒤로는 불러본 적이 없어.

노래 멜로디

눈나린다. 총을 매어라 줄지니다

많이 잊었네. 여러 가지 알긴 알아. 끝까지는 잘 모르겠어, 하하하. 50년이 흘러 버렸으니.

언덕 앞 이장 설명.

이장: 이 위에 산이 배남등. 거기서 바로 일개 소대 선발대가 있었던가봐. 내가 아까 말한 소대장이 그 사람이 데리고 내려와갖고 빼아르들을 부르더니 저기다가 높은 언덕에다가 거총을 시켰거든.

남1: 젊은 사람은 저쪽으로, 노인들은 저쪽으로, 젊은 사람은 가운데로, 애기들은 애기들대로, 부인들은 제일 요쪽에 섰어. 사람들이 많이 죽으께 겁이 나니까 산 사람들은 부인들 치마속으로 다 들어갔어. 여하도 피가 많이 흘러갖고 여기 눈을 안볼라고 했어요.

남1: 여기서 서서 소대장이라는 사람이 반란군들 가족 찾으라고. 여기 서서.

언덕 앞에서 남1 당시 상황 설명

남1: 요쪽에서 그냥 무장한 군인들이 여기다가 차려놓고 덜덜덜덜 썩버렸어, 그 냥.

남1: 아닌 사람도 올라오고. 올라온 사람은 무사히 살았어. 총 하나도 안 맞고. 저가 서있는 사람만 죽여 버렸제.

김희철: 먼저 나오라고 한 사람은 그쪽으로 올라오고?

남1: 아니, 여 올라온 사람은 경찰가족, 군인가족.

(그러니까 먼저 불렀죠?)

남1: 아니여. 반란군들 가족이 누가 기냐고 갈켜 달라 한 뒤에서, 총 쏠라 한시로 경찰가족 군인가족을 불렀죠, 요리. 그렇게 올라온 즉시 직후에 썩버렸지, 총을 그냥. 여 위에서 차려놓고.

그렇게 눈치 빠른 사람들은 경찰 가족 아닌 사람들도 올라왔어. 나중에 말 들어 붕계.

그때 우리는 어렸든가 밋도 모롱께 저기서 살기는 살았는데.

남1: 손들고 다 오라고 총부리 겨누고 그렇게 무서워서 다 나왔죠.

남1, 남2 상황 설명

남1: 연장 갖고 나오라 안 했어. 손들고만 나오라 했는디, 모르고 연장을 갖고 나왔지.

남2: 반란군들이 말들 하기를 도로 끊어 버리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일 갔다 들에 갔다 온 양반들도 갑자기 나오라 하니까 또 인자 반란군들이 나오라 하는 줄

알고 연장을 갖고 나왔다 그 말이여.

남1: 2월 초 아흐레 날, 제사가.

(김희철: 매년 음력으로 2월 초...)

그렇게 죽기는. 여기 현장은 십일 날이지. 2월 열흘날인디 제사는 산날로 지내기 때문에 초 아흐레날로 지내죠. 음력으로.

남1: 슬퍼서 울고, 전 동네가 울음 곳이요.

김희철: 같은 날이니까요?

남1: 예, 같은 날이니까. 막 죽어서는. 제삿날, 그 이듬해 제사 지낼 때. 그런데, 지금은 인자 방에서 지내니까 그런 것은 잘 몰라요. 지내기는 지금도 제사를 다 지내는디 지금은 방에서 지내요.

하천 옆 길. 이장 상황 설명.

이장: 여기서 돌아가셨지.

요렇게 요리 징검다리로 건너다니는 길이였거든요. 그런데 새로 다리가 나가지고 또 하천 정리가 돼 버리니까 요것이 모든 구조가 좀 변경되었는데. 주로 주민들이 이리 징검다리로 건너다니고 저리로 올라 다녔는데, 저기로 모이라고 하니까. 여기 가다가 바로 요 자리여. 여기서 썩버렸어. 여기서 돌아가셨어.

이장: 대를 우리가 대를 비어다가 쪼개 갖고 맨들어 갖고 요쪽 모퉁이에다 모셨어.

남1: 그때는 뭐 사러 갈 데도 없어. 그렇게 대를 그냥 쪼개 갖고, 그냥 몰아 갖고 밤에 파묻었지, 밤에. 우리 작은 형님은 밤에 파묻었어.

이장: 여기서 우리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 기흥이 어머니하고.

남1: 그때 우리는 다 컸어. 내가 일찍 컸거든. 우리는 일찍 컸어. 그래 갖고 우리는 그 일을 상상 허니알어. 그때 장면은 못나오지. 천 정리를 해부려 놔서.

10. 함평

1. 학살 사건 시기 및 장소

시기 : 1950.12.6부터 1951.1.12사이.
장소 : 전남 함평군 해보면, 나산면, 월야면 일대

2. 당시 상황 및 가해자 현황

-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 군인
- * 指揮官 - 사단장 : 崔德新 준장(堅壁清野개념 作戰지시)
 - 연대장 : 朴其丙 대령
 - 대대장 : 柳甲烈 소령
 - 중대장 : 權俊 E 대위
- 0 根據 : ㉠ 국회 제 35회 임시의 제19차본회의에서 "국회양민 학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위원장 崔大義員)
- ㉡ 국회 제35회 임시의 제42차 본회의에서 특위 보고사항 만장일치로 의결.
 - ㉢ 민의원의장(郭尙勳) 명의로 국무총리(崔政)에게 후속 조치토록 서면 통보.
 - ㉣ 4293년(1969)5월 20일(금요일)부터 1960년 5월 21일자(토요일) 韓國日報 報道 資料
- 0 證人 ㉠ 당시 제20연대 제2대대 5중대 중대장(權俊 E 대위) 연락병으로 중대장과 함께 학살에 참여한 金日好씨 (당시계급 일병) 증언서.
- ㉡ 당시 국방부 정훈국소속 함평지역 선무공작대원 曺東 :面(월야,해보,나산면) 파견대장 직책으로 학살 현장에 있었으며,전남도1대 2대 도의원과 국회 제7,8,9,10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고,현재 기독교 장로 신분인 尹仁植씨 사실 확인서.
 - ㉢ 당시 월야지서장(경사) 이었던 李啓菴씨 증언서.

3. 피학살자 현황

524명(川也面;350. 海保面;128. 羅山面;46)학살
0 財 産 : 1,454家屋 燒失.(全燒;880.半燒;180.全破;260. 半破;201. 其他;5)

국회특위 위원의 양민학살 조사결과 집계

구분	피해지역	인원수(명)	재산피해	비고
총계	42개 지역	8,715	가옥 : 10,041호,4,179동 식량 : 4,930석, 가축 : 3,036두 의류 : 38,949점	
경 남	거창군	719		
	거제군	44		
	함양군	593	가옥 :2,755호, 식량:4,930석 농우 :518두, 의류 : 38,949점	
	동래군	33		
	울산읍	677		
	충무시	267		
	구포읍	58		
	마산시	188		
	산청군	506		
소 계	9개 지역	3,085	가옥 :2,755호, 식량:4,930석 농우 : 518두, 의류 : 38,949점	
경 북	대구시 상원동	240		
	대구시 파 동	100		
	대구시파동가창담부근	100		
	대구형무소	1,402		
	문경군(산북면인봉리)	86	가옥 24호	
	대구시 일원	272		
소 계	6개소	2,200	가옥 24호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350	가옥 : 1,449호	
	함평군 해보면	128		
		46	가옥 : 5호	
소 계	3개소	524	가옥 : 1,454호	

국회특위 위원의 양민학살 조사결과 집계

구 분	피 해 지 역	인원수(명)	재산피해	비 고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면	34	가옥 : 18호	
	순창군 인계면	36	가옥 : 321호	
	순창군 동계면	97	가옥 : 757호	
	순창군 풍산면	15		
	순창군 팔덕면	12	가옥 : 16호	
	순창군 금천면	33		
	순창군 적성면	7		
	순창군 유등면	6		
	순창군 구리면	86	가옥 : 1,549호	
	순창군 쌍치면	536	가옥 : 1,413호	
	순창군 북흥면	166	가옥 : 1,287호	
소 계	11개소	1,028	가옥 : 5,361호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면	289		
	북제주군 한경면	83		
	북제주군 애월면	223		
	북제주군 구좌면	54		
	북제주군 한림면	107		
	남제주군 남원면	236		
	남제주군 중문면	3		
	남제주군 성산면	15		
	남제주군 안덕면	216		
	남제주군 서귀읍	26		
	남제주군 대청읍	182		
	남제주군 표선면	341		
	제주시	103	가옥 : 4,179동, 가호 : 427호 가축 : 2,518두	
소 계	13개소	1,878	가옥 : 4,179동, 가호 : 427호 가축 : 2,519두	

4. 사례 및 증언

● 국회 속기록 자료를 재편집함

당시 월야지서에 근무(순경)한 吳正□ 集團虐殺 內容

중대본부가 있는 해보면 문장에서 장성군 삼서로 가는 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가다가 월야면 정산리 장교와 동촌마을 입구에서 공비의 습격을 받아 국군 3명이 피해를 다했고, 야간에는 공비들이 "승전축하잔치"를 하며 인근마을 주민을 강제로 모아놓고 봉화불을 피우고 징과 팡파리를 치며 국군을 조롱하자 이에 격분한 20연대 5중대 군인들이 익일인 1950년 12월 6일(陰:10.270 장교와 동촌마을 주민들을 마을앞 논으로 모이게 한 후 양민 70명을 학살하였다.(증인:당시 16세로 현재 동촌마을 거주 광상일).

해발 164m의 월악산 자락에 웅기종기 자리한 전형적인 농촌마을도 동년 12월 7일(陰:10.28) 5중대장의 인솔하에 5중대 병력이 7개부락(지변,내동,동산,순촌,송계,괴정,성주)양민 700여명을 "도로공사 하러가니 나이에 관계없이 모이도록" 하고 15세 미만의 아이들은 마을로 가서 가옥에 불을 지르도록 지시하였고, 15세부터 45세 사이의 주민을 별도로 분리하여 세운다음 총으로 사살하였다. 죽지 아니한 자를 찾아내 사살하기 위하여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은 불을 끄러가라"고 하여 일어난자는 사살하고 또 외치고, 일어서면 사살하기를 3번이나하였고 아무도 일어나지 아니한자 확인 사살까지 하여 200여명을 학살하였다. (증인:5중대장 연락병이 살려준 당시 학생신분인 정일웅,현장에서 살아난 양채문과 정남숙,5중대장 연락병으로 현장에 있었던 제주도에 거주하는 김일호, 선무공작대원 겸 동삼면 파견대장으로 현장에 계셨던 前 국회의원(7~10대까지)인 윤인식, 당시 월야지서장 이계필, 당시 월야 지서 순경 오정인,마을 주민)

또 다음날인 12월 9일은 월야면 외치리 외치부락 주민이 공비와 싸고 야간에 광주 영광간 도로를 굴착하여 軍작전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니 동조자를 색출한다는 이유로 주민을 모이게 한후에 22명을 뽑아서 현장에서 1명을 사살하여도 동조자가 색출되지 아니하자 월야초등학교 뒤와 해보 금덕리 두리샘 언덕에서 17명을 사살한바 있다(증인:전 월야면장 정기정, 당시부면장으로 외치거주 정복만).

1950년 12월31일(陰:11.23)해보면 대창리 쌍구령과 1951년 1월 12일(陰:50.12.5)해보면 상곡리 모평마을에서는 5중대 군인들이 마을을 疏開하며 소재지로 피난을 가는 주민을 무조건 총으로 사살하여 70여명을 학살하였다(증인:현재 광암리 거주 박용원, 모평거주 윤석현,생존자 윤경중, 주민들) 또한 인근에 있는 나산면 우치리의 경우도 같은 이유로 50여명이 희생되었다(증인:우치리 이계준,주민들)

● 함평 강영주 정응모 정기정 증언

강영주 할머니 (현장에서 둘째 아들 잃고 총탄 여러 발을 맞음) (강영주 할머니 맥 - 낮)

강영주 : 어... 아기도 안 지우고 금계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았다고 다들 그랬어...

아들 : 총을 한방 맞은게 아닌거 같애. 어머니는 정신이 없으께 한방 맞았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예측으로는 멧방(5발) 맞은거 같어...

Q: 손가락은?

강영주 : 이렇게 뺏어부러... 구부러지질 안해... 병신이 돼 부러... (학살 현장에서), 아드님이 설명하는, 정미소 자리... 옛날 함평군 쌀을 여기서 찼어갔어... 여기는 창고 마당... 건물이 지어졌잖아... 지금... 옛날엔 논 자리였는데 건물이 지어졌다...

그리고 저쪽 한뼘도 못되는 저 다리가 긴다리 옛날 이름이 '진다리'였어... 긴다리 장교... 여기가 긴다리예요...

Q: 어디서 왔어요? 군인이

A: 저기 '기밀'이란 곳에서 산모퉁이로 살짝 보이는 찌기... 도보로 하면 한 1km 정도 안될까... 거기서 바로 올라와서 여기서 먼저 사람들을 죽인거여... 다 나오라해갔고 여기서 죽인거여... 여기서 이 길 양쪽에 살던 사람들을... 여기서 사람들을 죽이고 바로 동촌으로 가서 동촌 사람들을 죽인거여... 그리고 남산피로 간 거여... 그때는 군인들이 길로는 안 왔을거여.. 눈에 나락도 다 베고했으께... 그때는 내가 2살이었어... (10:47) 그 후에 6-7살 먹었을 때, 아버지 어머니한테 들었지... 사람도 많이 죽었고... 나이 들어서 힘을 주다보면 힘이 들드라구... 걸음은 내가 별로 안헌디 이쪽이 짧아... 어쩔 때 느끼냐면 저기압일 때 비오고 그러면 쭈시고 (12:06) 나중에 어머니가 자꾸 생각나서 속상해하고 그러시니까 아버지가 집안 동생한테 이 집을 넘기셨어...

● 정응모씨 (현재 66세 / 당시 15세 / 둘째 형 가족을 비롯 7식구를 잃음)

정응모씨 맥 - 저녁

그때 나도 현장에서 죽을 뻔했어. ...그때 구덩이가 있어서 내가 거기 섰는데.. 같은 또래 중에서도 앞차와(앞았어) ...그래서 나더러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노인들 틈에 섰어. 그때 나오라 그래서 살았제 그 참으면 나도 그때 죽었을 거여... 그때 15살 먹은 그 키 더 안켰어. 난 안맞고... 난 총 쏘기 전에 나왔어... 그리고 바로 현장에서 10m나왔을 때 총을 발라버려... 내 위에 바로 형이 7번(?)만에 갔어...

태어나기도 바로 이 옆에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바로 여기가 원토야 고향이지... 벌써 6대째 살고 있습니다.. 6대면 벌써 300년이 넘어... 그때 발통기 뺏겨버렸제... 새끼 뺨 암소 5중대가 끌어다 잡아먹어 버렸제... 그 피해가 컸지... 뺏겨버렸제... 불 질러버렸제...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34세에 혼자 되셔서 우

리 3형제를 보고 사셨는데... 그 가운데 양반(둘째 형님) 죽고 그걸 가슴에 묻고 돌아가셨어 화로 돌아가셨어... 그때 6식구가 있었어.. 형님, 누나들, 나, 형수... 아버지는 나 난 3일만에 돌아가셨어... 내가 원래가 불쌍하게 큰 사람이여... 고생을 면할래도 6.25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라고 있어...

국군이 들어온 때가 28일에 들어왔어 12월...들어와서 그날 죽어버렸어...음력으로 10월 28일이여... 그래서 27일이 제사여. 그전에 전부 여기 살 때는 제사 지낼 때 전부 울음 바다였어.. 어느 집이고 영우(?)없는 사람이 없었어.. 하나.. 둘.. 셋까지 있었어. 우리 집에서 7이 죽었어... 지금도 그 생각하면 가끔씩 악몽을 꾸는디... 일곱이... 전부 내 손으로 다 묻었어... 워떡켜... 늙은 노부모 밖에 없는디... 내 것 갖다 먹으면서 우릴 죽였으니...내 세금 받아 먹으면서 우릴 죽인경계... 그래서 내가 군대를 안간겨... 내 세금을 받아 먹음서 죽인겨... 그건 인간이랄 수 없어... 내 형님, 조카, 그렇게 일곱이 죽었어...

잊어볼만 하면은 또 들썩불고... 내가 살아있을 때 해결하려고 우리가 수십차례 돈써 가면서 (구명)을 했어... 난 악몽이라고 했어... 5.18보다 큰 거여 이 사건이... 524명이라고 하면은 피가 200m이 상 똥물이 흘러 내려갔어... 그때는 우리가 죄가 없으니까... 짚(대목)을 놔뒀었는데 그걸 반란군들이 와서 불을 질러부렸놔봐... 우리는 몰랐제... 다 피곤해서 잔제... 다음날 아침 먹고.. 손가락 놓으께 나오라 그렇게 우린 죄가 없으께 나갔제... 그러니까 싹 모다농고는 저 앞산(남산피)에서 모다 죽 였어... 그래서 나는 지금도 지나다니면서도 그 산을 안쳐다봐... 왜? 징헌제... 내가 7사람을 거기다 묻었어... 늙은 안부모(어머니)하고 둘이... 피 토혈 일이여... 시방은 한 분만 (묘가) 거있어... 거기는 3년동안 별초를 못갔어.. 냄새 때문에... 난 그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와... 지금같으면 15살 먹으면 국민학교 졸업한 정도지만 그때는 내가 학교를 못다녔어... 지금도 난 그 피해가 지금도 있어... 그 일 나고 한달 동안 우리가 피난을 나갔었어. 어디 살 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들어가서 잘 데가 있어야 살거 아니야... 그래서 장년(?)이란데 가서 살다가 이제 마을로 돌아가거라 해서 왔제... 12월 말 정도... 노부모 모시고 어디가서 빌어 먹을 수도 없고 해서 다시 돌아와서 살아야겠다...(어머니가 운명하실 때) 니가 진상이라도 좀 알아봐라... 그래야 한이라도 풀제... 그러면서 돌아가셨어.. 세상에 내가 6.25라고 하면 몸에 서리가 쳐... 느닷없이 아침에... 일찍 밥 먹고 났는데 울타리고 뒤고 막 차면서... 들어왔제... (말은..?) 한마디도 못 붙이제 뼈긋이라도 허면은... 저 우계(위에) 사시는 분이 그때 은행에 다니다가 피난을 왔었는데... 그 양반이 얼굴이 허연제(하야니까) 나오라고 해서 '은행에 다녀옵니다' 허니께.. '이 자식 어서...(?)'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건어버렸어.. 그러니 거서 뭐라고 얘기혀... 줄지에 식구들이 다 갔제.. 다 가고 노인들만 쌀 서되(3되)만 싸갖고 나오라고 해서 그 분들만 살았제... 나하고 어머니하고만 살았고... 내가 씨똥이가 될라고 그랬는가봐... 그렇게 나와서 막는 놈이 '이리 넘어가! 명당 잡았을'

께'해서 거기서 10m도 못넘었을 때 그렇게 썩버린겨... 쳐다보지도 못허지... 그리고 넘어와서 얘기하는게 윤인식씨가 거 와있었는데... '참 억울한 죽음입니다...' 그러더라구... 국회의원 한 사람있어. 우리 산 사람들만 넘겨다놓고 강연하면서 그러더라구...

그때는 사람 왕래가 없었어. 그리곤 5일 후에 와서 (시신을) 수습했제... 그때가 월야 지서주임 이게필씨라고 있어 그 사람이 얘기해서 알았제... (6.25 전쟁 나고 이 마을은 어땠나요?) 조용했어.. 인민군도 못봤제... 여긴 안왔응께... 인민군도 저리로만 지나갔응께... 여기는 산에서 활동한 사람도 없어... 그 전에 여기가 1백70호 됐어... 큰 마을이지... 지금은 터가 다 빈 터여... 전부 비어버렸어... 여기 뒤에 만 해도 7채여. 근데 전부 비어버렸어... 한 집이 가족 4명이 다 죽어버렸어.. 어메, 아들 2, 며느리... 이게 뭐 죄여...

어린 나 혼자 7사람을 다 옮기지도 못해... 그래서 옮기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다 다 물어버렸어. 어머니랑 같이... 그리곤 5중대는 안 오고 8중대가 올라와서 또 재불(다시)질러버렸어... 무섭지... 또 죽일까베... 그러나 죄 없응께... 이 산사람이나 살려야할꺼 아니요... 그 말을 했제... 남은 사람들은 살아야 할 것 아니여... 그래서 지서주임 이게필 씨가 와서 8중대를 말려서 집 몇 채는 건졌어... 그 사람들은 (무고한 거를) 안깨... 참 서러운 세월이었어. 식량이 있어 뭇해...(뭇가 있어)

Q: 억울하단 생각은 안하셨어요?

A: 억울하지만... 먹을 것 하기도 바쁘고... 사건 일어나기 전에 함평 국회의원 김이택씨가 말을 하긴 했는데 다른 사람은 말도 안들어...(???)

Q: 그 후에 혹시 그 일에 대해 증언하신 적은?

A: 그 후에 두 번인가...

Q: 그때 어떠셨어요?

A: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생각하고 싶지도 안혀...

45:03

Q: 바라시는 점?

A: 국회에서 명예회복을 해줘야지... 그거... 우리가 일일이 워터케 허겼어... (42) 피해보상도 해주면 쓰겼어.. 이제 70이 곧 넘은게 언제 같지는 모르지만 피해 본 만치는 나도 요구를 허고싶소... 그러나 그런거보담 명예회복을 해야지... 유족들이 바라는 거는 그거여...

Q: 가해자에 대해서는..

A: 그 분들도 3분인가 살았어... 제주도 분들... 그 분들도 여기 왔다갔어.. 근데 그 분들 무서워서 못온다 그랬는데... 증언만 해달라... 양민이라는 거... 그 분들도 언제 같지 모르는데 벌써 80 줄이 잦어... 나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러... 입에 얹고 싶지도 않아... 그 자식들 죽여 버리고 싶지만 칼로 찔러 죽이고 싶지만 그랄 순 없제... 선의로 해결해야지... 명예 회복이나... 원만하게... 서로가 원한

을 쌓으면 안돼야...

지금 내가 전쟁이 안나고 그렇게 살았다면... 이렇진 안혀... 공부를 못했잖여...

큰 형님은 늙어가지고 돌아가셨고... 여기서 살지 않으셨어...

Q: 소집 영장은?

A: 6.25 그 사건이 지나고 영장이 나왔어. 난 언제 신체검사를 한 지도 몰라... '나 이거 필요없소' 그리고 나는 여길 떠버렸어. 내 것 먹고 우릴 죽인 놈을 내가 뭐허러 가야... 내가 자살해버리면 했지 뭐허러... 피해 다니느라 길바닥(길바닥)에서도 잤다니까... 7년동안을 거지 생활을 했어.. 그때는 결혼을 안했지 돌아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26에 했어(결혼을)

그렇게 피해다니다가 부모님이 있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결혼식하고 그렇게 살았제...

Q: 군대 안 간거 때문에 피해는?

A: 박정희 때 자수해갖고 논산에 가갔고... 내가 그때가 와이로를 썼제... 안 갈려고... 군인이라면 치가 떨린께...

Q: 아드님들은 군대에?

A: 아들이 34살 됐는데 그 놈은 내가 군대를 보냈어... 너는 사회 생활을 해야원께... 독잔데...

● 정기정 (당시 15세. 당시 17세였던 형을 잃음) 학살 전에 모였던 장소

신도로가 찌기서 와서 여기로 가요... 그때는 구장이었어요. 구장이면 점심 먹을 무렵인데... 그때 외창을 헐디다.. 여 도로 옆으로 썩 나오라고 가족별로 만약에 안나오면은 집에서 잡히면 총살혈란다 외우면 다닌 께... 그때가 우리형은 18살 먹고 나는 15살 먹고 여 텃밭에서 마늘을 심고 있어요. 감나무가 있었는데 까마구가 울어... 그래도 우리는 명칭이 같이 죄가 없응께 뭘 어치게 할까 허고 점심을 먹고 오라졌으니까(오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밥을 먹고 현장을 나와갔고 아버지, 어머니, 큰아들, 작은 아들 순서대로 안거 같고 있는 판인디 느닷없이 앞에서 빵! 헌단 말ियो... 그러니까 정복만씨 동생이 면사무소에서 부면장을 했어 공무원 가족이제.. 그 사람이 배를 맞았는데 일어나려다 툭허고 또 툭허고... 가족들끼리 안겼는디 몽둥이로 바락 찍으며 '너 나와! 너 나와!'허면서 영감 할멈 놔두고 심바람(심부름)혈만한 애들 18,17살 먹은 애들을 나오라고 해서 22명을 석줄로 세워서 이리 도로로 끌고 갔어요. 월야쪽으로 그래 갖고 학생은 학생대로 우리 형은 나주 원에 고등학교 다니다가 그 변을 당했는데 학생이 그때 5인가 되고 나머지는 청년이고... 그래 5중대 중대장이 그리로 끌고 갔어요. 가다가 백야 앞에서 '나 아는 사람 손들어!'하니까 우리 종형님이 삼도 초등학교 선생질을 했어요. 그 연락병은 내려가는 판이고 (중)형님은 학교 끝나고 올라오는 판인디 그때 우리 동네에 선생이 둘 있었어요. 그 연락병이랑 그렇게 만나갖고 '뭘

허려 다니는 사람이요?' 궁게 '난 초등학교 선생입니다' 그런 게 '응 그래 그럼 가-' 그런 사실이 있다고 손을 들어갔고 그 연락병(김일호씨) '나 아요.. 삼거리에서 집이가 가라고 하지 않았소' 그래갖고 그 분은 살아왔어.

Q: 그 분 성함이 정일웅씨?

A: 아니. 정기홍... 정일웅씨 면장(정근욱) 그 마을 사람이고... 이렇게 가족별로 안거갔고... 그 전에 썩버린 사람은 우리가 다 보이게크롬 썩버렸어..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정복만씨가 허니까 '너 이새끼도 죽여볼겠다'하니까 그냥 안거부렸제... 안것는디 갈 때 22명을 나오라고 했는디 죽인 사람이 덜 죽어서 일어나니까 다시 3발을 탕탕 썩버렸어... 형이 가니까 나는 울고 그랬제... 나는 15살... 형님은 18살... 해보가서 청년은 청년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다 죽어버렸제... 선달보름에 가서 시체를 찾았는데 청년은 17명이 다 여가(이마가) 다뽀개져 버렸어... 도치(도끼)로 다가 탁!(도끼로 찍는 모습을 흉내내며) 찍어부러 갖고... 5명 학생은 학생대로 무덤을 해냈는데 여그가(입) 다 찢어져 부렸어.. 대창으로 찍어갔고... 여그도(가슴께) 여그도(옆구리) 다 대창으로 찍은 자국이 있고... 그래서 그 당시 찾아갔고 와서 이 근방에 와서 물을 데워서 시체를 씻어갖고 우리 아버지가 이 자식아 눈떠야 허니까 눈을 빨게갖고 눈을 떴어... 아버지가 이 자식아 눈떠야 허며 가슴을 친게 눈을 떴다가 감어.. (눈물 지으시는)

(시체는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청년은 도치(도끼)로 찍었고 학생은 대창으로 이렇게 찢었으께 확인은 되죠... 우리 형은 맨 우게(위에) 있었고... 시체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가서 찾아왔고 나는 여그서 시체를 씻고 그럴 때만 봤어요...

(군인들은 몇 명?) 그 연락병 말고도 많이 있었죠... (어디서 왔나?) 이리로 와서 (손으로 가리키며) 이 리로 올라갔죠

07:10 (그때 주민은 몇 분?) 죄 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 가 불고... 우리는 죄 없는디 뭐 어찌볼라 싶어서 있 다가 그 변을 당했죠....

08:01 외치재 아래로 내려가며 이마를 짚는 정기정씨 뒷모습 풀.

25 외치재 원경 / (09:08) 외치재 원경에서 외치재로 줄인 (지금은 공사로 파헤쳐져 옛 모습 많지 않음!!)

● 정근욱 면장님 / 유족회장 (당시 3세. 큰형님을 잃음)

10:07 돌아가신 분들은 542명(?)인데 유족으로 파악된 분은 267명.. 거의 한 세 대당 한 분 정도... 유족 명예회복을 위해서 활동하면서 유족들을 찾기도 하고... 지금 저희 유족회가 명예회복을 위해서 국회 청원을 했는데... 14대, 15대, 16대 국회에 청원을 했는데 14대와 15대에서는 심의도 안해보고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고, 16대에서는 아직 심의한다거나 심사 보고 한다거나 그런 얘긴 못듣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 지역 이낙연 의원이 행사위 소위에서 심의중이라고... 안되겠어서 헌법재판소에 입법부작위헌법소원을 냈고... 다행히...민변 도움으로 저렴하

게... (12:10) 매년 12월 6일을 기해서 위령제를 지내고... (12:55) 군 단위에서 1억 군비로라도 정부에서 안해주면 군단위에서라도 위령비를 건립하러...

13:24 (유족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 524명.. 돌아가신 분을 자연부락 단위로 조사해보니 300여명... 유족을 못 찾은 경우도 꽤 있다.. 가족을 못 찾은 경우도... 직계가 없으면 방계라도 찾아서 함께 갈 수 있도록...

14:03 (524명이란 숫자의 기준은?) 사건이 일어나고 9-10년이 지난 4대 국회에서 특위조사반이 만들어져서 우리 월야, 해보, 나산에 직접 와서 파악한 숫자... 당시엔 생존해 계셨던 분도 많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로 생각... 당시 국회에서 현장 조사했던 명단이 다 있진 않다... (15:06) 당시 현장 증언을 하셨던 분들 중에 현재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 50여 년이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15:30 저는 당시 제일 큰 형님이 그때 중학교 5학년 때인데 광주 수위(?) 중학교 다니시다가 집에 와 계셨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마 그때 형님이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내 운명도 많이 바뀌지 않았나... 그렇게 돼서 본의 아니게 큰 아들이 돼서... 공무원이 된 후 유족회 일을 보게됨... (당시는 몇 살?) 그때 제가 3살이었어요... (기억나시는 건 없겠네요?) 어려서부터 쪽 들어오는 이야기가 매년 12월 7일에 제사를 지내면서 (음력 10월 27일인데) 어머니 아버지께 얘길 들어서 알고 형님 묘도 남산피 그 자리에 써놔기 때문에... 알고 있다.

17:10 (부모님께 들은 얘기는?) 그때 당시는 참 암담했어요. 사건이 12월 7일, 음력 10월 28일인데.. 그때 7개 동네 사람을 전부 마을 앞에 모아놓고 여러 군데 물고 다니다가 남산피 사당에서 15세 이상 45세 미만은 가리고, 15세 미만은 성냥을 주고 집을 모두 불지르라고 하고, 45세 이상은 집에 가서 가볍게 생활도구가지고 소재지로 피난을 가라 그래놓고, 집이 불탈 때, 15-45세는 여자건 남자건 임산부건 아니건 집에 가서 불끄라고 해놓고 쏘고 살아나니까 하느님이 도와서 살아났다 해서 일어나라 해놓곤 또 쏘고 마지막엔 명당 자손인게 살려주마 하곤 또 일어나니까 쏘고 마지막엔 하나 하나 확인 사살을 전부... 당시 이 지역에 빨갱이가 있나... 여러 가지로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은 없고... 당시 목격자 윤인식 씨 등에게 물어보면 그런 사실을 확인한 것도 없이 무조건 죽였다더라... 그러다 보니까 7개 마을 에 음력 10월 27일이면은 제사가 참 많습니다.. 200여명 300여명 된다는데... 실제로 확인해보면 약 150여명... (19:20) 그리고 제가 5중대 연락병 김일호씨를 만나러 제주도 갔을 때도 제주도에 계신 분 이(말하길) 200여명이 된다... 아무 이유 없이 근거도 없이 집에 있는 사람을 불러다 죽였다는 것이 우리 지역 사람들은 민간인 아닌 양민 학살이다...

20:21 (제주도에 가서 들었던 얘기?) 5중대 연락병 김일호씨는 직접 학살 현장에 있었던 분인데 정일웅씨를 살려주신 분인데.. 그분 얘기가 아무 이유없이 집집마다 털어내라 어떤 군인들은 나오면 죽으니까 나오지마시오 그런 경우도... 학살 현장에서도 일어나면 죽으니까 살아서 증언해 줘야하니까 일어나지마라... 그

렇게 얘기하기도 했다고...

21:02 그리고 윤인식씨라고 우리 지역에서 7,8,9대 국회의원을 하신 양반이 있는데. 당시 선무공작대원이었던 분이.. 이걸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양민 학살이다.. 그분이 도의회 의원이었던 시절 1960년 2월달 도의회 속기록에도 양민학살로 규정돼야 한다는 기록이 있다.. (윤인식씨) 그 분이 이 사실을 증언해주기 위해서 가족 전체 회의를 하셔서 그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어야 한다고... 해서 증언을 해주셨었다... 김일호씨는 살아계시고 윤인식씨는 2년 전에 돌아가셨다.. 저희들이 유족회에서 그런 증거를 확보 안했다면 참 암담한... 작년에 돌아가신 당시 지서주임 이계필씨도 똑같은 증언을 했다..

22:38 당시 학살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 권준옥 대위가 주동... 해보면서 불갑산 토벌작전을 위해 11월 경에 주둔... 주둔하면서 인근 주민들을 학살한 사실은 있을수 없는 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할 공권력이 할 수 없는 일....

23:32 지금 제주도에 가면 당시 군인 7분이 살아계심. 김일호씨가 살아서 증언한 이유는 당시 정일용씨를 두 번이나 살려줬기 때문에 교류를 갖고 있고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증언을 해주지 않았나... 다른 분들은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했지만.. 김일호씨는 작년에 현장까지 직접 와서 증언을 해주셨다.. 그래서 함평 사건은 죽인 사람, 현장에서 살아난 사람, 또 민간인 신분으로 목격한 사람 등, 경찰 책임자 지서장 등이 증언을 해줌으로써 확실하게 학살했다는 사실이 밝혀진거죠...

24:56 처음에 91년도에 유족을 찾을 때 모든 분들이 나중에 불이익을 안 당하냐... 자녀들에게 불이익이 없나를 무척 걱정해서 명단도 안 내놔었는데... 이제는 명예회복을 해야겠구나... 생각..

25:47 유족회가 할 일이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헌법 소원 낸 것을 해결하고... 개별 입법이던 통합 입법이던 통과되는 것... 이렇게 순리대로 하다간 올해도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해결되기를 기다려보겠지만 순리대로 가다보니까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될 전망이 안보일 경우엔 저희 유족들도 이젠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싸움을 해야... 다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유족들이 밖으로 나가서 물리적인 행사를 하기 전에 행정부가 함평 개별 입법이 안될 경우엔 한시법인 거창 특별법을 고쳐서라도 해줘야 하지 않나...

27:40 (가해자를 찾을 때, 증거 자료가 있었나?) 군인들을 찾을 때 저희들은 김일호라는 이름은 알고 있었고 김일호씨를 만나서 그때 당시 군인들을 물어보니까 연계를 하고 모임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연락처를 알아서 집집이 다 전화를 해서 만났습니다. 제주도 가서 보니까 그 분들은 모두 화랑 무공훈장을 받았고 전부 국가유공자로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11사단 공비토벌 관련해서 1계

급 특진과 훈장을 받았다는 건 사실임을 확인...

28:52 (524명 외... 이 지역 희생자는?) 있어요. 저희 지역도 보도연맹원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경찰이 기동작전을 하면서 일개 마을 젊은이를 죽인 경우, 또 군인이 진격하면서 좋아서 만세 부르며 나온 사람을 데려가서 그 자리에서 사살한 경우도... 그런데 국회 기록엔 보도연맹원, 불갑산 토벌 작전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누락돼있습니다. 또 군 작전 기록인 20연대 전투 상보를 보면 불갑산 토벌작전 때 거기서 공비로 사살된 사람이 1003명으로 나옵니다. 그 1003명이란 숫자는 결과적으로 인근 불갑산 이 지역 일대 함평, 영광의 순수한 주민이지 않냐 그 말이요. (30:09) 그 분들에 대한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다만 아까 그 경찰 기동대 사건은 한 장소기 때문에 거기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30:43 국회가 법 만드는데 소홀하다거나 안 만든다거나 올해 회기를 넘기다거나 하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문민정부라 하는 김영삼 정부 때는 거창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해결해줬는데... 엄연히 국회 기록에도 나와있는 사건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법리적인 해석을 떠나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겁니다...

31:55 정남식 할아버지 걸어오는 "여서 이렇게 걸어갔어..."

● 정남식 할아버지(남산외 학살 현장 생존자)

32:24 정남식 & 정용모 / 정용모씨 당시 상황 증언

아침 밥을 먹고 안졌었는데 군인들이 저쪽에서 들어와.. 사전에 포위망을 싹 헨거여.. 그러곤 총 들이대고 무조건 끌어낸거여...그러니까 총을 들이대니까 안나올 수 있어? 우리들은 죄가 없으니까 죽일라디야.. 맨날 일해먹고 사는 사람들 뭐 죄가 있나 말이어..(남식) 한 동리 사람들을 전부 죽여버린거... 반란군들을 죽여야하는데... 농민들을 죽여버린게 농사 짓는 사람들을 죽였으께 군대는 뭐 먹고 사난 말이어... (34:06) 전체 여기 7동네를 싹 죽여버린거... 저그 한 마을 여그 두 마을, 세 마을, 여그네마을... 일곱 마을을 전부... 우리 못갓이라는 마을은 여그 있다가 썩그로 내려갔어... (35:14) 저그서 횃가락(휘파람)을 부니게 거그다 다 모아서 죽여부렸어. (35:57) 저그 마을을 다 불질러 버렸어. 학생들 시켜서... 쌀도 다 불질러 버리고....

36:27 (정남식 할아버지 걸어오시면서) 나도 광주로 피난을 갔었어. 여기서 있다가 그 반란군 놈들에게 죽게 생겼으께... 갔다가 우리 어매가 젊어서 혼자 돼가지고 어매가 안잊히고 동생들도 안잊히고... (37:25) 근데 신이 이렇게 찢어져 버렸어. 고무신을 신었는데... 광주로 못나가겠어서 신을 지었어.. 그래서 밥한술 뜨고 광주로 나갈 판인데... 소리가 나서 작은 방문을 연게 군인들 둘이 서서 '빨리 나오라'고.. '워편 일어요'하니께 빨리 나오라 그래. 뭣도 모르고 나가는데 앞에

가라 그래... 이상스러워 아무리 생각해... 군인들하고 내려오다 보니까 저그 못
 갖 곳곳에 군인들이 짝 퍼졌는디 사람들을 끌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여그(논길
 끝)가 그때 강당이 있었는데 여기다 모여놓고 저녁에 지랄들을 해댄게 월악 산
 그 놈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릴 반란군인 줄 알고 잡아부렀어. 근데 반란군이
 면 내뺄버리지 집에가 있겠어? 가잔게 인자 여그 모여놓고 뭐라고 얘기만 해주
 고 그럴 줄 알고 있는데 남산피 그 산으로 모두 올라간다 그 말이야.

39:27 (정응모) 난 저그서 나왔어. 다 모아다가 다 집결하지도 못해... 한 500명
 은 돼왔어... 다 세우지도 못해.. 저그 논에다가 모았어. 거기다 모아갔고 군인들
 이 줄을 세우더니 총 들고... 저그 남산피로 다 몰고 갔어.. 학생들이고 노인들
 이고 다...

41:25 정남식 할아버지, 정응모씨 남산피로 걸어가는 뒷모습 풀샷에서 남산피
 전경으로 좌편

42:00 정남식 할아버지, 정응모씨 걸어가는 뒷모습 풀 타이트.

23 마을에서 남산피로 트래킹 (- 43:15까지)

●학살 현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정응모씨 / 당시 학살 현장에 선 정남식 할 아버지

44:09 (정남식) 여까지 데리고 와갔고 젊은 사람들은 뽑아서 별도로 여기다 앉
 혀버렸어. 학생들도 별도로..

50 안겼어 안겼는디 눈 감아라, 눈 떠라, 담배 피라.. 첨엔 이렇게 말이 나
 왔어. 군인들이... 다 죽게 생겼는디 죽기가 그렇게 절통하더라고... 부모한테 말도
 못하고 젊은 생을 그렇게 마감한다는 게 기가 막히더라 그 말이야... 가만 생각하
 니까 그 사람 우리 일가 그 사람이 대단해... 군인들 앞에 딱 나가서 주민등록
 내놔시롱 헌께 '야 이 자식이 인자서 손 잡을라고 그래! 뒤로 돌아' 그래. 돌면
 죽으니까 안돌고 있는데 발로 탁 차니까 돌더라고 도니까 권총으로 쏘는데 그
 자리서 '대한민국 만세'를 세 번 부르고 거기서 쓰러졌어. 그래놓고 우리보고 눈
 감아라 담배 피라.. 그러는디 가만 생각해보니까 죽을판이야... 죽을 놈들이 담배
 피고 허졌어... 내가 쥔 앞에가 안겼어. 가만 생각헌께 죽기가 절통헌디...그래서
 똑각 일어섰제... 그러니까 '너 뭐더러 일어서' 그래서 '소메 소메...(소변)' 소메 봐
 야겠다고.. '언능 갔다와' '예!'허곤 쥔 뒤에가 안거부렸어. 소메 볼 정신이 있간디...
 그리곤 학생들은 불 질러러 가버리고... 노인들은 앞에다 앉혀놓고 강연을 했어.
 윤인식이란 사람이.. 그러자 또 하나가 그 앞에 안 근 사람이 뿔각 일어선게 그
 사람도 나메로 소메 볼란다고 그런게 '아 이 자식이 시간 다 돼부렀어'하고 앉혀.
 그 담엔 눈 감으라고 그러더니 총을 이 앞에 차려놓고 썩 부르는데 백발백중이
 제... 나는 앞에서 타닥타닥 쏘니까 나는 옆사람 옆이서 팔을 요렇게 비고(베고)
 누웠어... 그때는 나도 안 맞았어. 근데 내 옆사람이 총을 설 맞았는가 내 배위로

올라와서 훌쩍훌쩍 똥단말여.. 군인들이 그 사람헌 테 마구 썩대니께 나도 그
 사람땀에 훌쩍허니(?) 다 맞았제... 숨통만 붙어있제 허벅다리 떼어가버리. 허벅다
 리 이 안에 있어(총 맞은 부위 손으로 누르며) 똥 테는 세월이 지났을게 없는
 디... 내가 총을 6방을 맞아부렀어... 숨만 똥구녕으로 췌제..(49:40) 있을게 야 느
 그들 산 사람들은 명당 자손이다... 근데 똥허더 일어날 것이야. 가만 있었제... (다
 른 사람들) 일어난게... 또 다 썩부렀어... 그러니까 너그 산 사람들은 다 일어나라
 허니께 또 누가 일어난 모양이야...다 죽었제...(50:48) 큰 애기들 잔잔한 것들은
 놔두고 나처럼 못갖 사는 반반한 큰 애기들 들은 그 사람들이 끌고 갔고...(51:06)
 세상에나 엄한 사람들을 웬간히 죽여야지 그래놓곤 상부에 올라가선 뽕갱이들을
 죽였다고 세상에 뽕갱이들이 낮에 집에가 있겠어. 나는 그거 피하러 광주까지 갔
 다가 잠깐 와서 그 일을 당해부렀는디... 먹고 살게 있어... 그 지랄을 해버렸는디
 다 불질러버리고... 집구석이 있어야 가마니때기 뜯어서... 동생들이 나를 거기다
 눕뜨라고(눅혔더라고).. 저기 아래 집 한 채 조그만 오두막집이 있었어. 거기다
 나를 땀어다(데려다) 눅혔어. 그리곤 밥 한 술 떠서 먹고.. 그러다 못갖에 집
 한 채가 있었어. 거기 작은 방 하나를 얻어선 거기가 나를 데리고 갔어... (53:53)
 그때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있으니까 어떤 군인이 "야! 저기 저 자식 아무래도
 산 것같다. 가봐라!" 하니까 그때 군인들이 군화를 신어서(움직일 때마다) 절경절
 경(소리를) 했어. 그래서 내 쪽을 오더라구. 그래서 난 이제 갔구나 했제... 이뽕
 을 악 물고 똥구녕으로 숨쉬고 숨쉬면 죽는디... 왔는디. 살아있을망정 피땀이 돼
 있으니 살았다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께 '죽었구만!' 하더라고. 그리곤 절경절경
 하고 갔어. 그리곤 땀이 휘파람(휘파람)을 불더니 갔어. 그래서 이젠 살았구나...
 그때는 약도 없어. 막내가 어디가서 다야전 가루를 구해왔고 누가 가르쳐줘서 호
 박을(총상입은) 상처에 붙이고.. 그래서 내가 1년 반만에 일어났어. 못에다 줄 매
 달아갔고 그놈 잡고선 일어났제...

55:58 (정응모) 여기서부터 저기 (가성?)까지 똥물이 다 피였어. 사람 피가 그
 령게 진헌게...

56:42 여기가 구덩이가 있었어. 그게 깊어. 그래서 내가 작아보이니까 이리 빼
 더니.. 저리로 갔어... (57:23 총은 어땀었어요?) 총? 총은 저기...(지금은 돼지축사
 에 가려 안보임) 우리가 막 넘어가서(남산피를) 저 기 있을게 총을 질러버리더
 라구... 거서 윤인식씨란 사람이 쌀 서되하고 이불만 가져오라고 하구선 소재지로
 가라고... 그리곤 이리로 들어오지도 못해. 거기선 동냥해먹고 살았어...

● 정남식 / 학살지(월야, 해보, 나산) 전경

정남식 할아버지 자택 / 방. 오후.

00:42 인제 살 것는디 힘이 없어. 먹을 것이 있어야제... 글고 군인들이 지서

가서 빨치산들을 잡아 죽었다고.. 그랬는가.. 나중에 말이 돌았다고...

01:30 (나중에 알았는데) 그 전에 진다리에서 빨치산이 군인 둘이 죽었다케... 그래서 그 분풀이로 부락부락가서 싹 죽인거여... 진다리 가서.. 우리 부락도... 그러니 그 사람들이 겁나게 잘못된거여... 엠한 사람 죽였을게... 빨갱이들이 집에 가 있겠냐고... 낮엔 어디가 숨어 있다가 밤엔 월악산이라고 그런 산에 올라가서 봉화불 피고... 그 지랄을 했다니까 그 놈들이... 나락도 갔다가 쌀밥 지어먹고... 불갑산이라고 거가서 겁나게 살아부렀다게... 마을 사람들이 피난가야 산다해서 엠한 사람들이 거가서 많이 죽었다고... (03:27) 마을 사람들이 거그 불갑산 가서 많이 죽어부렀어. 애기 배값고 있는 사람도... 애기 업고 있는 사람도... 어매가 살으려니까 애기 버리고 가다 죽어버렸고... 겁나게 죽어버렸제.. 불갑산에서..부락에서 죽어버린 사람말고도...

04:00 (언제?) 그때 불갑산에서 접전했을 때... 있는 사람들은 엠한 사람들만 죽었제... 그 놈들은 벌써 알고 빠져나가버렸제... (49) 힘이 있어야 일을 해먹는다... 힘이 없어서 한 3년 간은 일을 못해부렀어...

05:05 스물다섯인가 결혼을 해가지고 나는 애길 안해줘서 물랐는다... 다쳐서 애를 못났다고 그런 말이 있었나봐... 그래 결혼해가지고 아들 한나(하나) 하고 딸 서이(셋) 허고 그렇게 삼남매(?)를 (나서) 마누라는 막둥이 딸을 못 여우고(여의고·시집 보내지 못하고)

57 (옛날에도 술 많이 드셨어요?) 아니.. 여그 와서 술을 많이 먹었어. 젊을 때는 술 그리 못 먹고... 원키면 먹고... 여그와서 많이 퍼버렸어...

06:45 (사건 당시에 뭐 하셨어요?) 농사 지었어. (학교는?) 학교는 안 다니고 야학 다니고... (광주는?) 피난갔었어. 어머니가 집에 있으면 밤사람들이 와서 데려가 죽여분다고... 광주 가 있다가 (07:43) 나는 식 구들 안 잊혀서... 밤이면 그 놈들이 와서 사람들 괴롭히니까...

08:16 (어머니는?) 33살에 혼자 되야서... (사건 때 어머님과 동생들은?) 그때는 안 돌아가시고 여그 와서 돌아가셨어...

55 (사건 전에 군인들 애긴 들으셨어요?) 밤 손님들이 무서워서 광주로 가 버렸당께... 친척집 가서 요렇게 바로 자지도 못허고...

09:25 (언제 피난 가셨어요?) 그땐 난리 당허기 전에 갔제... (몇월달?) 22살에 난리를 당했을게 22살에 광주로 나갔다고... 몇월인진...

10:17 (전쟁나고 나갔나?) (6.25사변 터졌다는 애긴 광주에서 들었나? 아님 못 갖에서 들었나?)

11:21 내가 그때 한창이라.. 데려가분당께.. 밤 사람들이... 데려가서 봉화불 피우고 그런당께...

50 (밤사람들이 언제부터 그랬나?) 문장에 (군대가) 온 뒤에 바짝 봉화불을 피우고 그랬제... 못갓 뒤에 내동이라고 야트막한 산이 있는디 거기서 봉화불을

피운게 해보 있던 군인들이 다 봤제...

12:46 ***** 내가 한 번을 당했어. 봉화불 피우러 가자고... 안가면 죽는다.. 그래서 갔제... 월악산에 올라가서 봉화불을 피는다... 아래가 다 비여(보여)... 근데 그것들한테 끌려다니면 다 죽어... 언제 죽어도 죽어... 그래서 끌려가는다... 변소 보고 갈게.. 그러곤 빠져버렸어... 그러곤 우리 집도 못가고 녀의 (남의) 헛간에 숨었다가 낮에... 광주로 도망간 것이여... (14:30) 그렇게 5중대 군인들이 너무 잘못된 것이여. 그쯤 알으시오.

14:50 (그 후엔 뭐하셨어요?) 농사 지었어. 내 땅이 아니고 서울 사는 삼양사논이여...

15:36 (해방 됐을 땐?) 못갓에서 살았제... 농사 짓고... ((이후엔 할아버지랑 의사소통이 잘 안됨))

17:00 (사건 전에 마을 사람 중 경찰에 끌려갔다 죽은 분은 없나?) 난 끌려 간적 없어... 마을 사람? 마을 사람 중에도 없어. 낮에는 경찰한테 즐려(시달림 당해)... 밤에는 밤 손님 그 놈들한테 그러고... 그래서 마을 젊은 사람들이 다 나가버렸제...

19:00 (총에 맞으신 곳은?) 여그 ... (종아리 부근을 보여주시지만 지금은 상처가 보이지 않음)

45 허벅지 안쪽 이렇게 총알이 지나갔다... 옷 위로 설명하시는.

20:06 *** 오른손 엄지 손가락이 없는 / 이렇게 가리고 있다가 요렇게 떨어져 나가버렸다... 애기.

21:17 (어떻게 해결되길 바라시나?) 나락 뺏기고... 그것만 보상해주면 쓰것어... (다친 것은?) 지금도 시방 이렇게 시러와... 비가 많이 올라고 그러면 여기 떼어나간 데가(손가락 등) 통증이 와... 비가 올라하면 시린다고... 올 여름엔 비가 많이 왔잖여... 그럼 (아파서) 죽어... (약은?) 약 값은 안준게... 생활이 없어.. 뿔이 없어...그래서 더러 해주면 면에 가서 받고...(영세민이시다/ 자식들도 도움이 없는 듯 / 할아버지 혼자 사심)...도와주는것 갖고는 모지래... 술 한잔 먹고싶으면 어디 가서 한잔 받고...

24:52 (귀는 언제부터?) 말하자면 피가 모지라니께 귀가 이렇게 돼버렸는가... 젊었을 땐 괜찮았는디... (귀는 점점 안좋아지셨나? 아님 사건 후에?) 보청기 약 얘기 하시다가... 돈이 솔찬히 들어간단 얘기 하시다가... 젊었을 땐 괜찮았고 나중에 귀가 어두워졌다고 말씀.

●함평 1-3 이계준(나산면 학살현장) / 김형술(해보 쌍구룡 학살현장)

이계준 (일자: 2001-08-31, 장소: 함평군 나산면 우치리 집 앞 논 학살현장)

00:21 # 논 가운데 비닐하우스 FS pan 이계준 할아버지

A: 글썽요. 저 중간쯤 거기에요, 장소가. 옛날엔 논이 이렇게 있고 경지정리가 안돼었어요, 인자 경지정리가 돼서 그렇지.

00:43 # 논 가운데 비닐하우스 FS pan 이계준 할아버지

A: 여 현장이 여그 저 하우스 바로 중간 지점이 됩니다. 근디 옛날에는 경지정리가 안되고 논이 이런식으로 돼 있었어요. 근디 지금 현재는 경지정리가 돼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01:06 # 논, 비닐하우스 FS pan

01:18 # 설명하시는 이계준 할아버지(담 벼락 배경)

A: 저기 지금 저그 저 뻘다밭 있는데 거 한길이라고 있는데 거리해서 저리 잔등이 있어요. 그러며는 옛날엔 원님 다니는 길입니다. 그쪽이. 그래서 그 길이 셋길이지만 조금 컸어요. 그러믄 해보가 5중대가 주둔해 있었는데 모평리란 동네 고리 해서 바로 이 너머가 계동 있는데 계동마을 고리 해서 오면서 거기서 집 몇 채 불지르고 사람 한 칠팔명 사살하고 요리 길 따라서 바로 와가지고 이 짝 곳만 전부 모으라 해갖고 요리 사람을 모으라 해서 21명 사살을 했고 불도 요쪽동만 전부 지르고 저쪽 동은 가질 안했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고 같은 동네서도, 그렇게 됐어요.

02:17 # 집 담벼락 pan 이계준 할아버지 bs

A: 전부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 지은 집입니다. 사변후로. 하나도 그 때 집이 없어요. 그러믄 우리도 거시기 짓기 전에 대석글로 좀 거시기하고 한디 다행히 반소된 놈 조금 살아서 고쳐 살다가 썰어버리고 내가 졌는데 샘이 가참기 때문에 그도 빨리 꺼서 반소가 돼서 고쳐서 살다가 지금 다시 지은 거여.

02:59 A: 그 사람들은 오며는 전부 동네사람들을 모으게 해요. 인자 살라몬 나 오라든가 그런 감언이설을 해서 모으게 하고 사람이 나옴과 동시에 집에다 불질러 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전부 요리 나오라 해갖고 모으라고 해놓고 싹 불 지르고 집에다 (어디서요?) 아 여 집집마다 땡기면서.

03:25 # 할아버지 손짓 따라 논으로 pan 다시 할아버지로 pan

A: 그렇게 하고 논이 저기 중간에 가 있는데 요렇게 높들 안하고 조금 어둑이 진 데 여파가 기관총을 세워놓고 기관총을 난사해 버렸죠.

03:40 A: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서 살아서 나온 사람들이 생존해 있다가 죽었고 한 분은 야든 아홉 살 자셨는데 작년 그러께? 돌아가셨는데 하도 속이 상하니까 내가 그분한테 가서 물어본 적도 없고 그때 당시. 그러다가 어떤 기자가 와 갖고 그분한테 '옷을 한 번 벗어보시요' 그러더마. 그래서 보니까 여가 끊어졌는디 간지히 붙어서 덜렁덜렁하더라고 이 어깨가. 그리고 여 여기도 맞아서 거시기 하고서 그 분의 상처를 한동네 살면서도 전혀 몰랐는디 처음 봤고 그랬어요. 그랬는디 덜렁덜렁대요. 밥도 못해자실 정도로 되고 그렇게 고생하고 사시

다가 야든 아홉 자셔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 분은.

04:40 A: 그렇게 거시기 산 사람까지 한다 그러믄 에... 스물 한 스물오륙명 모았잖제. 근디 사살된 거시기 사람은 21명

05:05 A: 그런게 마을에 어떤 분들이 아니라 또 다시 반복되는 얘긴데 전부 얘기가 예, 다 했어요.

05:22 # 왼쪽에 논 걸고 할아버지 모습 (논으로 pan 갔다가 돌아오고)

A: 인자 거시기 ** 안 있소? 거기 있는데가 밭이 모다 있어요. 그러믄 우리 큰 집 밭이고 그런데 그 때 당시 멀리 갈수도 없고 그런게 홀이불로 거시기 해서 밭에다 가매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 후에 이장을 인자 현재장소로 이장을 했지요. 지금은 인제 논 차버리고 그랫응게 한 십 명 가량은 그 근방서 몇 달 있었어요. 념의 밭이지만 안 옮겨가니까 그러다가 인제 전부 없어졌는데

06:09 A: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여기에 현장에 안있었고 학교 다니는라고 함평에 가 있었고 인자 그 전쟁기별로 듣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단 것만 알고 여기서 얘기지만은 오지도 못 허고 삼개월 후에 이장할 때사 왔어요. 아까 그 얘기 다 했어요.

06:40 # 할아버지 뒷모습 걸고 논, 비닐하우스 fs

A: 장소가. 경지정리가 되어 버려갖고 이것이. 나중에 표석을 세운다던가 뭐 한다 그러믄 고것은 세울 수가 있는데 그것이 나하고 유족되는 사람이 별로 있으니까 이 논을.

07:12 # 논 배경, 설명하는 할아버지

A: 이로도 가고 못 간 사람들만 거기다 임시로 가매장을 밭에다 했죠.

07:26 # 할아버지 걸고 할아버지가 가리키는 길

Q: 군인들 어디로 왔나?

A: 그런게 저쪽에서 넘어 이렇게 왔다니께요. (집 뒤로요?) 길 있어 저기 저 저 안 있소. 그리해서 쪽 넘어가는 길이 있어. 그 저 원님들 넘어가는 길이라고 저게 한길인디 옛날 그 길로 넘어왔단 말이야.

07:46 # 할아버지 걷는 뒷모습

A: 소로길로 해서 원님들 길이라고 해서 명색이 옛날에는 길이라 이거여.

07:57 # 걷는 발걸음, b/s

08:03 # 노병량 할아버지와 걸으며

A: 찌그 저 방앗간 있는디 저기가 진술인디 아 8군단 있다 간 디고 내가 애렸어도 어유 촌 술장사하는디 각시놓고 술장사를 여럿이 했네. 술직히 (웃음 소리) 내가 어려서 봤는데 요리 가다가 혼나버렸어, 아주

08:38 # 할아버지 걸으시며 말씀하시는, 발걸음 멈추며

Q. 어머님과 자주 걷던 길?

A. 이 길은 그 때는 길이 없었어, 여그는. 요거는 지금 내가 우리 논인데

여가 지금 이렇게 도로가 되었는데 옛날에는 남의 논인디 아 이것이 거시기 저 바로 집 뒤에 지사 자리가 곤란하게 됐어. 길이 있어 갖고 그런 게 그 길을 잡아 놓고 이 길을 내가 내줬제. 그랬는디 경제적으로 되면서 길이 더 넓혀지고. 그래서 길이 아니고 논이었제, 옛날에. 그 집 뒤로. 그런게 인자 요걸 거시기 내가 남의 집 논허고 교체했어 이 논을. 그래갖고 우리 논으로 만들었지, 이걸 넓힐라고.

09:38 # 걷는 할아버지 뒷모습

10:05 # 길 가리키면서 설명... 길, 할아버지

A. 그런 게 이 길이 요길이 이렇게 해서 쪽 요기로 대나무가 거시기 해서 그렇지 저기 저 소나무 있죠잉 고리 넘어가는 길인데 쪽. 이 길이 옛날에 원님 댁기던 길이야. 요길이. 그런 게 원님들 옛날에 가마도 있고 한 게 조금 넓었던 애기지 인자 그때 당시. 그래서 요리 댁기고 한 게 큰 길이지 옛날 길로 해서 원님 댁기는 길이니까 옛날 길로. 고런 게 해보서 인자 그 모퉁으로 해갖고 요렇게 하면 가잡제. 거리가. 그런게 그 사람들이 모퉁으로 해서 요리 오면서 요놈의 바로 저 저그 저 뵈는 소나무 소나무 밑이 계동이란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 7-8명 죽이고 불을 몇 채 질러버리고 그러고 요리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5중대를 만나면 살 수가 없다. 도저히. 그런 소문이 났고, 현디. 여그 오면서 불을 지르고 총을 쏘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온다, 허니까 도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도망을 했으니까 피해가 적었다.

11:31 아 그러고 그 외 피해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거시기 십오세 미만인 6명 있고 또 오십세 이상 노인이 8명에 또 그 외에 애기들 들고 있는 여자들, 도망할 수 여자들, 남자는 불구자 이십팔세인데 그 때 당시 이 그것이 다리를 저니까 도망을 못해서 남자는 그 사람 하나만 죽었고 노인 애들 애 딸린 여자 그것만 죽었지 남은 사람은 죽덜 안했어. 그런게 도망을 안 하른 죽으니까 도망을 해서 피해가 적었다.

12:32 A. 지금 저그가 하나 하고 없어졌구나 없고, 이런 상태로 전부 다 있었죠, 집이 요런 거시기 집이 싹 있었제. 그 위치에.

12:52 A. 그런 게 오거 요리 해서 조금 또口이 틀린데 저까지 해서 한 동네로 취급을 했는데 한 4-50호 되제

13:08 A. 21명

13:18 A. 그러니까 요리 넘어와서 오면서 집집마다 가서 동네 앞으로 나온나 사람을. 그렇게 허고 불을 질러서 싹 다 불타지고 다시 지은 집이여, 여기 또마. 그런게 나오라 해갖고 아까 그 장소로 사람은 집합시키고

13:45 A. 요리 넘어와서 집집마다 가서 전부 동네 앞으로 사람은 나오라 허고 도망간 사람은 살라른 오라 허고 막 소리를 치고 총을 쏘고 해도 도망을 가서 살았고 인제 집에 사람은 내보내고 집에다 전부 불을 지르고 그렇게 해서 집이 전부 전소가 되어 버렸고. 사람은 인제 저리 모아 있어 갖고 아까 말한 바와 같

이 거기서 기관총을 좀 이렇게 어둑진 곳에다 차려놓고 기관총을 난사해버렸죠.

14:29 # 논쪽으로 되돌아걸는 follow

A: 아 그 거시기 동네끼리 여기 바로 우리 집 뒤로 응...응 요건 논이었다 그 말이야. 그 때는

14:45 # 걸어오시는 정면 b/s

A. 앞에 저 거시기 산 안 있소. 그 저쪽 널뿌리에 가서

14:56 Q. 어머니한테 무슨 말씀?

A. 말씀 드려야 뭐 소용 있어요. 별 애길 해도 인자 소용 없지.

15:06 Q. 어머님 마지막으로 본 게 시신?

A. 그그것이 돌아가신 후 3개월 후 이장할 때사 와서야 봤다니까.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세상을 살았지. 여기서 일을 못허고 이장할 때사 봤으니까. 아들 한나고 그런데.

15:29 Q. 어머님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A. 뭐 뭐라고 허겠소.

15:40 Q. 언제 어머님이 가장 생각나나?

A. 아니 그 아까 일똥 얘기했지만은 삼남매에 내가 독자에다가 막둥이고 한데 참 나 옛날엔 인자 남자선호 사상도 있었고 그런디. 참 아들이 없다가 나를 낳아서 그렇게 **셨고 현디 나도 못 여물고 그렇게 돌아가셨으니 제대로 눈을 감고 돌아가셨었어. 그러니까 참 그런 일 생각하면 또 저를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사랑하고 키우시다 그러다 돌아가셨는디 제가 장성해갖고 조금이라도 어머니한테 보답을 해 드렸어야 할 낀데 그걸 못했으니까 한이지.

16:31 Q: 기억에 남는 어머니 모습?

A: 나 어려서 나 하나라 해서 그냥 나밖에 모르시고 여러가지로 모다 잘 해주신 그런 것만 생각나요.

16:56 # 손으로 가리키는 pan 논

A. 학살 현장이요? 여기 하우스 중간입니다. 이렇게론 한 중간인데 하우스 세 동에서도 가운데 있는 데가 됩니다, 장소가.

17:23 # 논 배경 설명하는 할아버지 b/s

Q. 마을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

A. 그 때 함평 가 있었는데 오전에 여기서 사고가 났는디 오후 늦게사 어떻게 저녁 무렵에서 돌아가셨다고만 들었지만은 그 때 당시 이 동산리 통행금지 가 되갖고 오도가도 못허고 보지도 못허고 그냥 울고만 있었지.

17:48 A. 아 그거야 거시기 아무 죄도 없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니까 그 이상 뭐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 분이 인자 가서 군인이라도 된다 못해서 전투라도 나가겠다고 몰라도 집에 가만있었고. 나이자신 분 또 노인이시고 그런디 그런 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니 기가 맥히죠.

18:17 # 총 있던 자리 가리키며

Q. 군인들은 어디에? 총은 어디에?

A. 총은 여기 지금은 좀 높는데 여그보다 더 낮았고 논둑이 거기다 걸쳐 놓고 저쪽을 향해서 사람 모은 쪽을 향해서 발사를 했다고 들었어요.

18:50 # 설명하는 b/s

Q. 온가족이 죽은 집은?

A. 글로 해서 말이여? 글로 해서

19:00 A. 그런게 전체가 전 가족이 다 죽은 집은 없어요.

19:28 A. 샐는데 그냥 거시기 했대. 그런게 인자 거시기 맞고 쓰러져 부렸다는 가 또 맞도 안 했어도 쓰러져서 인제 그랬다든가 현 사람이 안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 산 사람이 생기지 그래 안하면 안되제. 아 그리고 또 거시기 확인까지 해서 사살한 데가 있으니까, 보며는. 근데 그 총 맞은 사람 그냥 밑으로나 피범벅 해서 들어가버리고 아니 또 총을 안땀었던 하고 ** 상태에서 들어가버리제. 그랬으니까 이제 확인할 때 죽은 양으로 비어버리면 거기 살아나온 사람이 있제. 그래서 서너명이 살아났는데 여기까지 그런데 결국엔 싹 죽고 인제 지금 하나도 없는데, 그래됐어요.

20:21 Q. 군인들은 어디로?

A. 그렇게 하고 저 건너 마을로 건너갔다고 말을 들었어요.

20:33 Q. 군인들이 몇 명이나 왔다고 들었나?

A. 그 몇 명이 왔다 그거까지는 정확히 모르고 5중대원들이 전부 왔다 그렇게만 알고 있죠.

20:54 # 길에서 논으로 pan

21:02 # 비닐하우스 세 동에서 하나로 ZI

21:18 # 다시 한 번 비닐하우스 중간부분으로 ZI

21:36 # 마을의 집에서 논, 비닐하우스로 pan

21:50 # 논 뒤로 보이고, 할아버지 bs

A. 사실상 거시기 나베기에 모르시고 살으시다 그렇게 돌아가시니 눈을 감고 돌아가셨겠어. 어째졌어. 그런 게 내가 (노병량: 그 때 쉰 아홉이든 그 때는 그 나이까지 산다고 하는 것도) 내가 장성해갖고 결혼이라도 해서 밥 한 끼라도 제대로 한 번 대접이라도 했으면 내가 원이 없죠, 근디 그걸 못했으니까 항시 한 이지 나는. 지금까지도 내가 눈을 감기 전까지 우리 어머니 잊을 수 없지, 나는. 그러게 돼 있어요.

● 김형술(증언 일자 : 2001-08-31, 장소: 쌍구룡 현장 / 중앙초등학교 뚝방자리)

A. 불질러 버리고 불 질르면서 막 몰아내고 사람을, 살라든 나가라

Q. 처음 군대가 어디서 들어왔죠?

A. 군대가 저 그 때는 해보 가서 인자 문장서 주둔해갖고 있지. 그 저 불갑산 작전 특별작전하니까. 거그서 인자 5중대가 인자 여그는 5중대가 왔다가 8중대가 왔다가 그래요. 그 때. 그런 게 5중대가 여그 와 가지고 8중대는 오든 일반인들 좋다고 그래. 군인들 좋다고. 근디 5중대 오며는 나쁜 놈들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동네 와가지고 한 것은 불 지르면서 그 때 학도대도 있고 또 거시기한 거 빛이나 학도대 말고 또 인제 지방에서 인제 저 거시기한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그래가지고 막 몰아내면서 집에다 불 지르면서 몰아내면서 하니까 다 살라니까 올라오지, 요리. 그래 올라오니까 산그로 올라갈라 했는디 여기 군대 주둔하고 있으니까 못 가게 탁 막고 다 한쪽으로 앉으라 이거여.

그래서 인제 다 앉았지.

Q. 어디서요?

A. 여기 집이 여기 저 나 이제 금방 내려온 길. 거기 집이 있어, 아니 집이 없었어, 그전에는. 요런데여. 그래 그래갖고 거기다 딱 앉혀놓고 도로 저쪽에다 앉혀놓고 있는디 나중에 누가 혼자 말을 하기를 '군인가족은 어쩔 것이냐' 금계 죽을 줄 알고. 그러니까 그러든 군인 가족 경찰 가족만 나오라 이거여. 그렇게 군인가족 아닌 사람도 나오고 한 사람은 나왔는데 아닌 사람도 나왔어. 그런데 왜냐하면 그 때는 막 포위 들어와서 포위하고 하니까. 그래서 인제 나도 여그 양겼다가 나도 우리 사촌 매형이 그 때 사촌누님이 결혼식을 안했는데 군대를 갔어. 그래 군인가족으로 나왔지, 우리 사촌 누님하고. 그런데 옆에서도 한 대여섯명이 나왔어 군인 가족이 아닌 사람들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다 바로 찌거 되고 바로 가면 요기 옆에 조금만한 산이 있어. 아까 나 거시기 했다는데. 거서 기관총으로 이렇게 해버리니 뭐 다 어버리지. 그런게 이정남이라고 안 있더라고. 네식구인디 한식구만 살았어 혼자. 거기서 그렇게 해부렸어. 기관총으로 했는디 전부 씨러지니까 **에 넘어져버렸죠. 그런 게 거그는 총 하나도 안맞고 살았어. 그 사람 하나 살고 다 죽어버렸어. 그 집 식구가 네 식구인디 세 식구 인제 다 죽었어. 그래갖고 여자 그래갖고 째어다 내버릴라고 인제 샘이 여가 있어 먹는 샘이 아니라 방제때문에 저수 물 저수할라고. (노병량: 물 품기 위해서) 물 품기 위해서 인제 큰 저수지가 있어. 그런 게 전부 거기다 쟁여버린다 이거여. 그러자 내가 여가 있으니까 나는 저쪽 산으로 갔어 인자. 군인 가족 있는 사람은 요쪽 군인들 있는 산 저쪽 한쪽으로 오라 이거여. 딱 해는 게 아 거기 있는 사람은 거 있으니까 그냥 해버렸어. 아 그렇게 인자 올라오는 사람도 다 죽어버렸어. 여 올라오는 사람도 우리 아버지는 여그 올라오시다가 집에 새끼들 다 죽인다고 올라오시다

가 여 집 가까이에서 이렇게 해버렸지 우리 종조 할머니는 총을 시 군데 맞았어. 근데 살아오시더라고. 정통 안맞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거 있다가 보고는 어 우리 할머니 죽는다고 막 야단났제 그렇게 군인들이 와 가지고 거시기해가지고 모시고 가가지고 그 양반 다 치료해줬어. 총을 시 군데 맞았어. 여그 맞고 여그 맞고 등도 지내가 버리고 그래도 용케 정통 안맞으니까 살더라.

A. 아니 여그 나온 군데 바로 여기 산 있어요. 쪼그만 산 있네. 거기다 기관총 차려놓고 군인들 거 있었어. 그러니까 우린 알고 거기다 기관총 차려놓고 군인들 있으니까 딱 앉혀논게 다 죽을 줄 알았지. 그래 군인 가족은 어쩔 것이냐. 그러니까 군인가족은 나오라 이것이야. 장소는 바로 여긴데, 집 밑에

A. 마을은 저 마을이여. 저. 저 상수 크게 있는 마을. 그 마을 집 아래 채 한 가 구 남고는. 그 집도 불질렀는데 용케 안 타가지고 그 집 한 가구만 남고는 한 칠 십여구가 싹 타버렸지. 거기가 지금 저 상수가 있는 마을이 우리 마을이예요, 그 마을 요 아래 바로, 응, 저 아래.

Q. 어디로 끌고 갔어요.

A. 요리 다 왔죠. 그래가지고 요리 와 가지고 저기 못 가게 딱 막아노니까.

A. 여기지 여기 사람 모타는 데가. 여 거세기 한 데가 사람 모타는 데여.

A. 여기다 사람 모아놓고 (노병량: 그 때는 여기가 움팡했어요. 여기가 어찌고 하니 터진 목이라고 해가지고 움팡했어요. 그러니 *** 부대가 사람을 모아는 것이죠.)

(학살 현장에서)

A. 그런 게 그 전 길이 어떻게 됐고 하니 여길로 해가지고 길이 요리 냈어 요리. 요 길이 요리.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즉 말하자면 요만한 골목을 여기 높으니 산이 그러니까 요만한 골목을 여 셋길이지. 셋길로 다니라고 이렇게 해 냈었어. 요 길이 근디 인자 꼬부라니지까 지금은 뻥뻥이 했지. 그러니 이 산에다 저 총을 기관총을 차려놨어요, 요기 산에다. 여기. 그래놓고 여기서 가까우니까 해버렸지 그냥.

Q. 여기 산이 있었다구요?

A. 요거 산이지, 여가, 저거이. 소나무 있는 거 이 산이여. 지금도 이 소나무 베어버린 산이지. (노병량: 터진 목이라고 여가 움팡했었어) 여가 움팡 했을게 다 앉혀놓고. 그러니까 여 앉혀서 우리가 그랬지 군인가족은 어쩔 것이냐 (노병량: 집 두 채가 있었어요 여기가) 응 있었어, 집 두 채가. 요 밑에 주막집이

Q. 저 아래쪽 살던 마을 사람들은 여기로?

A. 하른 전부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니 내러가면 죽으니까 전부 올라가거라 그래 안하른 다 죽으니까. 그런 게 내가 그 때 한 열여섯 살이나 먹었을게. 뭐, 살랑게. 다 요리 오지. 물론 요리 안 오고 저리 가버렸으면 저 마을로 가버렸으면

되지. 멋도 모르고 따라 올라왔지. 그런 게 노인들이고 모고 그양 거시기 한 양 반들 다 오고 여서 한 백여명 죽었어요.

A. 그러니까 저 저 산이 불갑산인데 저 산 밑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마을까지 소개나왔어. 그 때. 소개, 소개해가지고 피난나왔지. 근데 그 사람들 전부 인제 우리 마을에 와서 녀의 집에서 셋방살이를 했지. 지금은 셋방이지마는 뭐 그때는 돈주고 살았간디 빈 방있으면 거서 살고 어쩔 수 없이 그랬지. (노병량: 방이 없으면 헛간에 산 사람도 있고) 하모, 그 사람들도 다 죽어버렸어. 여기 와서.

A. 응, 여기다 여 산 여기 산. 그러지 요 사람들 딱 모타놓고 여여 하우스 처진 거기에 그 전에는 여 하우스 없었어.

A. 난 여가 있었지, 여가 바로. 아 군인가족은 나오라니까 나왔지. 그러니까 그 옆에서 눈치 빠른 사람들은 군인 가족 아니라도 나온 사람은 살고. 그래 여서 산 사람이 한 일곱 명 돼요. 군인가족이라고 나온 사람이.

A. 그리고 인자 우리는 요쪽에 있을게 여가 그때는 흰한 게 기관총으로 싹해버린 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종조할머니하고 우리 아버지는 올라오시더라고. 아 근데 뭐 우리 아버지는 그 돌아가셔버리고 우리 할머니는 그래도 막 걸어 올라오더라고 총을 맞았어도. 그래가지고 인제 군인들이 여기 있을게. 우리 할머니 죽는다고 막 소리를 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게 하더라고. 총을 안쏘더라고. 그래갖고 와서 보니까 어깨 여그 맞고 여그 해부리고 등그로 지내가 버리고 아 그랬는데 그래도 지가 치료는 해주더라고. 군인가족이라 한 게. 그래서 문장서 그 군인들이 치료해서 그 양반이 나섰어. 그래갖고 구십살 자시고 돌아가셨어. 그 양반

노병량: 여러가지로 그 마을 사람들 나오라고 살려주마고 했고 문장쪽으로 가면 산다. 군인들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도해놓고 다 죽여버린 거지. 그래서 여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수한 양민이라 이것이야. 실제로 죄지었으면 다 도망가버리지 누가 여기 있겠느냐 이 말이야.

A. 아, 요리 안 오지. 아 요쪽 마을로 가버리지 오나. 근데 도로 저쪽 마을은 손을 안땀어. 요쪽만 저 마을만 갖다 한 거여. 요 마을하고 그 다음날 와서 요 마을, 상곡리라고 저 마을하고.

Q. 일곱명 빠져 나와서 어디에?

A. 나와가지고 요리 갔지. 인제 여가 그때 도로가 요기서 요렇게 해가지고 도로가 그렇게 냈어. 뺑 돌아서. 요렇게. 근디 여그는 산을 갖다 이거 좀 높은디 셋길인디 질러 다니다고 셋길인디 지금 여기다 여가 산이 있지 크지. 그때는 지금 밑에서 밭이고 해부린 게 그런데 그런데 요쪽으로 군인들 있는 쪽으로는 모았지 일곱명. 그래 그 사람들 살고.

Q. 총쏘는 거 봤나?

A. 봤지 이쪽에 서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죽은지 알고 우리 종조 할머니 총 맞아 갖고 온 놈. 우리가 우리 할머니 죽는다고 막 악쓴 게 이 사람들 딱 중단을 하더라고, 그 때.

Q. 몇 명이나 됐나?

A. 아니 그러니까 인제 그 때 그러니까 우리가 헐 때는 약 한 칠팔십명 될 거여, 죽은 수가.

A: 그래가지고 뭐고 허니 청방 그 때 청방. 청방이라 그랬어, 청방. 학생들 그 중 학생들은 중학생 고등학생은 학도대고 고등학생이지 그 때 학도대고. 청방.

웅 그 때 청방이라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떠메다 샘에다 그 둠병에다 싹 쟁여버렸어. 갖다가. 그랬갖고 아까 그 내가 이정남이라고 그 분은 네 식군디 정남이 하나만 살았는디, 그 사람은 떠메서 내버릴라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청방이 하나 있었어. 눈을 뜨고는 오빠 오빠 나 살려주라고 그래. 그러니까 너 눈 딱 감고 가만 있어. 거 갖다 거다 떠메다 내버렸어, 송장 속에다가. 조용하든 한참 조용하면 나가거래이 꼼짝도 말고. 그랬갖고선 살았어.

Q. 일렬로 서 있다가 쓰러졌나?

A. 전부 여 모타 놓고 일어서라했지. 맨 처음에 와서 앉혀 놓고 일어서라고. 일어서니깐 인제 일어서라니까 죽일 것만 같으니까 누가 노인이 있다가 군인가족은 어쩔것이나 그러니까 군인 가족 여 나오라고. 그래 나왔지. 그렇게 군인가족 아닌 사람도 나온 사람은 살았는디 그 인제 나도 군인가족이니까 우리 사촌 매 형이 군인이 그 때 군대가 죽어버렸는디 가서 나하고 우리 사촌 누님하고 군인 가족으로 나왔지. 옆에 사람도 나오더라고 몇이는 한 일곱이 따라서. 그래 그 사람들은 살았지. 저쪽에다가 다 모타 놓고 한쪽에다가 앉으라고 그러고, 아 우리 보는데다가 이래버렸어, 기관총으로

A. 우리 아버님은 여그 올라오시다가 기관총으로 해부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돌아가셔부렀어. 우리 종조할머니는 총 세 군데 맞고 살아오셨어. 정통 안 맞을 게 살아오시더마. 그 후로 보니까 올라가게 우리 할머니 죽는다고 야단 냈지 그러니까 군인들이 총을 안쏘더라고 그 때.

Q. 전후로 군인들은 뭐라 말하던가?

A. 아 뭐 그렇게 해부리고는 뭐 얘기도 없고 그러고 인제 군인 가족은 어디로 가냐하면 다 올라가라 이거야 우으로. 그러든 즈그 이제 이 위계 가서 군인가족이 주둔하고 있거든 그 사람들이 군인들이. 그렇게 여기서 한 3키로인데 가면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거그서는 각자 해산하라 이거여. 이 사람들 죽여놓고는 우리보다 아무데나 가라 이거예요, 이자.

그래 우리는 할 수 없이 문장까지 갔지 문장이라고 주둔하고 있는디 우리 할무니가 다쳤으니까 따라 땡겨야지 인자 즈그가 다 싹고 가서 거시기 해서 치료는

다 해주더라고 다 낫도록.

Q. 아버님 시신은?

A. 아버님 시신은 이제 그 이튿날 왔지. 뭐. 그 다음날. 다 갖다 넣어버려요. 거기다 그 둠병에다가 다 넣어버리니까. 그래 그 이튿날 와 갖고 전부 시체 모두 찾아다가 염을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그냥 막 갖다 막 포개 그냥 전부 갖다 쟁여놔서, 샘 속에다.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인제 그 다음날 와 가지고 초상쳤지.

A. 그 모 가져가졌어, 여 교회 있는데가 그 저 공동산 여 교회가 없었어. 여가. 다 갖다 이 근방에다 묘를 갖다 모시고 다 그랬지, 모.

Q. 몇 시쯤 들어서?

A. 그 때 한 오후 한, 한 시경이나 두 시경 되었을까, 그 때.

Q. 군인들이 왔을 때?

A. 아, 마을에다 여기서 한 1키로 된다고 우리 마을이. 그러니까 불을 질르면서 살라면 나가거라 이거여, 거기 있지 말고. 그 위로 올라가거라.

그러니까 전부 그냥 그 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만 죽어버렸지, 인자.

인제 노인들 전부 불질러 버린 게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집에다 불 질러버리니까 뭐 내놓고 하다못해 뭐 이불이라도 먹을 거라도 내놓나라고 안 나오시고. 안 나오신 분들이 몇이 도냐, 노인들은. 그 저 집 불질러 버리니까. 아 그래서 그렇게 하고 왔는데, 우리는 인제 어린게 사랑게 나가야지 나와야지. 그러니까 오다가 저쪽 마을로 갈라그러든 못 가게 해요. 위로 올라가라고. 못 가게 해 저쪽 마을로. 그래 여기서 도로 저쪽 마을은 하나 손 안됐어. 그 사람들이. 요쪽마을만 손대고. 그렇지. 불 다 불 질러 버리고. 집 한 칠십여 가구가 싹 타버렸어요. 그 때

Q. 제일 피해 많이 입은 집?

A. 궁게 피해라는 것이 없지 그 때는. 전부 다 같지. 다 같이 입었지. 근데 우리 A. 낭게 인제 저 밑에 사람 안 올라오니까. 전부 청방들이 그 샘 속에다 넣는 거여, 둠병 속에다가 인제 이금남이도 여기 와서 같이 쓰러졌는디 인제 청방이란 양반이 그 양반이 지금 판기썬디 그 양반 지금 돌아가셨는디 서울서

A: 그 양반이 떠메서 내버릴라고 함께 눈을 감고 눈을 뜨고 있드라 해. 그래 보고는 오빠 나 좀 살려주시요, 오빠 나 살려.. 너 암말도 말고 너 죽을테니 가만 있어. 그래 갖고 아무데나 저기서 사람 소리도 안나고 인적도 없으면 너 가만히 여기서 나가. 그래가지고 샘에다 넣어버린 거여. 같이. 그 송장 속에서 살아나왔제, 이금남이는. 그렇게 그래도 그 양반은 나이가 먹었는가 어렸는가 그 인정을 보이더라고 그 청방 그 양반을. 그 양반 아니었으면 죽었지 그 사람도 이금남씨도. 너 죽을게 가만 있어라 그렇게 가든 너 아무 소리도 안나고 사람 소리도 안나며는 너 여기서 나가거라 그래 안하면 너 죽을게. 그래 그 사람 만나서 살아나

왔어, 여기서.

Q. 당시 여기에 초등학교가 있었나?

A. 없었죠. 여그 한 지가 한. 여루 들어갈까. 요루 들어가지.

Q. 여기가 논이었나요?

A. 예 논이죠. 논인디 전부 메우게 됐지. 학교 지슬라고.

A. 요기쯤 될 거여. 둠병이 요기쯤 돼요. 이 근방. 이 근방이요. 그때 둠병이 그 때 둠병이 여기 요만치 있어. 근데 여따 갖다 다 내버려버렸지 죽은 사람 싹.

Q. 죽은 사람은 모두?

A. 그러니까 여따 넣은 수가 한 칠십명쯤 되네.

Q. 둠병 크기가 어느 정도?

A. 둠병 크기가 한 열댓평 되제. 열댓평 돼. 한 이십평 그 정도 될 거여 한 이십 평?

Q. 거기서 아버님 시신을 찾았나?

A. 거서 찾았는디 념의 시신 다 치면서 찾았어. 요리 저리. 그러지. 그래. 피는 거의 다 흘러버리더마 총 맞아버리니까 거의. 그러고 와서 본께 그렇게 여서 살 아나간 사람도 전부 피 묻어갖고 왔지 모다 옷에. 그러니까 금남이도 그 때 식구가 너이 식군디 저그 할아버지 어매 어매가 홀로 계서. 저그 할아버지도 홀로 계시고. 저그 남동생 그러고 그 금남이 근데 네 식구가 나와 가지구 세 식구가 죽어버리고 혼자만 살아남았제. 인제 그렇게 문닫아버렸제 딸만 있제. 지금 아들이 있어야 문 안, 지금은 딸도 있어도 문 안 닫으니 상관없는디 옛날에는 아들 없으면 문닫는다고 그럴 땐디. 아 그래 다 죽어버렸어. 세 식구 네 식구 나와서 혼자 살고 세 식구가 다 죽어버렸어.

그렇게 그러고 여그 와서 그 때 우리가 인제 싹 그렇게 해버리고 뭐 시신 치울 때는 오도 앓드라고 군인들이 그 때는 또. 그 때도 와서 뭐라 하면 또 누가 손들라고 하면 또 어떻게 시신을 치울 것이여 군인들이 오면 무서워서.

Q. 군대가 완전히 빠져나간 때는?

A. 그 때는 저그 불갑산 작전하고 끝난 뒤에 빠져나갔제. 그 때. 그러니까 음력으로 정월 15일날 작전했을 거여. 응 보름날 작전했어. 그러고 그 뒤로 얼마 안 있다가 그 사람들 다 후퇴, 나가버렸지 인자. 특별하고.

A. 나는 그 때 정월 보름날 나는 송현으로 나가버렸어, 송현으로. 살라고.

우리 의사촌 형님이 수사반장이었거든 그 때 송현리. 그래 거 가서 피난하고 살았당게. 불지르면서 살라른 나가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린 아직 어리니까 부모님들은 여서 먼저 너그는 나가거라 부모들은 먼저 나가라 했지. 모도. 죽을지는 모르고. 그러고 인제 여서 총소리가 나니까 우리 종조할머니하고 아버님하고 새끼들 다 죽는다고 올라오는 거여, 그냥 막 달음질 쳐서. 그러다가 그냥 돌아가서 버렸지. 그래 우리 종조 할머니는 그래서 우리가 인자 오시는 거 보고 총을 맞았

는지 몰랐지 그 때는 올라오신 게 총을 쏘니까 우리 할머니 돌아가신다고 우리 할머니라고 막 외치니까 총을 안 쏘드라고 군인들이. 그래 여 와서 보니까 총을 그렇게 맞아갖고 있어. 그래서 인제 우리가 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거는 나 보도 못했지, 잘. 거기 쪼그 앙거서 보니까 올라오는 막 대고 지저부니까 아 그래서 나중에 인자 거시기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서 버리고. 우리 종조할머니 그렇게 와서 그 사람들이 다 치료해 주고 대우는 받았네 그 사람들한테 군인들이.

Q. 주소 성함 연세

A. 함평군 해보면 대창리 300. 김형술. 나이는 지금 예순 일곱.

Q. 사건 당시에는 몇 살?

A. 사건 당시 내가 열 여섯 살이죠.

Q. 결혼은 하셨죠?

A. 그 때 지금? 지금은 결혼했지.

Q. 가족 관계는?

A. 가족관계는 지금 현재 육남매여. 아들 하나 있고 막내. 그리고 부부간. 부부간 살고 있어.

Q. 당시 함께 살던 가족?

A. 그 때는 서이 살았어요.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나하고. 그 때 출가 다 누나들은 출가하시고. 근데 우리 어무니가 나를 마흔 한 살에 나셨어. 그래 내 내 우로 누님 한 분 계시고, 내가 아들 하나 아들 하나 난다고 마흔살 넘도록 마흔 한 살에 낳았당게. 우리 어머니.

Q. 태어나서 자란 곳?

A. 나 여그서 여그 내 태자리죠. 천대마을에서.

Q. 아까 매형되시는 분?

A. 아, 그 분은 이 마을 나와 한 마을에서 살았는디 군대가서 돌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Q. 사건 나고 어디로 피신?

A. 사건 난 뒤로 한 달 한 사십오일간 여가 있다가 사건난 뒤로 사십오일간 여가 있다가 그 때 인제 불갑산 작전에 송현리로 나갔죠 우리 의사촌 형님이 그 때 수사반장인가 형사반장인가 했어요. 그 때. 그 송현리. 그래 고리 피난나갔죠.

Q. 거기 얼마나 있었나?

A. 거그서 한 이십일간 있다가 여그 왔지.

Q. 사건 전에 군인들이 언제 들어왔나?

A. 군인들이 언제 왔다는 것은 잘 모르고 그 때. 그 때 인민군들은 뒤로 나중에 인제 또 우리 한국군들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뒤로 인자 계속 인자 그놈들이 인자 마을 포위도 하고 인자 그래서 그러니까 인자 포위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인자 우리도 어려서 보른 포위해가지고 누구 사상 다른 사람은 잡아가고 그러려 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 무엇을. 그때는 어린 판이라. 열 한 대여섯 살 됐을게. 우리는 사상관계는 그 때는 없으니깐 우리는 아니니까. 아 그랬는디 군인들 언제 왔다 언제 들어온 거시기 한 그런 계획은 잘 모르지 날짜는.

Q. 사건 전에 산사람들 많았나?

A. 아, 밤에는 와서 모다 쓸어가고 그랬죠.

Q. 안 주면?

A. 안주면 죽여버리는데 쥐야지, 당연히 쥐야지. 그러면 또 한국군은 또 인자 줘 다고 뭐라 하고 고놈들이 밤에 와서 안주면 안준다고 너는 반동자라고 데려가서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내가 어쩔 거여. 요쪽 편도 들었다 조쪽 편도 들었다 양편 들어야지 할 수 없는 판이여, 그 때는. 전부 근방 다 그러죠. 안 그러면 반동으로 저녁에 와서 죽여버리는데 어떻게 할 것이여.

Q. 그 때 열 여섯살이면 뭐하셨어요?

A. 그 땐 나 학생이었죠. (초등학교?) 그 때 중학교 인제 땡기 일학년 땡길 판인디 그 뒤로 인자 육이오 당하고 나서는 학교를 그만뒀버렸지 중학교? 중학교 안 다닐 아, 다닐 때 그랬지.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그 때 일학년인가 갔다가 그랬어.

Q. 학살 전 군인들의 행동은?

A. 그거야 군인들이 와 가지고 이제 마을마다 거의 다 포위를 다 하는 판이지. 군인들이 와서 그래서 나오라 해가지고 밤손님 왔다 안 왔다 그런 거 물어보고 그런 판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그 때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안 왔다고 하게 왔다고 그럴 거여. 그 때는 그러니까 서로 요쪽편도 들었다가 저쪽편도 들었다가 한 쪽편만 들은 반동으로 몰려버린 게 저녁에는 밤사람들이 와서 데려다가 그 야 단인지. 아 밤사람들 데려면 나가든 어디가 죽이는지 몰라요, 그때는.

A. 소도 돌아가며 쥐야지 어쩔 수 없이 안주면 강제로 거시기 해 버리는데 갖다 죽여 버린다고 그런디

Q. 경찰에 잡혀가서 행방불명되거나 죽은 사람은?

A. 그 때 군대 가서 행방불명된 사람들 있죠. 우리 사촌 매부 행방불명되었다니까. 전쟁 때 어디가 죽은지, 이북 그 사람들에게 잡혀서 넘어가버렸는지 지금도 소식이 없어요,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있는디 그 사람도 군대 가서 소식이 없어, 그 답에. 그 사람은 결혼하고 갔는디 그 사람도 소식이 없어요, 군대 가가지고. 우리 마을에서는 들이 되는구만요. 군대 가서 소식 없는 사람들이

Q. 저쪽마을은 괜찮고 요쪽 마을만 피해입은 이유?

A. 아 그거는 없어. 무조건 여하튼 도로 요쪽으로 저 산 있는 쪽으로 요쪽으로는 다 건드려 버리고 군인들이. 인제 거 인민군들은 요쪽 저쪽 상관없이 인제 밤에 땡기니까 상관없는디. 도로 요쪽으로만 다 그리 했지. 그렇게 우리 마을 있는데

서도 아까 그 계준씨 있는 마을도 마을 요쪽이거든 도로 요쪽. 그래 요쪽으로는 그러고 아까 저 모평도 도로 요쪽으로

도로 요쪽으로는 경찰관들이나 군인들이나 손을 안땀어요. (저쪽은 산사람들 안 나왔나요?) 왜 안나와요? 도로 여서여 한 마을이라도 괜찮았는디 도로 저쪽은.

Q. 사건 전에 군인들이 이런 짓할 거란 얘기?

A. 그런 건 잘 몰라요.

A. 딴 것은 안 저지르고 그 그 사람들 와서 여그 와서 그 우리 마을 사람들 죽인 거 그것만 걸렸지. 불질러버리고. 고것만 했지. 그렇게 해보서 걸렸어요.

우리 마을 뿐 아니라 해보셔도 오중대만 오면 아주 고놈 반란군들보 더 칭한 놈들이라 하고. 그리고 거제 8중대가 또 있었어요. 8중대가 장성으로 왔다가 5중대가 또 여 대대에서 장성으로 왔다가 이렇게 자꾸 돌아댁기더만 군대가. 5중대만 오면 아주 소용 없어. 큰 애기들도 막 거시기 해부리고 그러니까 고놈들 아주 나쁜놈들. 그 때도 그랬어요. 전쟁 때도. 그러니 그 사람들 5중대만 오면 무서워했지, 다. 그리고 8중대가 오면 친형제처럼 지내는 판이고 그때도. 그러니까 5중대만 왔다 그러면 아주 해보면서도 벌벌 떨었어요, 다.

Q. 5중대의 특징?

A. 그 사람들 오면 소용 없어. 아무나 그냥 잘못하면 죽여버리고 그러지 않으면 막 큰애기들이나 거시기 하면 강탈하고 그러고 다녔어, 그 사람들이.

Q. 5중대 옷차림 구별법?

A. 그거는 없, 군인 그때는 똑같드만 옷이. 8중대나 5중대나 똑같아요, 옷은. 거 옆에 사람들 5중대왔다고 하면 그 사람들 5중대인줄 알죠.

Q. 군인들이 몇 명 정도 왔나?

A. 아, 여그 우리 여그 사건 날때 그 때는 한 50명쯤 군인만 해서, 한 50여명. 그런데 일부는 여가 있고 총 거따 차려놓고 있고, 일부는 마을 돌아다니면서 전부 불질르면서 나가라 하고 살라든 나가라 하고 그러고 땡기고 그랬지요. 그러면 저 아래가 나가라고 하든 여 도로니까 저 밑에도 갈 수가 안 있소. 글루 못 가게 해요. 다 우로 올라가라고, 올라가라고. 그래 그렇게 알고는 우리는 걸 못 가게 한 게 올라왔지 또 저 밑에 내려갔으면 안 죽지. 그래논게 여그 올라오니깐 딱 막아놓고 못 가게 해 전부 앉으라고. 그래 딱 모타놓고는 인자 죽을 것만 같어. 군인들이 여가 있으니 맨처음에 군인들이 여 있는지 몰랐지 올라올 때는. 그 와서 본 게는 군대가 다 붙었어, 산에 가서. 5중대가 인자 여가 있고 그러니까 한 중대가 소대별로 거시기 했었지. 그렇게 일부는 마을로 들어와가지고 몰아내고 불질르고 사람.

A. 그 사람들이 인민군들이.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또 난리났지 인자 그 사람 죽여버렸다고, 인민군들이 죽여버렸다고. 달랑 게 안 주니까 죽여버렸어. 그 어찌겠어요. 안주면 죽여버리는데 인민군이.

Q. 마을 사람 중에 산사람된 사람은?

A. 그거 잘 모르죠. 그건 잘 몰라요. 궁계 인민군들 넘어왔을 땐 인자 와서 거시기 할 때는 전부 인민군돼버렸죠. 우리도 인자, 다 누구든지. 다 인민군돼. 인민군 안되면 어쩔 것이여, 인민군들이 놔둘 것이여. 궁계 그 때 다 인민군됐지. 그 또 저 대한민국 또 오니까 또 대한민국 돌아왔지 인자. 거서 인자 그 세 중간에서 산으로. 인자 밤손님은 산으로 말아버리고 함께. 밤나 인자 양쪽에 오다가다 지금까지 부닥치고. 그러니까 인제 옆에 놔만 죽지 우리도 여 농민들만 죽지 인제. 요쪽편도 못 들고 저쪽편도 못 들고 요쪽편 나쁘다 그러면 요쪽편에서 죽여버리고 요쪽편 나쁘다 그러면 저쪽편에서 죽여버리고 편히 살 수가 없어, 그때는

Q. 제일 무서웠던 때는 전쟁중이?

A. 그 때가 제일 무서웠죠, 사건 날 때가. 요쪽 편도 못 들고 저쪽 편도 못 들고 그래가지고 인자 완전히 인자 음력으로 1월 15일 날 작전이 저 되어버리게 그 때부터 인자 인민군이 요쪽이 조용했지, 인자. 이 근방이 인자.

Q. 학살 사건 있던 날, 나락이랑 다 봤을텐데... 그 후엔 어떻게?

A. 인제 나락은 인제 다 지른 것이 아니라 몇 집만 질러버렸어요. 나락도. 그 때는 나락은 인자 그때는 나락도 그리 많지 않지마는. 우리 마을서 두 집만 눈에다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걸 질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자 그 분들 어쩔 수 없이 그 때는 인자 얼어먹다시피하고 빗내서 땅덩어리 있음게 빗내서 먹고 그렇게 살았죠.

Q. 학살에 대해 바깥 사람한테 얘기한 게?

A. 뭘 뭘말이여?

Q. 밖에서 온 사람한테 사건에 대해 얘기?

A. 아니 여그 와서 인터뷰하고 할 때는 뭘 번 했지요. (최근에?) 그 전에는 뭘 아무 것도 모르죠. 현지가 한 한 이삼년 됐나? 인터뷰한 제가.

Q. 아버님 돌아가신 거에 대해선?

A. 거 누구한테 말도 못하죠. 누구한테 말할 거여. 정부에서 뭐 거두기나 해주면 모르지. 정부에서 뭐 거시기도 않고 허니까. 인자 우리가 인자 전부 그 돌아가신 양반들만 거시기 해서 지금 이 건립을 추진하려고 하지.

Q. 군인들이 죽인 거잖아요?

A: 그러니까요. 군인들이 싸 죽였는데 그 때 누구한테 가서 원망을 해. 왜 우리 아버지 죽었냐, 무슨 사상 관계로 사상 있어서 죽었냐 할거여. 그래도 가서 말한 마디 못하죠, 그 때는. 해봤자 뭘 아무 거시기 안 되죠.

Q. 거창 사건, 우리도 알려야겠다는?

A. 그제서 그때부터 우리도 인제 그 알려야겠다 해서 한 거죠.

Q. 아버님 당시 연세가?

A. 그 때가 한 오십 한 아 그 돌아가신 제가 육십 한 오세 됐어요. 그때가 한

육십 한 칠세? 칠 팔세 그렇게 돼.

Q. 선생님 연세가?

A. 내가 지금 예순 여섯이니까 예순 일곱, 내가.

Q. 아버님 생각 안나세요?

A. 왜 안나요? 생각이. 아버님이 계셨으면 내가 아직까지 농촌에서 지금 농사 안지어 먹고 살아요. 아버님 계셨으면 어떻게 가르치던지 나를 하다 못해 나를 취하 고등학교는 내놔올 거여. 뭘 있어야 난리를 만나면서 뭘 있어야 학교를 다니죠. 중학교도 못 다니고

A. 전쟁이요? 아 전쟁이란 건 뭘 말할 수가 없죠. 전쟁이 안 났으면 나도 요 모양이 안 되었을 거인디, 전쟁이 나 가지고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내 배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뭘 농촌에서 농사 지어먹지, 헐 일이 없죠. 배움이 있어야 뭘 하죠.

Q. 아버님 사진이나 무슨?

A. 사진이 없어요. 어머니 사진만 있고.

Q. 아버님 돌아가신 것 때문에 불이익은 없었나?

A. 아 돌아가신 뒤로는 뭘 불이익은 없죠, 뭘. 뭘 없으니까 인자 벌어먹고 살라니까 노모님하고 그래서 내 원망은 시럽죠. 아버님 안계셔서 배우지도 못하고 아버님이 계실 때 그 토지라도 좀 있는 거 어떻게 벌어먹든 뭐든 밀천을 거둬야 어리고 또 허니까 땅덩어리라도 팔아서 안 굶어죽을라니 그렇게 먹고 살아야지. 그러다보니까 아 이제야 후회하면 뭇할 거여, 인제.

Q: 지금은 뭐하세요?

A: 지금은 농촌에서 농사짓죠.

Q. 아버님 살아계셨다면, 커서 하고 싶었던 일?

A. 아 그것은 인자 내가 인자 그 때 인자 해봐야 알죠 인자. 내 배우기만 했죠. (생각이라도?) 생각은 뭘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들어갔었는데 그때 내가 학교를 늦게 당겼어요. 국민학교를. 그래가지고 그 때 배웠으며는 내가 사회활동이라고 뭘 하든지 한 번 해보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나 국민학교 다닐 때는 담임선생하고 우리 아버님하고 여하간 친절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담임선생이 나를 이빠하고 이렇게 가르칠라 허고 그렇게 했는데 딱 그 모양 해버리니까 아버님 돌아가 버리시니까 내 뭘 할 필요 없죠. 형제간도 없고.

Q. 가세가 많이 기울었나? 그 사건으로?

A. 그랬죠. 전답을 팔아먹었으니까. 아버지가 좀 있었던 전답이라도 팔아먹었으니까. 농사 그 때 한 다 팔아먹고 한 사백평 가지고 살았어요. 400평 가지고 어머니하고 나하고.

A. 집 집도 거시기 해서 념의 현 집 사다가 뜯어서 갖다 짓고 그 터에다가. 그러고 지금까지 그 집에 살고 있어요.

Q.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나?

A. 어머니가 지금 구십살에 돌아가셨어요.

Q. 어머니 돌아가실 때 사건 관련 얘기?

A. 말씀은 앓고 그 말씀은 잘 안해줘요. 아버님이 살았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것인데 그렇게 시국을 잘 못만나서 그러니까 나보다는 열심히 먹고 살아라 그것이 지.

Q. 자제분들은 이 사실 다 알고 있나?

A. 예. 다 알죠. 그렇게 인자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그런 거시기 안 해주고 그리고 양민학살 했어도 그런 보상도 안해주고 이런 거시기를 하고 살았는디 그러니까 그 때 시대가 그렇게 생긴 걸 어떡해야. 때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자기네들도 뭐 간섭 안 가져요, 인자.

Q. 바라는 점?

A. 인자 바라는 건 정부에서 그만한 그 거시기 해가지고 죄없는 양민학살을 거시기 했으니까 무슨 보답은 정부에서 해줘야 할 것 아니냐. 내 생계 위주로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양반들 보답은 해줘야 쓸 것 아니냐. 그거여. 내 생계라고 하면 맥여 살려라 밋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양반들은 아 죄없이 돌아가셨으니까 분통하지 않아요. 그렇게 정부에서 이것이나 거시기 해줘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거 정부에서 해준다고 하면 이때까지 거시기 했던 것이 좀 풀려지지요, 풀리죠.

● 윤석동·윤길수 형제(일자: 2001-08-31, 장소: 모평리 학살현장)

윤석동, 눈 배경으로 서서 손짓하며 설명

A. 우리가 소개를 나갔다 말이여. 느닷없이 **가 들어온다고 그래 해서 나갔어. 나갔는디 아버지하고 같이 나갔다 말이여. 근디 같이 나가다가 아버지는 도로 들어가버렸어 동네로. 나 늙은 놈 뭐 어쩔라게 하고. 우리만 나갔다 말이여 저 송내로. 나가갔고 조금 있음게 오중대 와갔고 싹 다 와갔고는.

Q. 오중대 어디로 들어왔나?

A. 요기 요 저쪽으로 들어왔어요. 문장쪽으로. 저 타고. 그래갔고 저 총소리가 막 그냥 끝없이 나더만. 그래 인자 한탕하고 난 뒤에 와서 본 게 사람이 여그서 막 피가 짹짹 흘러갔고 다 죽고 얘기도 죽고 막 어른도 죽고 여자들도 죽고 아버지가 본 게 아버지 안따라왔다 그러.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도 죽었겠다 하고 했더니 이 양반이 어디로 갔냐 허른. 우리 동장 아저씨네 집으로 왔어. 우리 동장 아저씨는 그때 병으로 누워갔고 드러누웠음게 그 양반은 인제 들어왔어 그 양반네 집으로. 근디 우리 종조 할머니, 고모 두 분하고 우리 종조 할머니하고 이 양반이 있음게 우리 조카가 여서 지키고 있어라 그렇게. 아픈 양반 뱃두고 업자 한게 우리 아버지만 가자 그래. 그래서 나와갔고 저쪽 우로 나왔어, 나오다가 동네

사람들이 있음게 중간에 있단 말이여 그 너매가 동네 사람 있음게 고거 **도 잠깐 고 들어왔어. 그래서 같이 나와라 그렇게 이 양반은 나왔어 지금 저 시방 저 여자들 있는데 그 고살에 나와갔고 여가 눈이 있고 **했었어. 그리 가라 함께 그리 내려간 게 총을 쏘버렸어. 쏘 버렸는디 이 어깨가 맞았는가벼. 내가 가서 본 게 어깨에서 피가 났는디 대검으로 한복을 입었는디 한복 위로 대검이 찢어가지고 요만치 찢어먹었어. 그래갔고 떨어져서 죽어버렸는디. 그런 게 인자 총이 어깨에 맞음 게 **해버렸던가벼 그래 돌아가서 또 쫓아와서 대검으로 찢어버렸어 그래갔고 죽었고. 요리 와서 본 게 여그는 막 침에 우리가 우리 형님하고 들어와갔고 여기서 막 찾았어. 근디 송장을 갖다가 그냥 **에 넣어버렸어 *을 막 찾아갔고 있는디 도저히 모르겠다는 것이여. 막 찾아다가 본 게 저게 돌아가셨어. 그 날 아버지 저 우리 형님하고 나하고 대밭 위에갔고 그 옆에 시방 **한데 거기가 산이었어. 거기다 인제 우리가 썼어 근디 어떻게 흠뻑지 강철을 해가지고 흠 한 되를 푸면 뚝 떨어져 나는 허도 못하고 이제 우리 형님이 바로 쫓아왔다고 그래갔고 그 날 시장을 하고. 근디 이 방죽에서요 사람 ** 한나 죽었어 저 무인생인디 즈그 어매 아버지가 다 죽었어. 그 늦밤에 나 갖고 쪼깐했어. 요만치로 무인생인디 이제 엄마. 같이 와갔고 어매가 떨어진 게 그 쫓아갔어. 그렇게 너희 어매는 쓴 것이 안 떨어져갔고 고 밑에 떨어져서 즈그 어매 아버지는 죽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고 꼬물꼬물 한 게 쫓아온 게 바로 물 속으로 샘이 있어요, 샘. 요로 요 가 보셔요, 샘 있지. 샘 속에 가 있다가 그 사람들 간 뒤에 살아와갔고 그것이 시방 있소. 요 광주가 사는디 어테냐 지금 화순리로 가서 산다 그 양반 있어 그 양반은 자기는 알아 그거를. 윤오중이라고 우리 아저씨 되는디, 여기서 한 여기 산 양반들이 저 종기씨 어머니라고 그 양반이 늙으셔갔고 그 양반은 총 맞아서 그 양반이 살아갔고 노인인디. 아 몇이나 둘 한 서너분 살았는가 그러고는 싹 죽어버렸어, 하나도 없이. 얘기고 여자고 하나도 없이 비참해부렸어, 비참해. 시방 요것이 우리 논인디 그 전에는 밭에다가 산이었어 새로 풀이 나가지고 개발이 되어 버렸는디 요 위로 여그로부터 요리 꼭 쌍구령에까지 송장 늘어부렸어. 싹. 요요요 시방 차 있는데서부터 요까지. 기관총은 어따 대고 차렸냐면 쪼그 저쪽에다 대고 굵어버링 게 나오는 놈은 다 떨어져버렸어.

A. 막 나오는 놈 몰아냄서 쏘버렸제.

Q. 다 보셨어요?

A. 사람은 봤제. 막 죽어서 내가 왔음게 사람은 다 여서 봤제. 쏘는데는 저가 있었으니 나도 여가 있었으면 죽었지마는. 저 너머에 이 너머 동네에 살아서 그랬제. 사람은 다 봤어. 그 때까지 그냥 요로콤 뽀로직뽀로직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디 추울 때라 그냥 방치해버리고 그 때 후송도 못하고 그래서 다 죽어버렸제.

Q. 군인들이 어디서 총을 쏘나?

A. 군인들이 시방 여그하고 여여 산에서 하고 저그 하고 두 군데서 차려놓고 쫓겨든. 그러고 저그서 몰고 움서 짓어대버리고. 몰아 나가라고 몰아내고 오는 놈 여그서 쫓버리고. 한 일구를 몰아내고 여기서 기관총 차려놓고 여그서 쫓버렸단 말이야 저 봉화리서 들어와갖고.

Q. 그 때 마을 이름은?

A. 모평이라고 그랬죠. 모평이요. 지금은 상곡리

Q. 마을에 몇 명이나 살았나?

A. 그 때가 살기 한 팔십호 이상 살았을 것이여. (어디에?) 요 요 동네 요 이 안에 들어가보시요. 엄청나게 큰 동네여.

Q. 죽은 사람은 몇 명?

A. 몇 분인지는 그 확인을 못하게 워떻게. 여기 안 사는 사람, 가족이 전멸해버린 사람도 있고. 탄에서 와가지고 살면서 여서 죽어버린 사람도 있고. 가족이 전멸한 사람도 많애.

윤길수 : 요안에 마을이 **하고 산간마을이 거기 사람들이 소개를 모평으로 많이 왔어라우. 그래서 그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많이 죽었겠지. 인원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는데 현재 그 자손들을 찾을 그거가 없어라우. 이 안 마을에 쪽 **까지 가는 마을이 있어라우. 그러니까 에 지금 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전멸한 집이 굉장히 많을 거여

윤석동 : 가족이 하나도 없어진 사람이 여러 사람이여, 그럼 그 사람들은

윤길수 : 그러니까 **에서 우리가 다 죽여버리고 불을 질러버리는데 연기가 엄청나게 나와서 우리가 다 죽었겠다 하고 넘어오니까 요 위로 썩 다 죽여버렸어 썩 그러고 요 위로 가서 솔가지 있는디 거기서 막 불이 타고

윤석동 : 동네도 불을 다 질러버렸어, 동네도 썩

윤길수 : 우리가 정확한 숫자를 몰라.

윤석동 : 암 숫자를 모르지 여서 안 산 사람이 있고.

윤길수 : 그 때 당시 **가 스물 몇 제사를 합동 맡겨서 지사를 지냈어. 근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 현 식에는. 그래갖고 다섯 가군가?

윤석동 : 칠팔십명이 더 너머 죽었다고 봐 아 그렇게 송장이 여 이래갖고 여기서 못 치운 게 면사무실에서 임자도 없고 한 게 면사무소에서 이틀인가를 치웠어. 이틀. 여기서 가족이 있는 사람은 다 치워가고 이틀간을 치웠어요. 하여튼가. 면에서 치웠어. 어디로고 갖다 던져 버리고 촌동네 어디론가 떨켜버리고

윤길수 : 고거는 지금이 면하고 가차왔지 그 때 당시는 면하고는 전시 시대라 좀 거리가 멀었고 인자 한청, 청방 그 사람들이 경찰 인자 이경 청정 그런 식으로 해갖고 많이 그 사람들이 사람도 많이 죽여버리고 좀 옛날에는 인제 상놈 양반 그런 식을 찾다가 그 집서 남의 집 살다가 그냥 저 잘못하고 그러면 밤손님으로 활약해갖고 저녁에 와 갖고 죽여버리고 그래갖고 엄청나게 죽었어요. 지금까지

해갖고. 그래서 숫자를 정확히 알길이 없어요. 그리고 현재 그 사람들이 가족이 살았다면은 헌디 많이 전멸해버렸고.

윤석동 : 이사간 사람들이 많았당게 어디로 가서 사는 등도 모르고 한나나 남아 갖고.

Q. 아버님만 돌아가셨나?

A. 윤석동: 아니 우리 작은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여러분 돌아가셨어. 우리 집안에서도 돌아가셨어. 아버님만 돌아가셨어. 우리는 다 나갔거든 형님은 그때 청방에 있었고.

Q. 청방에 있었는데도?

A. 윤석동: 청방이 소용있간? 이 같이 군인들하고 같이 가자고 한 게 가 갖고 아 우리 식구가 다 죽는다고 우리 형님이 있을 때는 여 와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여 와서 딱 몰아내갖고 다 죽임 게 다 한나도 없이 다 죽여버렸을 것이다. 다 형제간이고 아버지 어매 다 죽었을 것이다 허고 혼자 와서 찾드라 이것이며 막 쫓아와서. 그래서 우리가 온 게 느그는 살았냐 아버지가 안 계신다, 항 게 아버지 찾느라고 내 사군테를 다 돌아다닌 거여. 그래갖고

윤길수 : 5중대들이 동네를 썩 포위해갖고 무조건 나가면 살고 집에 있으면 죽는 다 이거여. 그러니까 노인들 분수를 모르니까 딱 나와갖고 총을 여따 차려놓고 기관총 차려놓고 거기서 나오는 놈마다 막 썩부린 거예요. 그러니 요리 짝~ 그러니까 무고한 희생자가 그 때 당시는 엄청나게 많이 희생을 당했다, 이렇게 봅시다. 그리고 뭐 저 험 말이 뭐 그런 정도 뭐 징계 찾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윤석동 : 따맛하더랑게 칼로 요만치 한뼘이나 찢어버렸어 (뿔로?) 대검 총 대검 (군인들이 대검 다 갖고 있나?) 다 쫓아갖고 이제 전부 옛날에 다 쫓아져 쫓고 다니는 것이여. 나도 군대 생활을 해봤응게

A. 지독헌 놈들이여. 그래 인제 이 양반이 여기를 맞았응 게 여기를 딱 쥐고 선 게 돌아서서 가다가 쫓아왔어. 총으로 안 쏘고 대검으로.

윤길수 : 그 때 당시 구사일생으로 산 사람이 있어라우. ***고모하고 *** 딸. 그 양반은 군인들을 막 감싸고 살려주라고 **인데 청방에 있다고

윤석동 : 청방이 아니여, 그 때 군대 갔어. 그 때 군대로 가는 게 우리 아들은 군대가 있다고

윤길수 : 그러니까 그럼 살라든 절로 가라고 저리 넘어가 갖고 세 분은 살았지. 구사일생으로 살았어. 그러고는 나머지는 다 죽었어.

이금남 할머니: 뒷쪽에서 들은 얘기 두런두런 하는...

● 노병량(일자: 2001-08-31, 장소: 모평리 학살현장)

A. 나는 인자 살기는 월야면 중림마을이란데 살고 있었는데 장교, 동촌 사건 나던 날 아침에 그 총소리가 나니까 인자 밭허다 어머니가 나가서갖고 장성

A. 인자 우리 마을 있는 쪽에 와가지고 그래서 총소리가 막 났어. 실탄이 우리 옆으로 막 떨어지고 하니께. 그레가지고 생고리라고 하는 마을까지 가까이 도망가 가지고 거기서 저녁을 자고 아침에 인제 집으로 와보니까 전부 불 나가지고 집이여 뭐 나락벼들이여 싹 타져버리니까 식량이여 뭐 입을 옷이여 뭐 침구 하나도 없이 완전히 싹 다. 그래서 옷 입을 차로 피난 온 거예요.

A. 아까 그 상묘란 그 마을에 친척이 살아서 인제 고리 피난을 와 가지고 거기서 인제 한 달 못 살았을 거야, 아 한 달 더 살았겠구나 그리고 식량이 인자 거시기 하니까 이 모퉁이 외가라 요리 가면 어머니가 인자 먹을 것이라도 가져오지 않나 해갖고 이 마을로 왔었지. 그렇게 인제 여기서 마을에서 모다 사신 분들이 계신디 잘 왔다 하면서 그래서 인자 여기서 살고. 아버님은 인제 매일 지서에 청방일 때문에 근무를 나가셨지.

33:28 Q. 사건 나기 얼마 전에 오신 거예요?

A. 여기를 사건나기 한 15일이나 됐을 거여. 그 때. 내가 생각할 때 지금 그 때 열다섯 먹었으니까 내가 확실한 기억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레가지고 ... 그 때 아침 밥을 먹고 났는데 아버님이 몸이 아파서 그 때 못 나가겠다고 그러시더라구. 그런차니까 이제 아버지가 거시기 한다 어머니가 그리고 식량을 누가 주마 했으니 가질러 가자고 나보러 그래. 어머니하고 같이 마을 앞을 나왔단 말이여. 마을 앞에 나왔는데 눈발이 날리면서 어떻게 추우니까 어머니가 다시 들어가자 그것이여. 그리고 내일 가질러 가자 이것이여 식량을. 그래서 아이 여까지 나와서 내일 가질러 가자고. 어려서부터 뭐 고집이 있었든가 어머니하고 생각이 좀 새버렸어. 그래서 어머니는 다시 들어가자 나는 여까지 나왔으께 그냥 가질러 갑시다 그레갖고 겨우 인자 저 너머의 마을 상묘로 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한 10시경에 가가지고 거 가서 11시 경에 거시기가 사건이 났을 것이여. 그레가지고 가서 얼마 안 있으께 모퉁 사람들 다죽었다는 소문이 들리고 그렇게 인제 나는 어리니까 여길 와보지도 현장에 와보지도 못하고 어머니만 혼자 와 가지고 인자 아버지 시체만 확인하고 와 가지고 그 다음날 인자 여그 외가에 친척되시는 분하고 또 딴 분 한 분하고 해서 그 옆에다 인제 매장을 해놓고 인제.

34:57 여그 외가를 내가 그 후로 인자 외가를 육이오 후에 다니며는 요쪽이 보기가 싫으께 고개를 저쪽 한쪽으로 틀고 다녔당게 실제로 요쪽을 보기가 싫어. 어렸었지마는 그렇게 했고. 나는 켈로 뺏이가 그런 고 허니 아버님은 인자 인자 참 그 때 서른 다섯살 자셨으니까 그러시지마는. 동생들, 더구나 여식들인데 여섯 살 먹고 아홉살 먹은 애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그것이여. 그런데 개들은 시체 조차도 찾지 못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그 나무 앞에다 다 갖다가 꼬실라버리고 그런 못된 짓을 해서 쓰겠냐 그것이여. 그것이 인간이 할 짓이냐 그것이여. 죽은데라도 놔뒀으면 시체라도 찾아서 그랬는디 그 정도도 못하게끔 만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기도 물 속에다가 빠져 버리고 그런 참 너무나 그래서. 나도

그 때 아버지가 청방에 나가있었으은 우리 네 식구가 죽고 아버지 혼자만 사셨을 것이었는디. 그것이 내가 살라고 그랬든가 그 날 용케 식량 가질러 가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나중에 인자 소개 끝나고 집에 가야 인제 식량도 없지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이듬해 봄까지 여 성묘에서 살다가 누가 수수라도 주며는 그 놈 밥 끓여서 먹고 내 동생은 그 때 어머니가 동생이 그 때 배 안에 들어가지고 선달 초 닷새날 여기서 했는디 선달 열여드렛날 그 동생을 낭단 말이여. 유복녀지. 그레가지구 참 살면서 집도 없이 거시기해가지고. 어머니가 저 태창산 가서 서까래 하나씩 여다가 참 망마니로 치고 그렇게 세상살았지 그레가지고 내가 실기 해가지고 집도 좀 짓고

37:00 그러다가 그 정도 되니까 인자 군대 영장 나와가지고 막 집짓다가 또 군대 가가지고 그레갖고 군대 나와서 인자 어렵게 세상 살다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그 때 살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든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지

37:13 Q.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점은?

A.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점은 요기 산 저쪽만큼 너머가서였어. 아버님은 그 때 그렇게 어머님 말로 거시기 하면 다리 밖에 안맷었다고 그러서. 그렇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서. (대검에?) 그렇게 그것은 그런 말씀은 어머님은 안하시고 그 때 그 양반들이 정신이 없어. 확실히 확인해볼 거이가 없었을 것이여. 어머니 생각에는 그냥 한군데만 맞았다고 그러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여지

37:52 Q. 아버님이 동생 둘 데리고 가는 방향?

A. 문장으로 가면 산다고 허니까 저 아래서 여까지 올라오신 것이지.

38:00 Q. 동생들은 아버지 시신 옆에?

A. 없었지. 아버지 시신 옆에. 그러니까 인자 나무 앞에다 놓고 인자 꼬실라버린 것이지. 애들이라 적으니까 데리고 거시기도 쉽고 그러잖아. 근데 인제 아버님은 거리가 머니까 못 꼬실라버린 것이지.

Q. 태워진 시체 많았나?

A. 나는 안봤으니까 모르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때 태워진 시체가 아주 많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꼬실라갖고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시체가 많았다고. 나는 안와봤으니까 모르지, 현장을 안와봤으니까.

38:37 # 윤길수 b/s

A. 그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인제 대검으로 막 쏘신 게 나왔지. 그렇게 죽여갖고 그 때 솔가지가 12월달이라 빨갭게 올랐지 올라갖고 있는 상태에다 집어넣고 다 불질러 버린 것이지. 그러니까 개 꼬실러진 것으로 여하튼 사람이라 꼬실라논게 형체를 전혀 모르게 이런 형편으로 되어갖고 찾을 길도 없고 니것이 내것인지도 모르게 이런 형태로 남았지. 그러니 경장히 잔인하게 이렇게 애기들 참 몇 살 먹지도 않은 그런 애들도 다 죽였다.

39:23 # 노병량 b/s

A. 그래서 여기는 순수한 양민이라는 것은 그래서 얘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이여, 왜고하니 딴 디는 여기하고는 틀리다 그것이여. 여기는 군인들이 쉽게 말해서 저리 가면 산다고 유인해놓고 죽여버린 거여. 그러니까 딴디는 인자 젊은 사람들이 활약도 하고 한 사람도 많아갖고 죽었는데 애들이나 거시들이 무슨 죄가 있냐 그것이여 아까도 그랬지마는 노인들이 무슨 죄가 있냐 그것이여. 여자들은 활동도 못하고 현ep 여기도 아버님이 그 때 보면 한 오십 넘으셔갖고 육십 가차이 오십은 넘으셨겠다만 그런데 그런 분들이 무슨 죄가 있냐 그것이여, 그 때. 그런 분들은 옛날에 활력도 허라고 해도 못허시고 옛날에 그 분들이 무슨 거시기를...그렇게 그래서 함평 사건은 순수한 양민인데 모두 국회에서 스물 몇 군데서 통합법 ...

40:27 # 윤길수 b/s

Q. 불태워진 시체는 어디서 발견?

A. 요 위에 산이요

윤석동으로 pan 뒷모습 걸고 현장

A. 요기 요 소나무 있는데라니께요. 거가 신작로 시방 나가지고 해부렸어. 근디 바로 요 호박순 있는데 거그. 요 위에 호박순있다고 저기

40:45 # 현장 fs

A: (노병량)지금 바로 여기예요, 새파랗게 있는데 바로 거기, 우리도 어려서

40:56 # 윤석동 뒷모습 걸고

A. 산에서 나무를 베다가 임자가 거기다 놀러났었어. 그랬더니 고놈에다 넣고 질러버렸어. (시체 더미가 얼마나 됐나?)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 집어다가 넣어서 해서 그냥 한 개 나는 어려서 그 때 출기는 하고 올 아버지 찾으려고 돌아다니다 찾아는 게 그건 뭐 확인도 못해버리고. 그리고 정신 없이 그래 버렸지 얼마나 쌓였는지도 몰랐제 (본인의 키보다 컸나?) 시체를 쌓아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 짐 속에다 다 넣어버렸당게. 하나씩하나씩. 그 때 불타더랴게 그렇게 얼마나 속에 있는지 몰라. (구덩이 파갔고?) 나무 옆에서 죽기도 하고 그렇게 거기다 다 집어너버렸지. 아 궁게 불이나 안 지르고 갔으면 임자가 찾아갈 때도 거시기하고 그랬는디 아 불질러버린 게 개 마냥 꼬실러져갖고 사람들 모두 엉겨갖고 안 떨어지게 생겼제.

42:26 # 논에서 모평리 현장으로 pan 여러 번

42:47 # 논에서 도로로 pan

42:58 # 현장서 길로 pan ... 김형술 할아버지 걸어간다.

43:21 # 논에서 일하는 촌부, 움직여서 frame out

43:36까지

이금남 할머니

촬영장소: 쌍구룡 학살현장

* ... 차 지나가는 소리 자주...

43:41 # 이금남 할머니 중앙초등학교 앞 도로 변에 서서

A. 요 아래 성대마을에 사는데 아이 어서 가자 해 안 강계 총 개머리로 막 찌름시로 이년 안갈래나. 요년이 이 늙은 년이 우리 어머니 늙은 년조차 자식 할라 그런다고 막 총개머리로 찌름서 안 죽일 것잉께 가자고 그래. 안 죽일 것잉께 가자 궁께 참말로 이불 이고 옷보따리 이고 인자 그러고 막 돌이 서로 인자 포듯이 여기를 올라왔어. 저그를 올라옴서 우리 열세살 먹은 동생을 그래서, 너는 뭐시기 오지 마라 우리 어머니가 오지 마라 저리 할머니네 집으로 들어가서 구석장 속으로라도 들어가거라 그렇게. 우리 한아버지가 그리 가면 죽을 사람이 산대야? 그리 가도 죽어야. 그렇게 한 여나쁜 발이나 갔는디 이렇게 와부렸지. 와 갖고

44:37 # 학살현장 향해 걸어가는 뒷모습 follow

A. 인자 여그서 올라옴시로 막 저리 차근차근 저리 안켜. 차근차근 안킴시로 인자 느그들 살려준다고 여그 왔응게 살려준다고 막 그러더란 말이여. 살려준다고 그렇게 무조건 이고 막 담박질쳤제 그 때만해도 살려준다고 함께. 살려준다고 함께 담박질쳤는데 인자 거기 강계 다 이렇게 앙기라 해.

45:04 # 학살현장 향해 올라가는 정면 b/s

Q. 어디쯤이예요?

A. 차근차근 앙기라 해. 여기가 발인게 여 우게갔구마. 여가 그 전에 발이 있어, 여가. 그래 차근차근 앙기라 함께 대끼라 차근차근 안졌제. 안강계 어떤 사람이 나이가 잡순 양반이 오서, 톱을 들고. 그래 톱 들고 옹께 이자식 늙은 자식이 어디갔다와 중노인이나 됐어. 어디 갔다와. 그렇게 그래요. 그래요. 거시기 전 부선대(?) 비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늙은 놈 어디서 거짓말해. 탁 쳐부린다 말이여 여 앞에서 칼로 탁 쳐부링게 톱 떨어졌제. 그래도 그놈을 발로 차면서 살려줄게 일어나라 함께 일어나. 그래서 고 사람 그 사람 그래불고 인자 우리가 차지야. 우리가 길로 앞에 앙겨놓게 우리가 차진디 우리 한아버지를 불러내 이놈의 영감 나와. 좋은 말도 안해 이놈의 영감탱이 나와 그렇게 나강계 죽으러 간다 함서도 뭇사도 모르고 가제. 강계 우리 어머니가 오매 쪼까 살려주맨 오매오매 살려주맨 이제 나오라 해놓고 선이 인제 나갔는디 우리 한아버지는 거기서 그래부리고

46:29 A. 아이고, 그럴 정신도 없어. 그럴 정신도 없어. 내가 죽는다 그것도 없어.

그랬는디 간디 이렇게 강계 한아버지가 그렇게 가부리고 인자 우리들 오라고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나감시로 우리 동생 열 세 살 요것이나 살려주맨

요것이나 살려주든 우리는 죽어도 요것이나 살려주든 요것이나 살려주든 그래. 그래도 그 노므 선이 섰제 선이 선계 선이 가서 어머니는 길로 위게 스고 나는 제일 밑에 스고 동생은 가운데 스고 그래 인자 죽으러 가도 인제 그런 건 하나 걱정 않고.

47:12 # 잠시 섰다가

A. 여가 발잉께

47:15 # 다시 걷는 뒷모습

A. 발인디 인자 죽여갖고 여기서 죽여갖고 그 사람을 꺾고 가부리고

47:23 # 학살현장 앞에 서서 b/s

A. 우리는 인제 나와. 살라른 나가. (김용술: 그렇게 나 따라서 나왔으면 안죽었지.) 살라른 나가. 그렇게 대끼나 그래도 우리가 죽는다 함시로 저기서 기관총을 들어. 그래도 죽는다 함시로도 갔지, 그리, 발으로. 발으로 강께 우리 동생 가운데 서부리고 나는 제일 밑에 서부리고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나와. 살을 라른 암말도 마라 그럴라고 했는디 두 번 하고는 그런 소리가 없어. 그러고는 그 냥 팔팔팔팔팔 피 쏟아지는 소리. 오메 이제 다 죽어부린갑네 우리 어머니까지 다 떠메다 내뿌려버리고 동생까지 떠메다가 내뿌리고, 내가 살아서 눈을 떠본께 떠멜라다 다안 떠머. 안 떠멍께 한 사람 응 그런 소리 나 조까 살려주시요, 거기 서서도 그랬어 나 조까 살려주시요 살려주시요, 나 한나밖에 아니어나 나 조까 살려주시요. 그렇게 대끼나 한나가 떠짜 해. 한나가 떠짜 해 다 떠머 그 댐 너이서. 신체 한나에 너이서. 붙었거든. 그래갖고 어따 내뿌려부린께 어딘지도 몰라. 뚝뚝 물에 허부적허부적허부적허부적 안 죽었응께. 뚝뚝 물에다 빠트려 버링께 그 추위에 허우적허우적 해서 나와서 이렇게 붙어갖고 섰응께, 안졌응께. 우리도 문평 양반이라고 그 양반이 비쳐.(김형술: 그 판기씨라고) 그 양반이 비쳐서 (김형술: 판기씨여, 대구가 문평 양반이여. 그 때 청방이지 청방)

48:58 그 양반이 비쳐서 아이고 우리 식구 다 죽어버렸어라 다 죽어버렸어라 우 그렇게 그 양반이 그러더라구. 너 여기 딱 었드렸어라. 었드렸으면 인제 아무 기척이 없으면 나온다, 아무 기척이 없으면 나온다. 그 양반이 돌아가셨어. 판기씨가 판기씨가 아무도 기척이 없으면 나오라 해놓고 인제 같이 따라가버렸지. 너는 기척이 없으면 가라고. 나오니 갈 길이 있어야지 정신을 놔버려논게 어디로 종도 몰라 종도 모르는디 그 양반이 그렇게 가라 해놓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제라 그래놓고는 어디로 갈 지도 모르고 와서 있응께. 그 동네 노인 하나가 총한 방도 안맞은 양반이 그 양반이 가자해. 나는 성대도 못 찾아가겠스라우 성대도 못 찾아 가겠스라우 그렇게 나만 따라 가자. 나는 성대도 못 찾아가겠는디라 그렇게 나만 따라 가든 간다 그 양반이 가갖고 대끼라 나를 데리고 가 갖고는 얼마 안되어갖고 그 양반도 돌아가버렸어. 그래갖고 인자 참 집이라고 와서 보니 살 길이 있어야제. 그래갖고

50:24 A. 우리 어머니 그렇게 송장이 이리 었어졌다 저리 었어졌다 해도 그 사람을 었은, 거시기 한 사람을 다 밀어버리고 잡지, 가 가지고 죽은 송장이라도 밀어버리고 잡제. 안 밀어버리고 잡덜 안해. 항상 그 놈이 거시기 해갖고 내가 정신 이상이 또 되었어 한참은 그 상상해갖고. 그래 이렇게 할라고 그러든 잊어버린 말도 다 거시기 해 그렇게 내가 책을 써놓도 못하고 잊어버린 말이 많해. 그래갖고 찬찬히 인자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이 나와

51:06 (눈물 닦고) # 할머니 얼굴로 ZI

A. 그 동생 열 세살 먹은 동생 너이 식구 산께 아무 거시기도 없제. 동생 어리고 나 어리고 우리 한아버지 늙고 우리 어머니 거시기 허고 그러는디 뭘 활동을 했겠어. 암 **** 것도 안 허고 참 회의 참석에도 참 못나가고 그렇게 살았제. 그 때 어른들이 얼마나 수지 없어. 지금은 막 거시기 하지마는. 그래갖고 사는디 그 변을 당해부려 갖고 아이고 우리 동생만 살려놔어도 우리 동생만 살려놔어도 우리 동생이 얼마나 똑똑했는디. 그래갖고는 인자 나 혼자 가갖고 보니 나를 누가 찾아갈 사람이 있어야제 나 찾아갈 사람도 없어. 그래 우리 외아짐이 와갖고 가자 가자 느그 집안 문 닫혀서 어쩔까나 어쩔까나. 니가 죽고 느그 동생이 살았으면 얼마나 쓰것냐 그렇게 해 그래도 그런 소리고 저런 소리고 한나 서운하지도 않고 죽어버리고 없응께. 그래 난중에 생각항께 그것이 서운하더라고. 그래갖고 인자 뭘 살 길이 있어야제. 어디 가서 살 길이 있어야제. 집은 불타져 질러 부리고. 살 길이 없응께. 이 집 저 집 이리 가면 여 오라 하면 여 쪼까 친척집으로 요리 가고. 또 거 가서 있으면 또 거거서 여 오라 하면 또 그 집으로 가고 그 여오라 소리 안들을라고 결혼 안할라고. 뭘 속이 있어야제. 열 일곱살 먹은 것이 결혼이 뵈이여.

52:38 그리고 인제 살다가 결혼이라도 이렇게 해 갖고 사는디 뵈이 날마다 정신 이상이 거시기 그냥 동생 우리 동생 열 세 살 먹은 우리 동생 그 놈만 살려줬어도 얼마나 쓰것냐 이렇게도 우리 어머니가 청상과부로 살면서 그것을 믿고 살았는디 이렇게 같이 세상을 떠부렀다 이걸 생각하든 그놈만 상상해갖고 일도 하다가도 일손이 놔진지도 모르고 놔져. 놔짐스로 그렇게 정신이 이상이 되어부러 그 생각만 해갖고 밤나 날마다 그 세월을 긴 세월을 어떻게. 밤에도 저 월봉 가서 자는디 거기서 소개 우리 아짐 따라가서 소개 가서 사는디, 개나 되었으면 기어나가면 쓰것다. 새나 되었으면 날아라도 가든 쓰것다. 우리 어머니하고 동생 허고 들어간디 곳 눈에 가 보잉께 그럼 막 담박질 쳐서 이렇게 와 오른 그 마음은 잠시여 또 어마 나 봐라, 내 눈 *** 보고 뵈 쏘디 보고 그래도 또 그 마음은 없어져 그 마음은 없어지고, 오메 새라도 되었으면 개라도 되었으면 우리 어머니 저기 들어가네. 그리고 담박질 쳐도 와서 보면 그렇게도 허망할 수가 없지. 아이고 세상을 산 일 생각하든 어찌게 고생을 하고 살았던지 말도 못해. 그래 이렇게 험라 그러든 말이 다 치대 안 나와. 목이 매어갖고 그래 세상을 산 일 생각

하면 아주 어찌게 살았든가 싶고 우리 어머니 청상과부로 살았다, 우리 삼 남매 믿고 살았다가 당신 몸 희생한 일 생각하면 시집도 못 가고 재혼을 하라해도 그렇게 못 가고 우리를 믿고 살아갔지. 뭐 있거나 한다거나 그 때는 아무 것도 없지 벌어먹고 살 거도 없지. 살아가 이렇게 그렇게 밤나 하는 소리가 나는 하는 소리가 어찌든지 5중대 자식들 앞에 느그 부모 죽여갖고 꺾고 다닌디 원풀이 하게 꺾고 다닌디 봤으면 그것이 원이 없겠다, 항상. 느그도 우리만치 이렇게 속이 타고 느그도 우리만치 고생을 하고 살아라. 지금은 살기 좋아라. 어때 아버지 없어도. 그때만 해도 올때나 고생을 했, 한다고. 그래갖고 우리 아집이 이렇게 키워 갖고 출가를 시켰제. 인자 더 말이 안 나오네. 더 말을 할라고 해도 나오들 안해 버려

55:35 그렇게 정신이 얼롱 그 때 그렇게 정신이 이상이 되어갖고 깜박깜박해 지대로 다 못하고. 그래 항상 그놈이 원이지 동생 살려왔으면 참 가족을 이렇게 씨는 멸종을 안했을 것이다 멸종은 안했을 것이다. 선영봉제사 할 사람도 없제 그놈 삼남매 딱 믿고 살다 아버지는 죽었는지 사는지 몰라버리고 일본을 들어가 갖고 인자 다 했어. 더 할 말도 없어 인자

56:09 # 학살현장 맞은 편 기념비 세워진 곳 fs

A. 그렇게 집안에서도 그래 느그 *****우리 집안 어제 쓸 것들은 그렇게 죽어버리고 몸쓸 것들만 살았는가 모르겠다 항상 그러제 지금도 집안에서

56:24 # 기념비 쪽에서 길 건너 할머니로 pan

56:29 # 할머니 안경 낀 상태, 길 걸어내려오는 모습

A. 그 총이 나오면 눈을 딱 감고 봤어. 어찌게 그놈의 총에 정헌짝 나든지. 애기들도 총을 갖고 지금도 못 놀게 해여. 나는 그것이 사자다. 나는 사자다. 그럼서로. 내가 지긋지긋해야 그 총만 보면, 그리고 살아요, 지금도. 애기들을 총만 갖고 놀면 좋아서 그놈만 갖고 그냥 다 평겨버려, 나는. 그냥 총 보기도 징허다고

● 함평 1-2 동촌 양채문(자택) / 나산 이계준(자택)

양채문 계속

촬영장소: 함평군 월야면 자택

발목의 상처 보여주는

A. 다행이 빠는 안 다치고 그러니까 인자 그냥 피만.

발목의 상처로 ZI

A. 그런 걸 어이 어떻게 모르제. 그때 상처만 있고 피만 흘렀지. 인자 물론 총쏘

으니 총으로 맞았겠지. 뭐야, 다른 건 이상은 없어요. 그래도 다친 후로 한 몇 년 간은 그 통증이 있더라꼬. 하더만 그 때 지금 같으면 그 병원에 가고 그 때는 그 뭐야 호박 같은 걸로 막 싸고.

A. 또 죽, 거기서 살아나왔으니까 살아나왔다고 또 외간에 혹시 발견되면 또 죽어버릴까봐 그랬지. 거기서 살아나왔는디 죄는 없지만은 그 놈들은 죄인으로 알고 죽었을 것 아녀. 우리는 죄는 없지만은. 그놈들은 죄인이라 죽었다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무의식중으로 숨었지 뭐, 내가 죄가 있어 숨는다, 뭇이 어찌서 숨는다 그런 거시기는 아무 그런 거 없었어.

Q. 뭐가 제일 두려웠나?

A. (너털웃음 웃으시며) 죽이는 거, 안 죽을라고 그랬지.

Q. 혼자?

A. 이웃에 하나, 나보다 한 살 덜 먹은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 쯤그만해 갖고. 그 사람하고 같이 들어가 있었지.

A. 응. 나왔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은 죽어버렸어. 그 사람은 거기 찍인테서 나온 게 아니라 쪼깐하니까 17세 미만으로 빠져가지고.

A. 아니 그냥 병사했어.

A. 현장에서는 어떤 생각?

현장에서는 그놈들이 그때는 처음에는 설마 죽일라구야 했는데 나중에 알고 이렇게 보니까는 참말로 죽이니까 인제 살아야쓰것다는 의욕 밖에 없지. 그 때는. 그러나 거기서 살아나오기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기에도 기적이야. 어떻게 살아나왔다는 것이. 그렇게 세 명이 네 명이서 발로 차고 막 그랬거든. 그 상황을 피했다는 건 내가 생각해도 기적이라고 봐.

Q. 더 이상 하시고 싶은 얘기는?

A. 없습니다.

얼굴 손으로 쓰다듬으시고, ... 웃으시는...

궁게 뭐 정말 그 뒤로 살아나와서도 궁게. 그 뒤로 살아나와서 인자 편안하게 좋게 살았시야 응 하~ 그 때 내가 고생했다. 그 뒤로는 인자 생계 유지를 하는데 참 죽지만 앓았지 고생을 그마만큼 더했으니까 더해니까 아 참 살았다는 다행으로도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살았어.

할머니로 pan

할머니) 낮에는 구루마질허고 저녁이면 나하고 둘이 가서 논 묶어갖고 나락 묶어 갖고 실어 널 아침에 실어올려고 다 빼놓고 그러고 살았어.

A. 그렇게 뭐 그런 생활은 말할 것 없어

할머니) 그래놓고 저녁에 또 실어다가 또 나락 () 그리고 나중에 또 논일 가고 돈 벌라고 암 것도 없응게. 그런 게 인자 그렇게 고상울...

Q.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어떤 생각?

A. 돌아가신 분들은 다 자기 명대로 못 살고 그 때 아들 한나 있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럼 그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리잖아. 손이 없어져버리잖아. 그럼 그 사람들 참 안타깝고 잔해.

Q. 공비협력한 사람은?

A. 없어. 거기서 죽은 사람은 없어. 거기에 조금이라도 밑에 있는 사람은 미리 다 도망가버렸다니까. 우테로 도망 가버리고 집에 숨어버리고. 집에서 숨어버린 사람들은 또 살았어요.

그놈들이 그냥 말로 위협을 해서 안나오면 죽어버린다고 그냥 다니면서 그랬어도 집에 딱 숨어버리고 그런 게 찾고 그러겐 안했거든. 집 들어가서. 그래 숨어버리고 그런 사람은 살고 조금이라도 미심쩍고 아 내가 나가면 ()을 받겠다 하는 사람들은 미리 다 도망가버렸다니까. 순수한 양민들 아무 거기에 가담 없는 사람들만 집에 있다가.

Q. 아무리 전쟁중이지만 양민 확인도 않고...

A. 그런게. 그런게 그것이 제일 억울하다는 그것 자체. 말 한 마디라도 물어보고 너가 어떻게 지내느냐. 사실 뭐 죄가 뭐 일 했냐 라고 물어라도 봤으면 덜 억울한데 무작정 너 아무 그런 거 하고 싸부렀으니까. 그것이 좀 억울하단 말이야.

A. 다했어?

어둠 속에서 형체만 보이고..

A. 자식들이 나가서 .. 정남숙 할아버지 얘기 ... 하품

● 이계준 1. (일자: 2001-08-31, 장소: 함평군 나산면 우치리 자택)

A. 저는 전남 함평 나산면 우치리 613번지에 사는 이계준입니다. 나이는 집 나이로 칠십입니다. 또 과거 거시기 한 것도 얘기해야 해요?

Q. 함께 사는 가족?

A. 지금 현재 여기 거주는 내외만 살고 있어요. 애들은 전부 광주에 살고 있고 출가하고.

Q. 결혼은 언제?

A. 제가요? 스물 한 살에 했어요. (그러면 사건이..) 후조. 후. 열 아홉 살 때 사건은 났고 스물 한 살에.

Q. 해방 때는?

A. 해방? 아, 그러죠. 해방될 때 상황은 그 때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이고 어렸고 근데 우리 큰 집에서 회갑 잔치를 하는데 비행기가 몰썸 그냥 막 날아가고 해서 어서 전쟁을 하는갑다 그런 생각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날이 8.15 해방이 됐드만이라. 근데 이자 만세를 많이 부르거나 한 것이 나오는데 사실상 촌에서는 그 때 해방된 거를 몰랐어요. 촌에서는. 나중에사 듣고 해방되었다는 거 알았지. 그 날 해방되었다는 건 촌에서는 몰랐어요.

Q. 서울에서는 거리로 다 나와서...

A. 그렇게 도시에서는 알았는데 촌에서는 나중에사 듣고 아, 해방되었구나 한 것을 알았지, 그 날 해방되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지금 마냥으로 방송이 뭐 이런 다거나 전화가 연결이 돼서 뭐 이해가 된다든가 한다 말어요. 그렇질 않았기 때문에 몰랐지요. 귀먹어갖고 전혀 몰랐죠, 그때는.

Q. 해방때 느낌? 어땠나?

A. 어렸고 또 특별한 뭐 별 느낌은 못 가졌죠. 그때는 뭐 잘 모르니까 국민학생이고.

A. 거시기 양민학살 사건? 어 그 때는 학교 다니고 있었죠.

A. 육이오 전쟁? 어 육이오전쟁은 거시기 학교 중학교 당길 때니까 육이오 전쟁이 난 것을 알았죠. 그러고 방학을 해주면서 그때 7월 25일이던가 뭐 할텐데 바로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더라, 교장이. 그러고 신문 같은 것은 아군이 진격을 해가고 어찌고 그렇게 엉터리로 많이 났는데. 여기 와서 있으니까 그 이튿날 인민군들이 들어다 었다구 우리 동네에 그러니까 장성왔었다 해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방학 해주면서 빨리 집에 돌아가라고 그러지.

A. 방학한 그 이튿날 여글로 왔더라구요. 소 구루마, 말 구루마 동원하러 왔어.

A. 그 때 신문도 촌에서는 안보는 판이고 또 라디오는 방송도 듣도 못하는 판이고 전화도 없고 그러니까 구두로 구두로 해서 전해지는 말, 에 그런 말로 해서 소식을 아는 경우였고

또 유언비어가 있어도 모르고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Q. 인민군 들어왔을 때 마을 주민들 반응?

A. 저기 저 오는데 다리. 거리 그 좀 그전에 사상에 좀 연루된 사람들이 나가서 환영을 했는갑다, 나중에 들은 소린데. 뭐 인제 동네 들어와서 결국 소신껏 하는 얘기로 인사할 때만 봤지, 인자. 하지만 남은 것은 없고.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우마차를 동원하러 왔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거나 누구를 거 혀도 않고, 없다 그러더라구.

Q. 인민군이 계속 마을에 남아있었나?

A. 그라 안 했죠. 거시기 그 때 와서 동원해서 가고 자기들이 쪽 목포까지 내려가고 하니까 점령하는데 고리 내려가고 인민군들이 여그엔 없고 거기에 활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는 인제 장악하고 있었지. 그래갖고 인공치하가 됐지.

Q. 활약한 사람들이란 누구?

A. 해방되어 가지고 공산당에, 남로당 거기에 가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잔재가 좀 있었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인자 여기는 인자 인민위원회, 에 말하자면 면 단위면 인민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면 면장이지.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런 거 조직하고 또 지서 지서도 지서직원이나 지서장을 여기 사람들이 하고 그렇죠.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이예요.

Q. 그게 언제까지?

A. 그것이 수복 전까지 계속 그렇죠. 수복 전까지.

Q. 마을에 국군이 들어온 건?

A. 구이팔 수복 후로 여기까지 오는데 한 그 때가 십일월 경에나 여그 아마 여그는 거시기 진주했을 거요. 군인 경찰이. 11월 경에. 제가 알기에. 11월 경에. 그 전엔 진주가 안돼고.

구이팔 수복해갖고도 차근차근 인제 그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점령을 해 내려오니까.

Q. 처음에 군인들 처음 본 기억?

A. 그것이 오래돼 놔서 제대로 기억은 안나고 그 소재지 나가서 거시기 보고 그냥 거시기 했죠.

Q. 국군 들어왔을 때 주민들 반응?

A. 예 그런 얘기만 들었지 인자 환영한 거는 보지를 못해고, 국군이 들어왔을 때는 인자 환영하는 이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 보지는 못했죠.

A. 함평읍이면 함평읍 면이면 면 단위를 와서 진주하면 진주했다 소문이 나고 그 뒤로 얼굴을 보는 정도고 그렇게 되지.

Q. 방학하고 집에 와서 뭐하고 지냈나?

A. 방학하고 와서 집에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인민군들이 여기 와서 있으면서 인공치하가 됐지. 그래서 거시기 한데 그 때가 가을철 닥치니까 일도 하고 어리고 하니까. 아 그 때 그렇게 크들 얹고 어리고 하니까 뭐 어디 활약을 하든가 뭐 그런 것이 없고 그러고 과거에는 지금은 참 십여세만 돼야도 참 몸도 좋고 다 숙성해 비고 그런데 과거의 사람들은 못 먹고 어 지내고 그랬기 때문에 나이가 먹어도 참 적었어. 좀 착했어. 그 때는. (손짓 해보이며) 열아홉살이면 지금 같으면 이렇게 크겠지. (웃으며) 근데 열아홉살 먹었지만 나도 열아홉이지만 중학생이지만 학교엘 좀 늦게 들어가서 그래서 일제때는 학교를 들어가는디 집의 나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호적 나이로 하기 때문에 나이가 적다 해갖고 두 살 또 나이가 줄어져 있어요. 호적상. 학교를 늦게 들어가서 같은 학년인데도 2년 3년 선배까지 있어요.

A. 거시기 그냥 수복해갖고 그 이후로 국군이 쪽 여그는 쪽 장악을 했지요.

Q. 주변 마을 상황?

A. 그것은 그 때 당시 수복 후로 어찌냐면은 아까 책자도 보셨지만은 사실상 그 때 당시는

낮에는 대한민국이 되고 밤에는 인민공화국이 되고 처음엔 그랬어요. 그러면 낮에는 군인들이 거시기 하고 허니까 지가 제대로 활약을 못허고 인자 그런데 밤에는 산에 가 있다 내려와 갖고 전부 그 사람들이 와서 쌀 뒤라 뭐 뒤라 항해 사실상 밥을 해뒤라 그러면 밥도 해주고 해야 살지 그래 안 하면 안되고 그 사

람들한테 죽고 그런 생활을 했어요. 옛날 분들이

근데 그 밥해주고 해서 자수한 사람도 공산당이다 해서 심지어는 머리 들도 못허고 헌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사실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뭐 사상을 똑바로 가지고 한 사람도 없고 또 여기서도 활약한 사람들을 과거에 봤고 따라가서 죽은 사람들도 봤지만은 참 공산주의에 대해서 책 한권이라도 읽어보고 아는 사람들이 활약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말 듣고 그저 따라가서 활약하다가 죽고 그랬지.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보면.

Q. 어머니도 밥해준 일?

A.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 때 당시? 우리 어머니가 쉰 아홉이셨어. 그러면 지금은 육십세까지도 젊고 한데 옛날에는 못 먹고 살고 또 노동 막 많이 하고 하니까 건강이 나쁜 사람은 사십세부터 이 지팡이를 짚고 다녔어. 사십세부터. 옛날 사람들. 그리고 장가시집도 열두세살부터 가고.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사십 살이 손자 보고 그랬어. 옛날에는. 그때는 인자 우리 집도 어머니가 노인이시고 누나들은 다 시집 가고 안 계시고 내가 장남에다 막둥이에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마흔 한 살에 낳았어. 그래갖고 쉰 아홉에 돌아가시고 나는 쉰 아니 아니 저 열 아홉에 인자 내 나이는 그 때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노인이시고 그러니까 밥 같은 걸 해 달라고 안 했지.

(아버님은) 한 살 더 자셨었고, 나이가. 그 뒤로 계시다가 여른 한 살 돼서 돌아가시고.

Q. 주변 마을의 학살 소식?

A. 저는 수복 후로 학교를 다닌다고 함평 가서 있었고 그 때 당시 사건 당시 여기 있을 안했어요. 나중에 인자 듣고 해서 알지 직접 제가 목격을 하거나 본 것은 아니고 그랬죠. 근데 나중에 듣고 월야가 먼침 사고가 났는데 월야에서 모으러 해가지고 무차별 난사하고 양민학살했고 또 여 해보 거 있을 때 했고 그러니까 오중대 그 사람들을 만나며는 무조건 죽는다. 그 사람들은 무조건 불을 집에다 지른단다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온다 하면 도망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그렇게 됐어. 그래서 사실은 이 동네가 피해자가 적은 거야.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도로가 아니라 거시기 하지만 그 때 도로가 조그만 도로가 있었지만 그 때 옛날에 저 셋길 적은 길로 원님 다니는 길이라고 요리 있어요. 해보, 그러면 이렇게 해보 모평 있는데서 이렇게 넘어오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서 넘어왔어. 그 군인들이. 그러면서 이 뒷동네서 총을 쏘고 사람을 몇을 죽였어. 그러니까 총소리가 나니까 알제. 그리고 또 모평을 그 안에 와서 사람을 죽였어. 또 송대 가서도 죽였어. 그러니까 다 소문이 나서 알지. 그 사람들만 만나면 죽는다. 그러니까 인자 총 쏘고 온게 온다 한게 도망할 수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도망을 했지. 있으면 죽이니까. 헌게 저쪽에서 오면서 살라른 오라고 하면서 총쏘는디 도망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했고. 인제 여기 있어 갖고

죽은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나. 노인들, 그 때 당시로는 오십 넘으면 아주 노인이나. 극노인이거나 뭐 죄도 없고 또 도망할 수도 없고 한 게 그 노인들. 또 인자 애기 막 낳아서 업고 인자 도망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오십세 이상이 6명 에 8명 되거나 8명 되고 애기들 5세 미만 애기들이 6명, 또 남자는 이십 팔세짜리가 하나가 죽었는데 그 사람은 불구자. 그것이 다리를 절어. 도망을 못 해. 그래서 그것이 하고. 애기 딸린 여자 그렇게 해서 이십 일 명이 죽었는데 그 도망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만 거시기 해갖고 여기 와서 참 집에다 전부 불을 다 질렀어. 지르고 전부 마을 앞으로 나온다. 그렇게 됐지. 그래가지고 앞에 이자 가보시면 알겠지만 현장에다 모아놓고 기관총으로 난사를 해버렸어. 그래서 거기서 살아갖고 생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살다 죽어버렸고, 한 분은 그러께 야든 아홉살 자셔갖고 그러께서 돌아가셨는데. 팔이 여가 잘라졌는디 가족이 불어서 떨어지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덜렁덜렁해 그래 갖고 살다 돌아가셨어.

Q. 그 때 함평군에 계셨나?

A. 함평 아 저 그 때는 농림 중학교라 했지. 지금은 함평 중학교이다. 거기를 다니는디 학교 다닌다고 함평읍에 가 있었죠. 저는 인자 그랬죠. 그러나 여기 인제 사건이 났는데 거시기 그 때는 전화도 없고 뭐 없어도 어떻게 기별을 봤어. 사건이 났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근데 그때만 해도 함평하고 여 나산하고 대동면하고 나산 경계가 산이 이렇게 양쪽에 있는데 그 산에 가 반란군들이 있다가 경찰차가 오면 포위해갖고 총 쏘고 습격을 잘해. 헌게 통행금지가 되다시피 했어. 또 그러고 함평 여 나오는 입구에 딱 지켜 못나가게 하더라구, 그런 게 여서 여기지만 와 보지도 못했죠. 그래 가지고 삼개월 후에 어머니 묘를 그 때 그냥 당하고 보니까 여기 밭에다 그냥 썼는데 3개월 후에 이장할 때 그 때사 와서 어머니 얼굴을 보게 됐어요. 보게 되니 3개월 후니까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 그래도 내 부모라 손등을 보니까 조금 알겠더라고. 손등을 보니까. 그리고 얼굴은 알아볼 수도 없고. 그런 게 여기서 얘기지만 3개월 후에서 어머니를 보고 그랬어요.

Q. 어머니의 시신은?

A. 그것은 저는 아까 얘기했듯 함평에 가 있었고 여기 가족들이 인자 찾아서 매장했지.

Q. 여기 가족들?

A. 우리 아버지가 계셨고 또 아버지 형제분이 육형제분이 있는데 넷 다 돌아가시고 또 서울에 살고 뭐 한 게 인자는 흩어졌는데 그 때는 여기서 살고 그래서 식구가 더 많았죠. 근데 아까 말한 바 같이 그 날이 시장날이었어. 나산. 그래 나산 시장보러도 갔고, 또 온다 한계 달음질할 수 있는 사람은 도망해야 사니까 도망했고 그래 살고. 아까 얘기한 바 같이 도망 못한 사람들, 죄도 없고, 나이 먹고, 애들, 불구자, 그런 사람들만 그렇게 희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월야나 해보

서 그렇게 '그 사람들 만나면 살려두들 앓고 다 죽어버렸다'허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피해서 희생자가 적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 안하고 가만히 보다가 안 도망가고 있었으면 훨씬 더 많은 희생자가 났죠.

Q. 당시 집에는 어머니만?

A. 그런 게 세 식구였어요, 우리는 그 때. 에 근데 나는 함평 가 있고 아버지하고 어머니만.

아버지는 시장에 나가시고 안계셨고 그래 갖고 어머니만 계시다가

Q. 함평에는 언제부터?

A. 학교 다니다가 방학해서 왔는디 인공이 되야갔고 여서 있다가 11월 확실한가 11월 5일 경이나 생각하고 있는디 그 때 함평으로 여기 수복을 하니까 학교 다니러 간다고 함평으로 가서는 있었어요. 제가

Q. 사고 소식 언제 들었나?

A. 그 날 오전에 여기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오후 늦게 대충 들었죠.

(잠시 끊김 - 누군가 찾아와서)

Q. 어머니 시신 처리?

A. 그런 게 그 때는 인자 관도 못 거시기하고 그저 그냥 거시기 그저 흩어붙 같은 것으로 흩어붙이 그 이불 껍다. 그걸로 꼬셔갖고 밭에다 그냥 매장을 했다. 그런 게 이제 나중에 이장을 할 때사 관이 있었지. 관도 없이 그냥.

Q. 3개월 후?

A. 그 때가 이장할 때. 현재의 묘소로 이장을 했죠.

Q.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3개월?

A. 오지도 못하고 3개월 후에 왔으니까. 내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오지 못하고 3개월 후에 와서 봤을게 기가 맥힌 세상을 살았제. 아 그러고 또 사실상 내가 아까 얼핏 얘기 했지만 3남매의 막둥이에다 독자인데 어머니 돌아가셨는디 와서 얼굴도 못봤으니 참 기가 맥힌 세상을 살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셔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나중에 무지한 고통을 받고 학교를 다닌다고 다녔지만은 경장히 어렵게 참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어요. 지금 대학 시험보다도 고등학교 졸업한다는 것이 드물고 내가 고등학교까지 나온 데도 중학생이 없었으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 나온 것보다도 고등학교만 나와도 상당히 알아주는 판이야, 그 때는. 요사이는 대학생이 웃다리 밑에가 **** 그런데(웃으며)

Q. 돌아오지 못하는 3개월 동안 어땠나?

A. 그런 게 참 오지도 못하고 울어봤자 울음으로 해서 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다녔죠.

Q. 어머니 이장하고..?

A. 거 가서 또 그 학교를 다닌다고 갔는데 이 얘기는 여기엔 물론 해당은 안됨

니다만 규율부 요새 같으면 그 때는 학감인데 학교 다닌다고 등록을 하러 간 게 학교 교무실에 목청이 이렇게 있고 한테 심사를 받고 왔냐고 하더니 안받고 왔다고 하니 가 받고 오라고 지금 규율부지 학감들한테 갔어. 갔더니 너 뭣해 먹고 왔냐고 그러더라. 아, 나 뭐도 해먹은 거 없다. 안해먹었으면 시끼야 니가 거시기 어떻게 살아서 와야. 해 퍼먹었으니까 살아서 여기 왔다 이거여. 뭣해 먹었냐고 막 두드러.. 안해 먹었다 한 게 불으라고 막 두드러. 사흘을 맞았어. 사흘을 거기서 내중에 양*이란 사람이 막 울더라. 나하고 동갑인데 그 사람하고 가서 사흘을 죽게 두드러 맞아 버렸어. 그래 갖고 어려서 누구한테 또래 안질 정도로 그런디 어혈을 못 풀 정도로 그러게 맞고, 그래갖고 아파서 내가 날이 거시면 요렇게 돼 갖고 요게 퍼지들 안해 10시 넘어 돼야 이게 퍼지고. 다리가 붓고 발등이 붓고 막 거시기하고 그래서 경장한 고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사이엔 인자 그 돈이나 있는 사람들이 먹는다 옛날에는 뱀 먹는다고 하면 아, 치욕스럽다고 그냥 추태... 그랬거든. 근데 하도 그걸 먹어야 된다 해서 그걸 잡아서 먹었어. 그렇게 그때만 해도 () 야들이 이려고 나보러 폐병환자라고 그런 세상을 겪고 살았어. 몸 아파서. 한 몇 년을 경장히 고생을 했어, 몸 아파서. 두드러 맞아 갖고 그 어혈을 못 풀은 거니까. 사흘을 죽게 맞아버렸당께. 거 가서 그런 생활까지도 겪었어. 해도 안했는데 불으라고 허시요. 안해 먹었는디 뭘 사람을 죽이도 않았는데 죽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뭘 가담허도 안했는데 했다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인데 안했당께 두드러 니가 그럼 어떻게 살아왔나 그것이야. 사흘을 죽게.. 그 때는 지금이니까 참 별 소리 다 하네. 총으로 딱 쏘서 누가 죽어부러도 어디가 항의를 못해. 죽어부러면 죽은 사람은 그걸로 끝나부러. 죽은 사람만 불쌍한 시댁게 그 때는. 아, 총 갖고도 너 이 새끼 말 할래 안 할래 하고 갖고 와서 쏘 죽인다고 위협하고 그러던데. 그런 시대가 없어. (어떻게 나오셨어요?) 아니 그런 게 감옥은 아니고. 그러니까 거시기 지가 심사한다고 하면서 말하자면 그 내가 법에 가담했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그렇게 두드러고 심사를 했다 그 말이야. 뭐 감옥은 아니야.

Q. 심사가 끝나고?

A. 그렇습니다. 학교는 다니는데 다니지만은 선배도 있고 동급생도 있는데 그놈들한테 맞아갖고 학교를 다니고 몸도 안 좋고 징그럽지 학교 땀길 생각이 안나지 도저히. 그래서 그냥 ()이 돼갖고 한 서너달 또 놀고 그래갖고 고등학교는 도저히 땀길 생각이 안나 거기서. 그래서 그냥 광주로 나와버렸지. 그냥 얼굴도 보기가 싫지. 어떻게 거시기 징하던지. 그래서 그냥 광주로 나왔는데 그렇게 맞아서 거시기한 학교 제대로 땀기면서 공부도 못허고 휴학도 하고 그러면서 졸업을 했어. 몸이 아파서 갔으니까.

Q. 언제까지 아팠나?

A. 그래가지고 그 한 삼십살 가차이까지 몸이 안좋았죠. 안 좋았어.

Q. 결혼은 언제?

A. 고등학교 다니면서, 3학년 때

Q. 결혼해서 어디에 살았나?

A. 우리는 여기 살고 처가집은 저 **텐데 그때는 가마 타고 말 타고 그렇게 가거든. 가마 타고 가 갖고 신부네 집으로 가서 지내고 거기서 자고 인제 그 이틀날 신부 데리고 오고 옛날엔 그랬어. 그렇게 했어. 학교 다니니까 도로 가서 학교를 다니고 인자 처는 그 때 그 집에 손대가 없다고 해서 그 집에서 한 동안 생활을 했고. 토요일날 집에 오면 이제 고리로 가서 자고 그랬지.

Q. 전쟁이 언제 끝났나?

A. 전쟁이 오십몇년도에 끝났는가? 고등학교 거시기 할 때? 그 때가 안 끝났을 거여. 아마.

거시기 그 하루살이 소위할 적인데 간부후보생들 거시기 해가지고 그냥 육개월 훈련받고 가서 앞에서 뒤에다 빵 썬버리면 죽어버리니까 하루살이 소위라 했거든. 근데 우리 거시기 할 때 간부후보생으로 간 사람들이 산 사람들은 영장을 다 붙였재 거기 가서 많이 죽었으니까

군대 가서 살았다고 하면 영장 달았지 나도. 근데 몸도 거시기 하고 군대를 안가고 기피해버렸지.

Q. 고등학교 졸업한 후?

A. 몸도 안좋고 그래서 거시기했는데 시험본다고 공부도 옛날에 보통고시 본다고 했는데 나중에 없어서 버려서 한 번 보고는 못 봤는데 내중에는 군대를 안가노니까 책까지 사다놓고 공부를 하는데 기피자라 이자 시험보러 갈 수도 없어. 여기서도 징병조사하고 잡고 그러니까 그래 시험도 못 보고. 결국에 말았재. 그냥 기피생활하고 군대를 안가고 인자 있다가 오일육 바로 나서 자수해갖고 인자 수방사업으로 해서 인자 그놈을 또 면제 있다고 해서 하고 이렇게 한 뒤로사 인자 활동을 했재 그러니까 예닐 년 늦었죠. 공직에 들어가서 있다가 정년을 했재.

Q. 어머니 문제로 피해?

A. 그거야 많았죠. 그것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호구조사 카드가 있어. 각 호마다 카드가 있어. 경찰에서 갖고 있는. 그럼 거기다가 식구여 인적사항이야 재산이야 뭐 다 적어 자기들이 조사해서 적고 안 보여주기 때문에 몰라. 그걸 잘. 그 카드를 갖고 다니는 사람도. 근데 그 사람들이 뭘 적어놓았는질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울 어머니가 억울하게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또 생각도 안했고 했는데 제가 그냥 공직에 들어가게 되는데 신원조회를 하게 된 게 그 문제를 얘기를 해, 거기에서. 그래서 아, 참 해꿨는데 그런 것도 꼬투리를 잡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때 당시 지서장한테 닭발이나 잡고 해서 대접하면서 잘해주라고 사정을 했재. 그래서 했더니 다행히 통과가 되어서 공무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때사 비로소 아, 그 문제를 이렇게 거시기 공산당 계열로 보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제. 아무런 뭐 활동한 것도 없고 헌데 그런 갑다 하는것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고 기록하는 것도 안보고 했으니 모르니까. 아, 그런데 지금 우리 큰애가 광주 대광여고 거서 선생질하는데 86년돈데 신원조회가 왔는데 지서의 차석이 매라고 하느냐면 아들이 어디 학교 선생질을 나갈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런다고 아, 신원조회가 나왔는데 지서로 좀 오시오. 장날이야 시골은 장날은 바빠요 민원도 많고 4일 9일이 여그가 장인데 또 내가 민원실장을 하는 판이란 말이야 그래 바빠. 그래서 아 내 점심때쯤 갈께. 그렇게 알소 그랬는데 아 이 사람이 내중에 갖고 왔어. 갖고왔는데 뭐 보니까 싸인펜으로 뭐 큼지막하게 써졌어. 이상해. 그래서 볼랑 게 안보여줄라 해서 탁 쳐갖고 읽어봤제. 아 읽어본 게 기가 맥혀. 1951년 1월 14일 여자 유격대원으로서 아군과 전투에서 사살된 자임. 거 본 이거이 뭐 불뚝 솟는 놈의 소릴 그렇게 써놔. 기가 맥혀버린다고. 아 쉰 아홉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인이고 또 여자 유격대이라곤 거시기 있는가 없는가도 모른데 그런 말도 못 들어왔고 아 그리고 또 우리 집안에서도 거기에 활약한 사람도 하나도 없었고, 옛날부터. 아 근데 그렇게 해 놔어. 그래서 하도 기가 맥혀서 내가 선생질 안해 먹어도 우리 굶어죽들 안해. 김일성이 직속이라고 써버리라고 내가 그랬어. 어찌 부애가 나던지 내가 그래버렸어. 그리고는 이상 노무 새끼들 관제에 고발을 해버릴란다 그냥 욕을 해버렸제. 그랬더니 이제 서로 또 얘기가 되었던가버. 뭐 서의 형사가 나 아는 형사가 전화를 하더니 아 형님 무엇이 어찌서 뭐 그런 얘기를 하쇼 이만저만 한다니까 그러냐고 그 한 번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러드만, 왔드만 점심을 내가 사면서 죽 얘기를 하니 인자는 뭐 어떻게 고쳐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시기 경위서나 한 장 써주라고 사실. 그래 사실 경위서를 죽 써줬제. 우리 가족에서는 가담한 사람도 없고 () 사실도 없고 써달라고 써주니까 다행히 신원조회가 통과가 되어서 현재까지 선생질을 하고 있는데.

아 그래서 그 때 보니까 이것이 완전히 공산당을 만들어버렸더라구요. 그것이 기가 맥힌 일인게. 그리고 그 전에 사실상 거시기 그 문제에 대해서 내중에라도 애들한테 어떤 피해가 있으면 안되겠다 해서 밥해주고 해서 자수한 사람이 육군 사관학교에 들었는데 글로 해서 아들이 사관학교 탈락을 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자살했다는 얘기도 들었고 뭐 그런 누를 끼치게 되면 안도냐서 경찰한테도 협박을 주면서 그걸 좋게 해달라고 했어. 해주마 해서 그랬는데도 먹어버리고 이 새끼들이 그대로 해서 그렇게 넘어와버렸어.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그 기가 맥힌 꼴을 당했고 그것이 연좌제 문제에 대해서 대학교수까지 나와서 쓰냐 하는 데 거시기 지금 여기도 테이푸가 있는데 거기 나도 들어있고 헌디 그 지금 말로는 연좌제가 폐지되었다고 하지만은 실속으로는 되었다고 볼 수가 없어. 그것이. 그리고 그때 당시 연좌제를 폐지한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장을 헌께 김종갑이 그 91년도 거 한나라당 거 아주 우익의 우판데, 내가 연좌제 문제는 전부 있는 그 문서를 수집해서 꼬실라 버리기 전에는 도저히 거시기 폐지됐다고 볼 수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제.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남북통일이 되기 전에는 이 문서를 또 없앨 수가 없다는 거여,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 거서. 그러니까 이것이 말로는 폐지가 되었지만은 폐지된 것도 아니고 옛날에 보도연맹 마냥으로 가사 전쟁나면 고놈 갖고 너 오라고 해서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날 지 몰라.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는 것이지. 인제 거시기 한 사람들은. 만약에 전쟁나면 어찌나 해갖고. 함부로 뭐 거시지 가담도 않고 아무런 죄도 없는데 이렇게 양민을 학살해놓고 관제공산당까지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가 맥힌 것이지.

Q. 본인이 공무원될 때는 그 내용 몰랐나?

A. 그 때는 그러대. 거시기 아까 말한 바 같이 그 아들 거시기 할 때는 써갖고 온 놈을 보고 내가 봐갖고 알았고 그 때는 지서장이 뭐 걸린다고 하면서 어머니가 뭐 돌아가시고 어찌구 했다고 걸린다고 헌께 양민학살을 해놓고도 이렇게 공산당으로 모는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제. 그때는 서류 같은 걸 보달 못하니까.

Q. 이 문제로 취재?

A. 그렇게 거시기 와서 인터뷰 부분 한다가 할 때 많이 이 얘기를 했죠. 뭐 거시기 유족회 결성한 후에부터 인자 최근 쪽 와서 그랬죠. 그런 게 쪽 얘기를 하고 그리고 거시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연좌제 문제 그것이었는디 여기서는 나만 들어갔지 여기서는 함평서는. 근디 고것할 때도 했고 헌데 한 시간 너머 하더니 말은 두 마디 나오고 말아버리더라 지금 우리 집에 테이프도 있당게 그것이. 대학교수들까지 열 여섯인가 일곱인가 나와서 서로 얘기를 하는디 요렇게 중복된 거 빼고 요렇게 주장하든 또 거기서 반박하는 거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내가 연좌제는 폐지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고 주장을 하니까 김종갑이가 다음에 이걸 완전히 없앨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나옴디다 내가 보기엔.

Q. 유족회 전까지는 하소연 할 데도?

A. 하소연도 못했죠. 그런 게 실은 그것이 진정서를 내든지 뭐 하소연을 할라고도 몇 번 생각을 했는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라도 월급 타 먹으께 차마 못하고 말았어. 허허(웃으며)공무원이라

Q. 다른 사망자들은 어떻게 처리됐나?

A. 그렇게 그 연좌제 문제는요. 지금 이 가만 있는 사람은 그 어떻게 처리됐는지 잘 몰라요. 자기가라든가 나 모양으로 자기 자식이라든가 하사, 거 신원조사라고 참 심하게 하는 사관학교 같은 델 들었다든가 했을 때 제대로 알 수가 있죠. 이것이. 그 전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를 몰라요. () 누가 묻지도 않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몰라 어떻게 돼 있는지를. 근데 내 경우는 아까 그 호구조사 카드 얘기할 때요? 그런 게 그 어째서 그렇게 되었냐, 하는 것을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순경하고 싸운 것이 있는데 글로 그런 목립을 내버린 것 같더라고 허, 그것이.(이마 굽으며 계면적은 웃음) 아 집안 당숙 제사를 지내게 됐는데 돼지를 잡는다 요놈이 와서 좀 돈을 먹고 싶던가 와서 시비를 하고 지랄을 해. 압수를 하고. 그래서 아 이 촌에서는 돼지잡고 해서 손님 대접하는 거는 상례지 않냐 근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랄을 해. 느그 할아버지 돌아가셨으면 느그는 돼지 안 잡냐 막 싸우고 경장했제. 아 그랬더니 그 자식이 호구조사에다가 그렇게 목립 풀이한 것 같애. 내중에. 아 그렇게까지 () 써는 것을 본 게 그놈이 그랬지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그 자식이 내중에 뭐 계까지 어디서 해 퍼먹고 그만 됐다 하드만. 그놈이 한 거 같애. 내 가늠하면. 그렇게 뭔가 사실도 없는 소리를 그렇게 써 놀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A. 그런 게 방금 얘기한 거라 신원조회를 해본 사람들이 아니면 모른다니까 연좌제에 관련이 됐는지 아닌지를

(노병량) 그것이 비밀적인 거시기라 거...

A. 아 그렇게 특히 사관학교 같은 데는 심하게 하거든. 와서 직접 거시기 해서 내가 해명도 해준 예도 있고 인제 하여튼 우리 동네에서 사관학교에 들었는데 이름이 즈그 아버지 이름이 서이가 똑같은게 뭐 도로 파괴하고 방화한 사람이 나오고 어찌고 한 게 의심을 사서 내가 호적이며 증명이며 싹 놓고 이 사람은 이려고 이 사람은 할려고 안할려고 해서 내가 참 구분해서까지 얘기해줘서 통과 돼서 사관학교 간 예도 있는데 안해보고는 몰라. 그런 게 아까 얼핏 얘기했는디 밥해주고 자수를 했는디 사관학교 아들이 들었는데 신원조회서 떨어져서 자살해 버린 사람도 있다고. 내가 그런 얘길 안해. 그런 일이 있어. 그래 이제 지금 현재 육군본부 중장인데 뭐 국장이더만 이원형이라구 여기 나산 이상길씨 아들인데 그도 그 사람이 육군사관학교를 들었는데 저그 가족이 육이오 사변 때 공산당한테 죽었어. 아 그렇게 깨끗하제. 깨끗하고 한 게 상길씨가 자기가 면장을 하면서 술 한 잔도 안 받았어. 그러믄 그제는 신원조회가 오믄 술을 받든가 그렇게 대접하든가 다 그렇게 주는 게 상렌디 싹 씻어버렸어. 내가 깨끗한데 그럴 거 뭐 있냐고 싹 씻어버리니까 거가 처가가 어디냐면 월야야. 월야야. 어디라고 그러더라 거가. 처가가 거가 긴디, 와서 죽 해본 게 서손이 당시 활약을 해버린갑더만. 당시 외숙되던 사람이. 아 그렇게 글로 해갖고 딱 떨어져버렸네. 신원조회를. 아 그렇게 인제 상황서를 넣고 뭐도 했지만 () 떨어버린제 그래 갖고 못 가버렸어. 그 이듬해 다시 시험봐갖고 사관학교 들어가갖고 근무하다가 참 여쭙에서 정권 잡은 통에 아유 그냥 거시기 별 달더니 중장까지 돼버렸어, 지금. 아 소장 아 그렇게 됐어, 그것이. 그렇게 되야. 내가 얘기하니까 알더만 친정어. 알더만 월야에서도 그 외가를. 근디 그 얘기 한게 진재씨랑도 알더라구. 그런

게 그 서손 외숙이 활약을 했는디 그걸 보냈당께.

Q. 어떻게 해결?

A. 억울하게 모다 돌아가시고 했는데 에 그 분들을 갖다가 지금까지 공산당으로 거시고 가족도 공산당으로 몰고 또 그래서 이때까지 피해를 주고 또 그랬는데 그래서야 되겠어요? 돌아가신 분들 명예회복도 시켜줘야 되고 또 그 가족들을 명예회복도 시켜줘야 되고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한테 누명을 언제까지 뭐 씌운다는 것은 말도 안되겠지요. 우리는 참 사실상 지금 오 중대장이 살아있다 그러면요, 나 인자 여생도 얼마 안 남았고 내가 안다믄 가서 내가 찢러 죽여버리고 내가 죽을박 잡더라도 헐 그럴 용기가 있어.

그렇게 지금도 분이 남아 있어. 우리는.

Q. 어머니에 대한 기억?

A. 지금도 내 현재는 어머니를 잊지 못하고 어머니 얘기하라고 그러믄 눈물 나오지요, 그럼.

Q. 떠오르는 것?

A.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삼남매에서 내가 막둥이에다 장남인데 마흔 한 살에 아들이라고 나를 낳았고 한데 학교 다니고 어리고 한 게 날 여우(?)도 못허고 돌아가셨으니 참 눈을 제대로 감고 가셨겠어. 그러니까 참 한이 되잖아, 지금도.

... (눈물 참으시려고)

11. 나주 세지면 동창교



장 권준옥)가 함평군 원야, 해보면의 빨치산을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무고한 양민 524명을 학살

(2) 경과

◇ 나주시 세지면으로 이동

1951년 1월 20일 영산포를 경유하여 세지면쪽으로 진군해 왔다. 이유는 세지면을 진주한다는 것이었다. 함께 온 사람은 면장, 구국연맹회원, 청년단, 유지들과 경찰과 4명으로, 진주를 환영한다는 뜻이었다. 일행중 한 사람이던 구국연맹 소속 강길만씨(세지면 오봉리)의 증언에 의하면 국군이 들어오면서 마을 입구에서 마주친 민간인 3명을 죽여버렸다고 한다.

◇ 동창, 섬말주민을 동창교 밑으로 불러모음

군인들이 마을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마을 사람들을 총, 칼로 위협했다. 그리고 "강연이 있으니 모두 동창교 밑으로 모이시오"하면서 동창교 밑으로 집결시켰다.

◇ 모이게 한 이유

당시 군인들은 동창마을에 빨갱이가 많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빨갱이를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진군, 마을사람들을 집결시킨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빨갱이나 부역을 했던 사람들은 모두 달아나 버린 이후였고 마을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와 관련이 없거나 떳떳하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다.

◇ 군중들을 분리하여 대상자를 가려냄

마을 주민들이 모이자 이들중에서 노약자와 어린이를 가려내고 군, 경가족을 나오도록 했다. 군인들이 대열을 돌아다니며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작업을 통해

1. 발생일

일 시 : 1951년 1월 20일
장 소 :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동창교 상류 자갈밭

2. 학살 당시 상황과 가해자

(1) 사건 개요

1950년 11월 쯤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중대

130여명을 가려내어 이들을 만봉천이 흐르는 다리 위쪽의 300평 가량의 밭으로 끌고 갔다.

◇ 무자비한 학살

군인들은 청장년들을 동창교위 300평의 밭에 6열 횡대로 줄을 세워놓고 6명씩 앞으로 나오게 하더니 기관총으로 사격을 가하여 불과 5분만에 96명을 쓰러뜨렸다. 그리고 노인들을 불러내 시체를 한 곳으로 모은 뒤 확인사살까지 하였다.(정태균씨가 현장옆에 있는 신북여관에서 현장을 목격함)

또 이들은 당시 국민학교 교사 박영만씨 부인 노점숙씨가 업고 있던 아기가 울자 당시 8개월된 아기를 싸죽였으며 이내 인근 논밭에서 영농준비를 하는 주민 40여명을 모두 총살시켰다.

◇ 학살동기의 모호함에 대해

국군이 왜 세지면에 와서 이같은 엄청난 학살을 자행했는지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에 참가했던 김종만씨(서울 거주)를 찾으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이 지역 출신의 김순모씨가 군대에 갔을 때 각 부대에서 전입해 온 병사들이 모였다고 한다. 당시 그 부대는 20사단 61연대 2대대 본부중대(통신병)이었다. 11사단에서 온 김종만씨는 김순모씨가 나주에서 왔다고 하자 동창사건을 자기들이 자행했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한 것을 듣고 알 수 있었다.

3. 피 학살자 현황

- (1) 피학살 총 인원 : 136명(노약자-4명, 여자-5명, 어린이-1명 포함)
- (2) 피학살자의 성격 : 양민

4. 유족회 활동내용

- (1) 가해자 면담이나 인터뷰내용 : 미실시
- (2) 국회나 정부에 제출한 탄원서, 청원서 그리고 입법청원 등 : 199년 2월 25일 국회청원서 제출 (청원서 별첨)
- (3) 진상규명을 위한 정보공개청구 : 미청구
- (4) 헌법소원 제출 : 미제출
- (5) 피해보고서나 책자발행 : 세지면 동창교 양민학살사건 백서발간, 자료수집중(2001년 초 백서발간예정)
- (6) 관련 언론보도 일지, 텔레비전 방영 프로그램
- ◇ 1960년 5월 24일 : 전남일보 - 동창양민학살사건 6·25 특집기사
- ◇ 1960년 6월 : 나주문화원과 광주일보 「애향」의 6·25 특집
- ◇ 1996년 : 나주신문에 동창교 양민학살사건 2회」 게재

- ◇ 1998년 6월 : 「세화와 지죽」 책자에 수록
- ◇ 2000년 1월 18일 : 세지면 동창교 양민학살 49주기 합동위령제 봉행기사(3방송사)의 12시~21시 뉴스 방영

5.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활동

- ◇ 1998년 12월 28일 : 나주시의회 진상조사 특위구성 나주시의회 제 36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진상조사요구안(나주시의회 이상계 의원 발의) 만장일치로 가결
- ◇ 1999년 2월 25일 : 세지면 동창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국회청원
- ◇ 1999년 12월(나주시장) : 세지면 동창교 양민학살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 봉행 예산지원(8,000만원)
- ◇ 2000년 1월 18일 : 「세지면 동창교 양민학살희생자」 제 49주기 합동위령 봉행

IV. 대구·경북

12. 문경 석달마을

1. 학살 시기 및 장소

1949. 12. 24 11:00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석봉리 석달동

2. 가해자

중무장한 대한민국 국군 제2사단(사단장 송호성) 제25연대 (연대장 유희준)3대대7중대2소대(소대장 유진구)에 의하여

당시 사건 현장으로 국군을 안내한 문경시 호계면 선암리 거주 주민 2명중 장성환은 사망하였고 노성근은 현재 생존해 있음

3. 피학살자유형

주민 86명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24채의 가옥을 전소시킨 사건

· 사망 : 86명

- 15세 미만 어린이 26명 (초등학교 10명 포함)

- 15세 이상 60명 (65세 이상 노인 13명 포함)

※ 가족 전체 몰살 가구 5세대

· 현장 생존자 23명 (중경상자 12명 포함)

성명	성별	생년월일	피학살당시연령	비고
채홍명(蔡鴻明)	남	1936. 4. 8.	14	타동(김용리) 거주자
채주철(蔡周撤)	남	1882. 7. 1.	68	
권가국(權佳局)	여	1890. 1. 10.	60	
채세진(蔡洗鎭)	남	1910. 12. 11.	40	
민접연(閔接連)	여	1907. 3. 4.	43	
채홍목(蔡鴻牧)	남	1931. 3. 20.	19	
채홍래(蔡鴻來)	여		5	
채영진(蔡營鎭)	남	1919. 8. 23.	31	
황양동(黃陽東)	여		70	
채주역(蔡周屹)	남	1887. 4. 1.	63	
이계용(李桂用)	여	1912. 10. 7.	38	
채아기(갓난애)	여		1	
홍남순(洪南順)	여	1869. 9. 10.	81	
채명분(蔡明分)	여	1930. 2. 27.	20	
김원지(金遠池)	여	1968. 7. 10.	82	
김악이(金岳伊)	여	1905. 8. 15.	45	
채명진(蔡銘鎭)	남	1923. 8. 25.	27	
정정희(鄭貞姬)	여	1920. 2. 2.	30	
김임섭(金任燮)	여	1915. 1. 14.	35	
채성순(蔡成順)	여	1935. 10. 21.	15	
채두용(蔡斗龍)	여	1938. 12. 3.	12	
채영해(蔡永海)	남	1941. 2. 8.	9	국민학교 2년생
김병철(金丙喆)	남		67	
김수용(金壽用)	남	1912. 1. 4.	38	
우일본(禹·粉)	여	1920. 11. 21.	30	
김병영(金炳英)	남	1940. 3. 25.	10	국민학교 3년생
김상연(金尙連)	여	1943. 4. 15.	7	국민학교 1년생
김병준(金炳俊)	남	1947. 8. 17.	3	
정유생(鄭有生)	여	1908. 10. 21.	42	
채미준(蔡美俊)	여		14	
채홍수(蔡鴻洙)	남	1947. 2. 28.	3	
정치수(鄭致秀)	남	1894. 5. 14.	56	
박원연(朴元連)	여	1889. 7. 20.	61	
장차양(張且陽)	여	1924. 8. 8.	26	
정아기(갓난애)	여		1	
권화일(權華·)	남		44	
이씨(李氏)	여		41	
권기매(權基梅)	여		11	
김분이(金分利)	여	1897. 3. 2.	53	
이미분(李美粉)	여	1938. 6. 27.	12	
이점술(李點述)	여	1941. 2. 26.	9	
장수금(張水金)	여	1909. 1. 6.	41	
계				86 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피학살당시연령	비고
김명월(金明月)	여	1915. 1. 15.	35	
전병하(全炳河)	남	1936. 5. 21.	14	
전춘달(全春達)	남	1909. 4. 29.	41	
전병기(全炳琦)	남	1936. 10. 5.	14	
전희자(全喜子)	여	1943. 5. 15.	7	
채주순(蔡周順)	남		37	
정순연(鄭順連)	여	1929. 7. 13.	21	
채철진(蔡哲鎭)	남		3	
채만출(蔡萬出)	남		29	
전본동(全本東)	여		69	
채남진(蔡南鎭)	남	1883. 9. 27.	67	
김영춘(金永春)	여		77	
박재춘(朴在春)	남		30	
김봉자(金鳳子)	여		20	
박아기(갓난애)	남		1	
황기수(黃基壽)	남	1882. 1. 10.	68	
엄계홍(嚴桂興)	여	1913. 6. 16.	37	
황출주(黃出周)	남	1934. 11. 28.	16	
황의인(黃義仁)	남	1934. 12. 1.	16	
황갑순(黃甲順)	여	1940. 1. 16.	10	
황점용(黃點用)	남		3	
황아기(갓난애)	남		1	
김용환(金容煥)	남	1934. 3. 28.	16	
채순례(蔡順禮)	여	1909. 1. 21.	41	
남수영(南秀永)	남	1932. 4. 25.	18	
이경대(李京大)	남		23	
남수창(南秀昌)	남	1934. 3. 20.	16	
남희목(南喜木)	남		2	
남아기(갓난애)	남		1	
채주민(蔡周民)	남	1896. 6. 22.	54	
장영희(張永姬)	여	1916. 8. 17.	34	
채갑진(蔡甲鎭)	남	1934. 1. 4.	16	
채훈진(蔡薰鎭)	남	1937. 1. 20.	13	
채갑순(蔡甲順)	여	1938. 3. 1.	12	
채외순(蔡外順)	여	1941. 1. 18.	9	국민학교 2년생
채대진(蔡大鎭)	남	1940. 2. 27.	10	국민학교 3년생
채점식(蔡點植)	여	1942. 12. 11.	8	국민학교 2년생
채홍복(蔡鴻福)	남	1943. 3. 20.	7	
채주태(蔡周泰)	남	1901. 3. 15.	49	
채창진(蔡昌鎭)	남	1935. 12. 26.	14	
황기해(黃基海)	남	1892. 2. 2.	58	
황석주(黃石周)	남	1927. 3. 3.	23	
황봉구(黃鳳九)	여	1942. 2. 25.	8	
채주락(蔡周洛)	남	1882. 9. 18.	68	

4. 사건유형

선량한 마을 주민을 “공비협조자”로 오인해 집단 학살한 사건으로서,

(1) 피학살자들 시신 처리

참살 다음 날인 1949년 12월 25일 문경경찰서 및 산복지서 경찰관 수명이 사진사(점촌, 국민사진관 주인)를 참살현장에 데리고 와서 학살실상을 확인하고 불타버린 마을의 참경과 피학살자들의 시신을 촬영해 갔다.

폐광 된 동굴에서 밤을 샌 생존자들은 부상자들을 급히 병원으로 옮기고 각자 자신들 가족들의 시신을 찾아서 가족별로 한곳으로 모았다. 그런데 웬지 밤새 많은 시신들이 불에 타서 자기 가족임을 확인하지 못한 시신들이 상당수 있었다. 생존자들은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일단 인근동네에 살고 있는 친인척들을 찾아서 흩어졌었다. 하루가 더 지나서 생존자들이 참살현장에 다시 모였다. 웬지 관에서는 전혀 손을 쓰지 않았다. 동민들이 아무런 죄없이 참살 당한지 3일이 되던 날 참살자들의 시신은 멀리서 혹은 가까이에서 온 친인척들에 의하여 관도 없이 입은 옷 그대로 일곱 묶음의 세끼줄에 묶여서 가까운 야산에 가매장 됐다. 전가족이 몰살되어 연고가 없는 시신들을 포함해서 상당수의 시신들은 참살 현장 근처의 밭에 가매장 되었다. 불태워진 시신들 중에서 끝내 가족의 시신을 찾지 못한 이도 여럿 있었다.

(2) 생존자들 실태

당시 석달동 거주 주민 127명 중 생존자들의 수는 출타했던 주민들을 포함해서 41명 이었다.

생존자들 중 부상자들은 점촌과 김천으로 분산되어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중상자들중 권가옥씨(여,61세)는 입원가료중 사망했고 이목열씨(남,29세)는 한쪽 손을 못쓰는 불구자가 되었으며 강희수씨(여,30세)는 한쪽 다리를 못쓰는 불구자가 되었다.

부상을 당하지 않은 생존자들은 참살당한 가족들의 시신을 가매장 한 후 집한 채 없이 허허벌판으로 변해버린 고향을 등지고 가슴에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을 안고 모진 목숨 죽지 못해 멀리 친인척들을 찾아서 빨빨이 흩어졌다.

1950년 1월 17일 신성모(申性模) 국방부장관이 현지에 와서 생존자들을 위로 한 후 동행한 이정희(李正熙) 문경군수에게 위로금 100만환을 전달했다. 신성모 국방부장관이 다녀간 후 생존자 1세대당 미군용 담요 1장씩과 약간의 식량이 관으로부터 전달되었다. 신성모 국방부장관이 다녀가기 이전까지는 관의 구호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생존자들은 계속해서 친인척들의 신세를 지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친인척이라 할지라도 한집에 오래 머무를 수 없어서 이리 저리 옮겨 다니며 빌어먹는 신세가 되었다. 이듬해 봄에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 갈 때까지

이런 생활이 계속되었다.

이듬해 봄이 되어 주택건축 보조금조로 관에서 생존자 1세대당 16,000원 썩의 보조금이 전해졌다. 생존자들중 대부분은 그래도 고향이 좋다고 관에서 준 보조금을 보태어 움막같은 조그만 집 한채씩을 마련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를 지으며 새 삶을 시작했다. 주택은 주로 흙집이었으며 14세대에 32명의 생존자들이 입주했다. 새 마을의 위치는 참살 당시의 구동에서 아랫쪽으로 약500m 떨어진 곳이었다. 가족이 1명뿐인 집이 7세대나 되었다.

(3) 정부 당국의 사후처리

서기 1949년 12월 24일 정오경에 무장군인들이 경상북도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 석달동에 느닷없이 들이닥쳐 24가구의 집들을 모두 불태우고 127명의 마을 주민 대부분을 학살한 대양민학살은 언론들도 일체 보도하지 않았다.

국군들의 만행이 저질러진 후 3주쯤 경과한 1950년 1월 17일 예야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현지에 와서 학살(참살) 실상을 파악하고 생존자들을 접견하고 위로했다. 생존자들을 접견한 곳은 학살 현장에서 약 4km떨어진 김룡국민학교였다. 신성모 국방부장관이 현지를 다녀간 후 이상한 일이 생겼다. 이익성(李益成) 문경경찰서장과 이기용(李基川) 산복지서주임이 직위해제되어 경찰복을 벗었다. 그리고 국군들에 의하여 저질러진 석달동 양민학살이 공비들이 저지른 소행으로 둔갑해 버렸다.

우리마을 주민들의 당시 피학살자들의 제적등본을 들춰보면 1949년 12월 24일 국군들에 의하여 저질러진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은 모두가 공비들의 소행으로 기록되어 있다.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을 공비들의 소행으로 호적 정리 하도록 보고한 장본인은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경찰서장 자리를 물러난 이익성 서장의 후임인 김이화(金利和) 문경경찰서장이 다. 물론 상부의 지시에 의하여였을 것이다. 국군들이 불과 한·두시간 동안에 24가구의 주택 전체를 불태워서 한 동네를 한날 잣더미로 만들고 아무런 죄도 없는 마을 주민 127명을 모조리 빨갱이로 몰아서 마을 주민 전부를 학살 하다시피한 천인이 공노할 이런 기막힐 국군의 만행을 언론에 조차도 일체 보도되지 않은채 결국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은 공비들의 소행이었다고 당국에서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은폐했다. 당국에서는 피학살자들의 장례(가매장) 때도 무관

심 했었지만 움막같은 아주 불품 없는 조그만 집 한채씩을 지어서 입주한 이후에는 더 더구나 무관심했다.

우리는 이렇게 정부 당국과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진 존재가 되었다.

5. 관계자료에 의한 사건진상의 입증

- 1998년 11월 19일자 시사저널 통권 473호가 단독 입수하여 공개한 「미국동군 사령부 정보일지 및 미군사고문단 정보일지」 <증거자료 1>와
- 존·메일이 저술한 「한반도 전쟁의 근거」에 나타난 증거자료와 이를 상세히 번역 보도한 시사저널의 기사 <증거자료 3, 4>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송호송 장군의 국군제2사단 예하 유희준 중령이 지휘하는 제25연대의 3대대 7중대 2소대 소대장인 유진규 소위와 하사관 2명이 진두 지휘한 만행으로서 미 극동군사령부 극비문서에 확인되어 있습니다.

6. 석달동 양민학살 진상규명 활동 요약

- 1960년 5월 18일
4.19 학생의거로 이승만 자유당 독재정권이 무너지자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사건이 한국일보에서 최초로 보도됨.
- 1960년 5월 27일
채의진(蔡義鎭) 국회와 정부당국에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진상규명 호소문 전달.
호소문 내용 : 1. 학살 이유를 밝혀라
2. 학살자를 색출 처단하라
3. 인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라.
호소문 전달 기관장 : 내각수반, 참의원의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국방부장관, 내무부장관
- 1960년 6월 3일
국회조사단 현지 방문 현장 답사 및 생존 유족들로부터 증언 청취. 호소문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함. 국회 조사단원은 주병환(민주당) 윤용구(자유당)두 의원이었으며 경북에서는 문경만을 중점적으로 조사활동을 하였음.
- 1960년 6월 21일
국회 본회의(참의원 민의원 합동)에서 양민학살 진상조사 활동 보고와 함께 군경점 합동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학살자를 색출 악질적인 학살자의 엄중 처단과 아울러 피학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는 '양민학살사건처리특별조치법'을 제정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 정부에 촉구했음.
- 1960년 8월
새 정부 및 새 의회 탄생 : 12년간의 자유당 독재 정권하에서 '못살겠다 갈아보자'던 민주당이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로 집권함.
- 1961년 5월 16일

- 박정희가 이끈 군사 쿠데타 발발. 학수 고대했던 양민학살진상규명 좌절됨.
- 1961년 5월 18일
박정희 군사정권은 유족들이 1960년 5월 27일 당국에 제출한 호소문 내용의 일부를 반국가 행위로 규정. 표고령 제18호를 발동. 유족 중 채홍락(蔡鴻樂-당시 서울 서라벌고등학교 2년 재학)과 이목열(李穆烈-당시 반장)두 사람을 강제로 연행 구속시키고, 호소문을 직접 작성 제출한 채의진(蔡義鎭-당시 서울문리대 영어과2년)을 수배함.
- 1961년 8월
구속된 채홍락, 이목열 두사람 2개월간 옥고를 치른 후 석방 그 이후 생존유족들은 30여년간 군사 독재정권하에서 입도 뺏긔 못하고 쥐 죽은 듯 살아옴.
- 1990년 3월
월간 「말」 지 3월호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대대적 보도함.
- 1990년 7월
「말」 지 정희상(丁喜相)기자 “이대로는 눈을 감을 수 없소”(6.25전후 민간인 학살사건 발굴 르포) 책자 발간,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사건」을 8.15광복 후 국군에 의한 최초의 순수 양민집단대학살로 규정하고 가장 중요한 양민학살로 취급함.
- 1993년 2월 25일 : 김영삼대통령이 이끄는 문민정부시대 출범
- 1993년 4월 : 제14대 국회 출범
- 1993년 5월 3일 : 유족회 결성
명 칭 :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피학살자 유족회
회 장 : 채의진(蔡義鎭)
- 1993년 5월 19일
여류 작가 남상순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한 어린소녀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 「흰뱀을 찾아서」가 제17회 오늘의 작가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문예지 세계의 문학(계간) 1993년 여름호에 발표(KBS 2TV방영)
- 1993년 5월 20일 : 정부당국과 관계 요로에 타원서 제출
타원서를 제출한 곳 : 김영삼대통령, 대법원장, 검찰총장, 내무부장관, 권영해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김종필 민자당 총재, 이기택 민주당 총재, 이만섭 국회의장
- 1993년 6월 20일 : 남상순 소설 「흰뱀을 찾아서」 단행본 발간
- 1993년 7월 23일 : 군의회의원 학살현지 답사
문경군의회 의원 전원(9명)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현장 답사 및 증언 청취.
유족회장 채의진 1시간동안 참살전모 생생하게 증언 함. 김대영의장 유족들에

계 위로금 100,000원 전달. 우곡리에서 석달동 마을까지 내년도 예산에서 도로포장 약속

• 1993년 8월 4일

문경군 의회 김대영 의장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해결 촉구 건의서 이만섭 국회의장에게 제출

• 1993년 12월 18일 : 합동위령제 봉사

제1회 추모행사 및 합동위령제 봉사(12:00~13:00). 내빈 84명, 유족 51명 참석
「아, 통한 44년」 문경양민학살백서(90쪽) 200부 발간 배분

• 1994년 1월 31일

「아, 통한 44년」 문경양민학살백서(증보판)(217페이지) 1,000부 발간

• 1994년 2월 28일

「아, 통한 44년」 문경양민학살백서(증보판)(230페이지) 1,000부 발간

• 1994년 3월 14일

산북면 관내 기관장 및 유족대표 연석 회의 개최(장소 : 산북면장실)

• 1994년 4월

경상북도의회 유경탁의원이 제81차 도의회에서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해결책 모색 및 국회와 정부에 해결 촉구

• 1994년 11월 25일

국회 황낙주국회의장에게 제2차 탄원서 제출

• 1994년 12월 1일

「아, 통한 45년」 증보 3판 1,000부 발간

• 1994년 12월 7일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피학살자 86위 45주기 합동위령제 봉사

• 1995년 1월 5일

국회의원 전원 (299명)에게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해결을 촉구하는 제2차 탄원서 제출

• 1995년 2월 18일

민주당 김원웅(金元雄)의원과 민자당 이승무(李昇茂)의원이 주축이 되어 현역 국회의원 79명의 서명날인을 받아 국회에 특별법 제정 청원서를 제출.

• 1995년 3월

주간지 「시사저널」 제 282호 (95년 3월 23일자)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진실폭로

• 1995년 5월 6일

MBC 안동문화방송국에서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실상을 라디오 특집프로 (45분짜리) 로 제작 방송함. 타이틀 : 「석봉리 그해 겨울의 비가」

• 1995년 5월 10일

유족회장 채의진(蔡義鎭)은 강원도 춘천시 소재 한림대학교 「아시아 문화연구소」를 통해 1949년 12월 24일 국군이 저지른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을 공비들의 소행으로 허위 보고한 내용을 담은 「미군사고문단정보일지」(1949. 12.30)를 입수함. 이 비밀 문건은 재미 사학자 방선주(方善柱) 박사가 미국립문서보관소에서 입수한 것임.

• 1995년 6월 6일

케이블 TV Q채널 (채널25)에서 「문경 1949」 다큐멘터리 제작 3회 방영 (방영 시간 50분)

• 1995년 7월 2일 -16일

채의진(유족회장) 7월 2일 방미. 재미 사학자 방선주(方善柱)박사 (Maryland 주거주) 에게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사건」에 관한 「미국립문서보관소」 소장 비밀문건 입수를 청탁하고 16일 귀국

• 1995년 12월 20일

「아! 통한 46년」 1,000부 발간

• 1995년 12월 24일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피학살자 46주기 합동위령제 봉사

• 1995년 12월 18일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14대 국회 177차 정기 국회에서 통과

• 1996년 1월 5일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법률 제5148호)

• 1996년 5월 : 제15대 국회 출범

• 1996년 12월 24일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피학살자 47주기 합동위령제 봉사

• 1998년 1월 5일

재미 사학자 방선주(方善柱) 박사에게 「석달대학살」에 관한 자료 수집을 부탁한지 2년 반만에 1차 자료입수통보 받음.

발견장소 : 미국버지니아주 소재 맥아더 기념관 문서관. 학살부대명 학살책임자가 누구인지까지 알려줌 하지만 누구에게도 귀뜸하지 말 것을 약속 함.

• 1998년 2월 25일 : 김대중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의 정부 출범

• 1998년 4월 28일

김대중대통령과 국회의원 전원(299명)에게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탄원서 전달

• 1998년 5월 12일

김종필 국무총리에게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해결을 촉구하는 탄원서 제

출

- 1998년 6월 12일
천용택 국방부장관에게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조속한 해결 촉구 탄원서 제출
- 1998년 6월 11일
미국 방선주(方善柱) 박사에게서 전화음. 학살 주동자 3명 명단 입수, 육군 제3사단 2연대 3대대 7중대 3소대의 유진규 소위와 김점동 하사와 2소대의 안택효 중사가 작당하여 2소대와 3소대 병사 66명을 이끌고 학살 자행함.
- 1998년 6월 16일
오전 11시 미국 방선주(方善柱) 박사에게 팩스 전송
오수 7시 30분부터 8시 10분까지 방선주(方善柱) 박사와 전화 통화함.
통화내용 : 맥아더 기념관 문서관에서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관련 문건 추가 입수.
당시 미국 정부에서 학살자 처벌 요구 했으나 한국정부에서 소극적 대응, 한국정부 고위층에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관련 문서 이송 문제 해결 촉구 3개월 내 해결치 않으면 다른 방법 모색 늦어도 금년에 해결 가능하다고 믿음.
- 1998년 7월 2월 -13일
7월 2일 재미 사학자 방선주 박사 면담차 채의진(蔡義鎭) 방미 13일 귀국 8월 13일 -14일 연세대학교에서 강연차 방한시 비밀문건 넘겨주기로 약속.
- 1998년 7월 27일
재미 사학자 방선주(方善柱) 박사에게 팩스 전송
- 1998년 8월 7일
오전 10시 30분 채의진(蔡義鎭), 채홍빈(蔡鴻彬) 행정자치부 방문 이종희씨 면담 오후 3시 춘천 한림대학교 「아시아 문화연구소」 방문 홍순우씨 면담.
방선주(方善柱) 박사가 미국립문서보관소에서 입수한 「미국동군사령부 정보일지」 등 4건의 비밀문건 입수함.
- 1998년 8월 9일
재미 사학자 방선주(方善柱) 박사에게서 서한 받음 「한반도 전쟁의 근원」이란 책을 저술한 미국무성 고위 관리 존 메릴(John Merrill)박사 소개 받음.
- 1998년 9월 21일
미국무부 고위 관리 존 메릴(John Merrill-한반도 전쟁의 근원 저자) 박사에게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에 관한 문건들은 요청하는 장문의 서한 팩스로 전송 함.
- 1998년 11월 13일
채의진 (유족회장) 서울시내 각 방송사와 각 일간지 신문사를 방문 「미국국

동 군사령부 정보일지」 제공 보도 의뢰

- 1998년 11월 16일
김학문(金學文) 문경시장, 문경시의회의원 전원에게 탄원서 제출
- 1998년 11월 19일
주간지 「시사저널」 제473호(98년 11월 19일자) 「문경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된 「미국국동군사령부 매일 일일정보일지」 공개 보도.
- 1998년 11월 19일
이의근(李義根) 경북도지사, 경북도의원 전원에게 탄원서 제출
- 1998년 11월 23일
국회 국방위에서 하경근 의원이 천용택 국방부장관에게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해결책 질의
- 1998년 11월 24일
천용택 국방부 장관에게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에 관한 「미국동군사령부정보일지」 첨부 2차 탄원서 제출
- 1998년 11월 26일
박준규 국회의장과 국회국방위원 전원에게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에 관한 「미국동군 사령부 정보일지」를 첨부 탄원서 제출
- 1998년 11월 30일
국회의원 전원(299명), 3당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한나라당)총재에게 미국국동군사령부정보일지 첨부 탄원서 제출
- 1998년 12월 24일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피학살자 49주기 추모의례 및 합동위령제 봉사
- 1999년 2월 12일
경상북도 의회 채희영(蔡熙永) 의원이 주축이 되어 도의회 의원 전원 (장성호 의장의 59명)과 신영국(申榮國-문경. 예천지구 국회의원) 의원 유족대표 채의진(蔡義鎭), 황의중(黃義鐘) 공동으로 국회에 특별법 제정 청원서 제출함.
- 1999년 3월 30일
경상북도의회 이시하(李時夏) 의원이 도의회 134차 본회의에서 박광희 행정부지사에게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에 대한 도차원의 해결책 질의함.
- 1999년 4월 20일
신영국(한나라당)의원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에 대한 특별법 제정 청원 제안 설명.
- 1999년 5월 20일 -28일
대한매일신보사 정운현(鄭雲鉉) 기자 추가로 입수된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에 관한 「미국동군사령부정보일지」 3건을 5월 20일자 「대한매일」과 5월 28일자 「뉴스피플」 제370호를 통해 보도함.

- 1999년 6월 25일
채의진 (유족대표) 은 MBC포럼 (안동문화방송)에 출연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의 실상과 그 진상규명활동에 대하여 45분(23:30-01:15)간 정윤희 기자와 대담 방영함.
- 1999년 7월 3일
MBC 문화방송 아침 7시 뉴스에서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보도함.
- 1998년 8월 18일
주간지 「내일신문」 제295호(1999. 8. 18)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보도함.
- 1998년 9월 13일
9월 13일자(제18762호) 「대한매일」 「대한광장」란에 방선주(方善柱) 박사 「민주기지론」을 통해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해결 촉구
- 1999년 10월 1일
중앙일보 10월 1일자(제 10793호) 사설에서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해결 촉구
- 1999년 10월 5일
10월 5일 KBS 1TV 밤 9시 뉴스에서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에 관하여 공중파 방송에서는 최초로 보도함.
- 1999년 10월 12일
MBC(안동문화방송) 밤 9시 뉴스에서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사건」 방영 보도 함.
- 1999년 10월 13일
MBC(안동문화방송) 아침 7시 뉴스에서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사건」 방영 보도 함.
- 1999년 10월 14일
주간지 「시사저널」 제520호(199. 10월 14일)를 통해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사건」 보도 함.
- 1999년 10월 14일
「한겨레신문」 제3622호 (1999. 10. 14) 수도권란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사건」 보도 함.
- 1999년 10월 21일
KBS 청주총국 보도함. 10월 21일 「충청투데이」에서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사건」 방영.
- 1999년 11월 4일
주간지 「시사저널」 제 523호 (1999. 11. 4)를 통해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사건」 해결 촉구 보도함.
- 1999년 12월 1일

-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국무총리에게 「미국동군 사령부 정보일지」 첨부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제2차 탄원서 제출
- 1999년 12월 16일
경북도의회 「양민학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 1999년 12월 24일
「아, 통한 50년」 책자 발간 배포
- 1999년 12월 24일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사건」 피학살자 50주기 추모의례 및 합동위령제 봉사
- 1999년 12월 24일
MBC(안동문화방송) 저녁 6시 30분 및 9시 뉴스에서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사건」 50주기 합동 위령제 봉사 보도함.
- 1999년 12월 25일
「한겨레신문」 제3694호(1999. 12. 25)를 통해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사건」의 진상규명 촉구함.
- 2000년 1월 13일
주간지 「시사저널」 제533호(2000. 1. 13)를 통해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관계당국에 촉구함.
- 2000년 1월 19일
경북도의회 「양민학살 진상규명특위」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현장 답사
- 2000년 2월 25일
「석달동(문경) 양민집단 대학살(Soktal Massacre) 실상」 발간
- 2000년 2월 25일~28일
채의진 한국인권재단 주최 「제주인권학술회의2000」 참가
- 2000년 3월 18일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출(덕수합동법률사무소 조용환 변호사 주도)
- 2000년 4월 18일
국방부 담당관 정석균씨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현장 방문 답사
- 2000년 5월 17일~19일
제4회 동아시아 평화 인권 국제회의 참가

7. 증언 및 사례

● 산북면 매화리 607번지 / 채홍련 / 63세 (사건 당시 11세)

Q 결혼 하셨죠?

A: 결혼 했지요. 허허.. (언제 결혼하셨어요?) 언제 했다면... 사건 후 오빠가 철

모르는 내가 또 따라갔지요. 그래 봤자 별 수 없었고. 숙모가 당신하고 친하게 지내는 분한테 사주도 보고 그러는 분인데.. 그 분 아들 당시 18살이었고... 안 어른도 눈 어둡고 바깥 어른도 눈 어둡고... 토지도 하나 없고 때 거리가 없었다. 지금 애 기하면 누가 믿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어려운 집은 없었어요. 호각을 부르며 '질러! 질러!' 그러는데 첫 집부터 불이 붙어서 .. 하루 일과가 총 맞아서 눈 떠보니까 굴에 누워있더라. 저기 있는 아재 형이 총을 심하게 맞아서 죽었고... 빈 집에 가서 밤을 지내고... 종곡리란 곳에 숙모가 살았는데 거기 들어가서 밤을 새니까 오빠가 들어왔더라. 다음 날 아침 10시 경...오빠가 오셔가지고 가자 하니까 먹진 못하고 피는 잔뜩 쏟아가지고 걸지도 못하재. 근데 오빠 하는 말이 얼른 가야지. 안 그러면 저 놈들이 또 와서 죽인다 해서 갔지. 출고 그래서 정신을 모르드래요. 그 이튿날은 우리 사촌 오빠하고 나를 업고 병원 가서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고 그래서 이래 살아난 거지요.

Q: 여기서 태어나셨나요?

A: 여기서 태어났지.

Q: 아버님은 뭐 하셨어요?

A: 우리 반 노친네는 선비... 아(이)들 글 가르치고 농사 짓고...살기도 어려우니까...

Q: 사건 전에 군인을 본 적이 있나?

A: 없다. ... 나이가 어렸고 어디 갈 형편도 아니라서... 오빠 시장 가셨고... 일은 안했지... 겨울이니까 점심은 모르고... 옆집에 애기 보면 점심이라고 죽을 끓였더라고 팔잎 넣고.. 그래서 그걸 얻어먹으려는 참인데... 불이 타들어오고 살림 꺼내야 하니까.. 그랬다가 거기 가서 총을 맞은게 하루 일과... 그랬다가 울을 해놓은데 울타리에 하매 불이 붙어오니 먹을 경황이 없었다. 울타리에 불 붙는거 보고 집에 와서 아버지 방에 가서 이불을 들어내고 부엌에 와서 놋그릇을 들쟁이(채)를 들어내고... 뒤에 가보니까 송아지가 있어서 뒤로 물어내고 영겁결에 물 버지기(?)를 내놓고... 그리고 논 바닥으로 갔다가 정신을 잃었다가 깨보니 굴이 었다...

사람을 죽일 지는 몰랐고 추우니까 이불을 필요하겠다 생각만 했다. 총이란 것도 몰랐고 그걸 쏘면 죽는 것도 몰랐다. 죽일 줄도 몰랐어. 그런 것도 몰라요. 집 밖을 안나가니까... 공부를 안했으니까 그 집에 가서 애기하고 노는게 그게 일과라. 겁이 나서 사람도 안 쳐다보고 귀에 듣기엔 '웁기라. 그러면 살려준다' 그래서 웁기 총을 맞고 정신을 잃었다가 깨보니 그런기라. 그래서 이불을 이리 들어보니 팔이 안 움직여서 그런 줄 알았지.

누런 옷을 입고 모자를 썼으니 군인인 줄 알았지. 그 전엔 이불을 덮어쓰고 있다가 할매 품으로 파고 들었다... 총을 쏘고 '산 사람은 웁기라'해서 사람이 죽었는 줄 알았지. 무서우니까 사람 쳐다 보지도 않았지. 그래서 웁기면서 할머니 이불

속으로 들어가다 맞았는지 웁기다가 맞았는지... 그 상황은 몰라요. 까무러쳤는지... 해가 산에 쪼맨치 걸렸을 때 깨났지. 가는 정신은 있었는데 거기 가서는 모른다니까. 총에 맞았을 때는 이미 죽었었어요. 정신이 없었다니까. 숨 넣은 저고리에 피가 나와서 꼭 들어 붙었어.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이걸 꿰으라케요. 근데 내가 안 한다니까 이래 아래쪽을 찢어서 치료를 했어요.

Q: 사건 직후 상황?

A: 이 집 할배 머리가 깨져서 이 집 아재가 막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뭐 창사가 나온 사람...뭐 말도 못해요. ...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집에서... 다음날 오빠가 가보니까 시체가 다 탔드래요. 어떻게 찾았냐하면 옷이 다 타고 시신도 탔는데 알아볼 상황이 안돼서 보니까 멧는 내의를 입으셨는데 그게 조매 붙어있드래요. 그래서 찾았대요.

어떻게 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했나? MBC에서 왔을 때 어떻게나 분한지... 내 인생이 살기가 말이 아니잖아요. 분해서... 그래서 막 달래드래구요. 내 인생 돌려달라고. 내 인생 11살로 돌려달라고 했어. 죽지 못해 사는 거라고 정말 이렇게 숨이 안 떨어지니게 사는 거지. 죄가 있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억울하게 ...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지. 이제는 하매 나이 이런데 이제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인생은 어떻게 해도 돌려질 수 없겠지만은... (51:19) 그때 우리 집 안쳐대고 우리 부모 안 죽었으면 내 대로 커서 어느 집에 시집갔을지 모르잖아요. 시집이 그게 뭐라요. 14살 먹은 걸 시집을 보내놨으니.. 그걸 어떻게 해요.

보고싶지... 난 이미 그 때 떠났잖아요. 이 사람들 만난 지도 얼마 안돼요. 시집살이도 웬만해야지. 그 사이에 고향에 와보고 싶어도. 앞 못보는 시부모들 때 맞추느라 와보지도 못해여.

워령제 지낼 때 와보기도 하고 바쁘면 못 오기도... 오빠도 테릴 사위 사느라 만나도 얘기도 오래 못하고... 지금은 구미 살아요. 지금도 못가요.

억울하게 돌아가셨지요. 사람이 명대로 살지 못하고. 그때 이미 70이었으니까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알고 싶지요. 어떻게 돼서 죽게 됐는지. 그래서 이래 아재가 오라카면...

우리는 살아봤자 얼마 못살아. 그래서 우짜든동 살아서 원한을 풀고 저승에 가서 우리 아버지한테 원한을 풀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야든동 내 죽기 전에 (울 먹이신) 하루도 잊은 날이 없어요. 아무리 아무리 사람인데 아이 어른 없이 어느 군인이 어느 부모가 그런 자식을 낳아서 남의 인생을 이렇게 망치는 그런 자식을 낳았을까 ... (고개를 세차게 흔들..) 어떻게 해야 좋아요. 내가 도로 묻고 싶어요. 내 인생을 11살 인생으로 돌려가지고 다시 살고싶어요. 남들 같이 어디 가서 내 재주만큼 내 노력껏 살고 싶어요. 그걸 누가 돌려줘요. 억울해요. 정말로 억울해요. 사람이 태어났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인생을 살아간다 하면...

Q: 자식들 한테 말씀 하셨나?